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http://www.kihasa.re.kr>



정 책  
19-115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19-11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83-01

##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이상정

김지민·김세원·김영지·안재진·최창욱·황정하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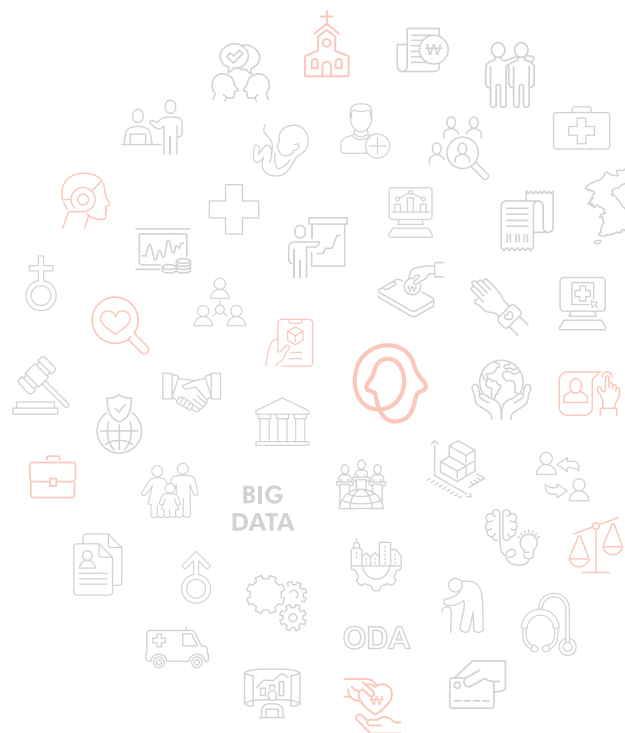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책임자

이 상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진

김 지 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 세 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 재 진 가천대학교 교수

최 창 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정 하 전남대학교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사회정책 수  
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정책보고서 2019-11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83-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이상정

김지민·김세원·김영지·안재진·최창욱·황정하



**【연구책임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세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재진 가천대학교 교수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정하 전남대학교 교수

---

## 제 | 출 |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요 약 .....	1
<b>제1장 연구 배경 .....</b>	<b>7</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2
<b>제2장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b>	<b>17</b>
제1절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의 개발과 발전 .....	19
제2절 2018년, 2019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	26
제3절 2018·2019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40
<b>제3장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b>	<b>43</b>
제1절 중앙부처 평가결과 .....	45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78
<b>제4장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b>	<b>93</b>
제1절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	95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	108
<b>제5장 사례 연구 .....</b>	<b>115</b>
제1절 대만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	117
제2절 싱가포르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	123
제3절 소결 .....	127

---

<b>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b>	<b>129</b>
제1절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논의 .....	131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논의 .....	133
제3절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	135
 <b>참고문헌 .....</b>	 <b>139</b>
 <b>부록 .....</b>	 <b>141</b>
부록1. 중앙부처 평가 양식 .....	141
부록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	142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지표 .....	11
〈표 2-1〉 2015년 아동정책 시행 계획 시범 평가 지표(중앙부처) .....	20
〈표 2-2〉 2015년, 2016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	21
〈표 2-3〉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	22
〈표 2-4〉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 평가 지표 .....	23
〈표 2-5〉 2015년, 2016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	24
〈표 2-6〉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	25
〈표 2-7〉 2018, 2019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	27
〈표 2-8〉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	29
〈표 2-9〉 지표 1-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	30
〈표 2-10〉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	31
〈표 2-11〉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실적 양식(예) .....	31
〈표 2-12〉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실적 양식(예) .....	32
〈표 2-13〉 지표 4-드림스타트 실적 양식(예) .....	33
〈표 2-14〉 지표 5-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실적 양식(예) .....	34
〈표 2-15〉 지표 6-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실적 양식(예) .....	34
〈표 2-16〉 지표 7-요보호아동 주거지원 실적 양식(예) .....	35
〈표 2-17〉 지표 8-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실적 양식(예) .....	35
〈표 2-18〉 지표 9-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실적 양식(예) .....	36
〈표 2-19〉 지표 10-가정위탁 지원 실적 양식(예) .....	37
〈표 2-20〉 지표 11-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실적 양식(예) .....	37
〈표 2-21〉 지표 12-아동친화도시 실적 양식(예) .....	38
〈표 2-22〉 지표 13-국가공모사업 실적 양식(예) .....	39
〈표 2-23〉 지표 13-국가공모사업 평가 대상 사업 예시 .....	39
〈표 2-24〉 현안점검 지표 .....	40
〈표 2-2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	41
〈표 2-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	42
〈표 3-1〉 2018·2019 중앙부처 시행계획 평가 대상 과제 수 및 예산 .....	46
〈표 3-2〉 2018·2019 시행계획 평가 대상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	47
〈표 3-3〉 2018·2019 시행계획 지표별 평가 결과 .....	48
〈표 3-4〉 2018·2019 시행계획 영역별 평가 결과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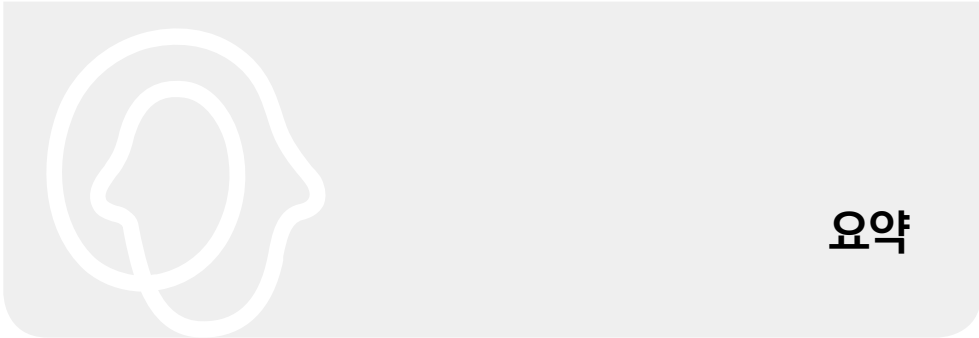
〈표 3-5〉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	49
〈표 3-6〉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	50
〈표 3-7〉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	50
〈표 3-8〉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	51
〈표 3-9〉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	51
〈표 3-10〉 2018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52
〈표 3-11〉 2019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53
〈표 3-12〉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	54
〈표 3-13〉 건강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	55
〈표 3-14〉 건강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	56
〈표 3-15〉 건강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	56
〈표 3-16〉 건강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	57
〈표 3-17〉 2018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58
〈표 3-18〉 2019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58
〈표 3-19〉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	61
〈표 3-20〉 안전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	61
〈표 3-21〉 안전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	62
〈표 3-22〉 안전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	63
〈표 3-23〉 안전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	64
〈표 3-24〉 2018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64
〈표 3-25〉 2019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65
〈표 3-26〉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	67
〈표 3-27〉 함께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	68
〈표 3-28〉 함께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	68
〈표 3-29〉 함께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	69
〈표 3-30〉 함께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	70
〈표 3-31〉 2018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70
〈표 3-32〉 2019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71
〈표 3-33〉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	72
〈표 3-3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	73
〈표 3-3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	74



〈표 3-36〉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	74
〈표 3-37〉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	75
〈표 3-38〉 2018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76
〈표 3-39〉 2019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	76
〈표 3-40〉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전국 기준 (2018, 2019) .....	79
〈표 4-1〉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 수 .....	96
〈표 4-2〉 중앙부처 영역별 예산 추이 .....	97
〈표 4-3〉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예산 추이 .....	101
〈표 4-4〉 영역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	102
〈표 4-5〉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평가 결과 .....	104
〈표 4-6〉 지자체 예산 추이 .....	105
〈표 4-7〉 지표별 평가 결과 .....	106
〈표 4-8〉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급 결과 .....	107
〈표 4-9〉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	109
〈표 4-10〉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	110
〈표 4-11〉 건강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	111
〈표 4-12〉 안전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	112
〈표 4-13〉 함께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	113
〈표 4-1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목표 달성도 .....	114
〈표 5-1〉 대만의 양육수당 및 양육자 보조금 정책 .....	122
〈표 5-2〉 싱가포르 아동 청소년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	125
〈표 5-3〉 싱가포르 가족 정책 중 아동 관련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	126
〈표 6-1〉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일자 .....	137

# 그림 목차

[그림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	9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	15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 기준 .....	79
[그림 3-2]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	80
[그림 3-3]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결과 .....	81
[그림 3-4] '성과달성도' 평가 결과 .....	81
[그림 3-5] '기반 구축' 평가 결과 .....	82
[그림 3-6]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율 및 12세 미만 아동 수혜율 .....	83
[그림 3-7]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	83
[그림 3-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84
[그림 3-9]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	85
[그림 3-10]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	85
[그림 3-11]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	86
[그림 3-12] 가정위탁 지원 .....	87
[그림 3-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	87
[그림 3-14] 항목별 점수 추이 .....	88
[그림 3-15] 시도별 점수 추이 .....	89
[그림 3-16] 현안 1.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	90
[그림 3-17] 현안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	91
[그림 4-1] 중앙부처 영역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	102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2017~2019) .....	10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8조에서는 중앙부처와 시·도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는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본 연구는 2018년, 2019년도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평가와 5년에 걸친 시행계획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2018·2019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평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 중앙부처 및 지자체 평가 기준

중앙부처 평가 기준			지자체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획의 적절성 (20점)	이전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기획의 적절성 (10점)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10		수립절차의 적절성	10
계획의 집행도 (30점)	예산집행률 * 2019년 제외	20	추진방식의 적절성 (20점)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	10
	추진계획 이행도	10			
성과 달성도 (50점)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성과 달성도 (60점)	드림스타트 수혜율	5
				국공립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	1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1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 통합주거지원서비스 시행 가점('19)	10
				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10

## 2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중앙부처 평가 기준			지자체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성과지표 측정의 신뢰성	10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가점('19)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5
				가정위탁 지원 * 전문가정위탁 지원제도 시행 가점('19)	5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 * 2019년 제외	2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5
		기반구축 (10점)	아동친화도시 구축	5	
			국가공모사업 참여	5	

중앙부처 아동정책은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2) 건강한 삶, 3) 안전한 삶, 4) 함께하는 삶, 5)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2018년에는 13개 부처에서 약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평균 90.5%가 집행되었고 2019년에는 13개 부처에서 약 8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17년 대비 '18년은 '계획의 집행도'(25.9점→27.8점)와 '성과 달성도'(36.1점→41.4점)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앙부처 지표별 평가 결과

년도	계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 달성도
'15	21.4 (30점)	22.6 (30점)	22.3 (40점)
'16	26.9 (30점)	22.1 (30점)	25.4 (40점)
'17	17.4 (20점)	25.9 (30점)	36.1 (50점)
'18	16.9 (20점)	27.8 (30점)	41.4 (50점)
'19	16.9 (20점)	8.4 (10점)	23.3 (30점)

영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17년 대비 '18년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특히, '함께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 크게 개선되었다.

〈표 3〉 중앙부처 평가 결과

년도	미래 준비 (교육·문화 등)	건강한 삶 (건강 등)	안전한 삶 (안전 등)	함께하는 삶 (복지 등)	실행기반 조성 (환경·여건 조성 등)
'15	71.8 (100점)	55.6 (100점)	61.6 (100점)	71.7 (100점)	66.0 (100점)
'16	77.6 (100점)	72.1 (100점)	75.6 (100점)	74.1 (100점)	72.4 (100점)
'17	84.1 (100점)	77.5 (100점)	79.7 (100점)	78.7 (100점)	76.4 (100점)
'18	93.0 (100점)	81.6 (100점)	84.5 (100점)	88.7 (100점)	82.7 (100점)
'19	56.5 (60점)	43.2 (60점)	46.0 (60점)	50.6 (60점)	46.7 (60점)

지방자치단체 평가결과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을 종합적으로 볼 때, 광주와 전북이 최우수 수준이며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전남, 경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가지표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의 비교는 어려우나, 2018년에 비해서는 2019년에 다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표 4〉 지자체 평가 결과

년도	기획의 적절성	추진방식 적절성	성과 달성도	기반구축	총점
'15	51.8 (70점)	21.5 (30점)	-	(가점항목 존재)	73.2 (100점)
'16	23 (30점)	10.4 (20점)	26.1 (50점)	(가점항목 존재)	59.5 (100점)
'17	8.9 (10점)	12.5 (20점)	37.1 (60점)	6.3 (10점)	64.8 (100점)
'18	8.5 (10점)	14.4 (20점)	31.9 (60점)	7.8 (10점)	62.7 (100점)
'19	8.7 (10점)	14.0 (20점)	33.6 (60점)	8.3 (10점)	64.7 (100점)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5개년 종합평가와 1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또한 진행하였다. 시행계획 평가결과의 5개년 추이는 상기 제시한 〈표 2〉~〈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른 달성도는 〈표 5〉와 같다. 1차 기본계획의 총괄영역 성과지표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해 2019년 현재 모두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삶의 만족도는 목표치인 77%를 초과하는 81.8%를 달성하였으며, 행복지수 역시 목표치, 85점보다 약 10점 더 높은 94.65점을 달성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은 90.82%로 목표치, 9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5개 영역	성과지표	현재 ('13)	목표치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81.8%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94.65점 ('17)	복지부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90.82% ('17)	복지부	내부자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31.5% (0-8 27.7%, 9-17 24.7%) ('18)	복지부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 4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5개 영역	성과지표	현재 ( '13)	목표치 (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2.97점 ( '18)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한 삶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72.13% ( '17)	복지부	건강검진통계
	신체활동 실천율 (주3일 이상 운동) *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의 대 체지표	35.9%	-	37.8% ( '18)	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7.2명 ( '17)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안전한 삶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1명 ( '15)	-	2.9명 ( '17)	행안부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3,100건 (성폭력) 3,473건 (상해폭행)	-	2,556건 (성폭력) 3,728건 (상해폭행) ( '17)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9.7% ( '17)	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함께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족 도	4.61점	5.4점	5.16 (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 * '소년범 재범률'의 대체지표	42.35%	-	46.72% ( '17)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주: \*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중, 지표 오류 또는 지표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2019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체지표를 설정하였음. \*\*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중, 출처나 수치가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았으며 이러한 경우 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는 사용 불가함. \*\*\*2018년도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는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3. 결론 및 시사점

2018년도와 2019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는 13개 관련 부처의 각각 153개, 144개 과제에 대해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예산이 눈에 띄게 증대하였고, 안전한 삶과 건강한 삶 영역은 예산이 낮게 편성되었다. 함께하는 삶 영역 또한 년도 시행 실적에 따른 한계 분석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과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고,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에서는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

한 사업들이 있어 이전 년도 실적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진전략을 개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은 기본계획 상의 다른 네 개의 영역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으로 기본계획 초기에 체계적인 기획을 통한 충실한 사업내용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8·2019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가 2개년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과지표 중에서는 국공립 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취학 아동 돌봄 공공성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보육 및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추진방식의 적절성 항목과 기반구축 항목의 경우 시도 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더하여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아동정책의 지역적 인프라가 격차가 확인됨으로써 아동복지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기본계획 이행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용어: 아동정책시행계획,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연구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연구 배경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은 아동분야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포괄적인 정책으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동행복도 증진’과 ‘아동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핵심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기반 구축을 포함하여 총 5개 영역(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에 걸쳐 16개 중점과제, 158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였으며, 2015년 ~ 2017년도에 완료된 14개를 제외하고,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144개의 세부과제가 수행되었다.

[그림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아동정책 기본계획, p.25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기본계획 이행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지표 중심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아동정책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5년 뒤의 목표치를 선정하였다. 기본계획 총괄 성과지표는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이며, 영역별 성과지표 살펴보면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표 1-1>). 우선,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 스스로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4개 중점과제, 41개 세부과제)의 총괄 성과지표는 아동결핍수준, 공동체 의식이며, 2개의 중점과제,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건강한 삶 영역은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아동의 주생활공간을 기반으로 아동건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발달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으며, 총괄 성과지표는 영유아건강검진율, 신체활동 실천율, 15~19세 아동 자살률로 선정되었다.

안전한 삶 영역은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아동안전의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아동의 발달주기별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예방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3개 중점과제, 30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 이에 대한 총괄 성과지표는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범죄 피해자수, 재학대 판정률이다. 빈곤, 장애, 가족해체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아동 및 소수집단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함께하는 삶 영역에는 2개 중점과제, 32개 사업을 구성하였고, 빈곤 아동 삶의 만족도,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을 영역 총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바람직한 양육, 교육, 보호를 위한 발달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실행기반 구축 영역에는 5개의 중점과제, 33세부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총괄 성과지표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가정생활 만족도, 양육스트레스가 관리지표로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본계획 이행 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8조에서는 중앙부처와 시·도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계획의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이행력 향상과 아동복지의 질적 수준 제고가 목적이며, 평가 결과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201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도의 시범평가를 실시한 이 후 매년 수행되어오고 있다.

〈표 1-1〉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 지표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총괄 성과지표	관리지표
총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삶의 만족도</li> <li>행복지수(주관적 행복 영역)</li> <li>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li> </ul>	-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 강화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결핍수(정기적 여가활동 결핍)</li> <li>공동체 의식</li> </ul>	비속어 사용률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교생활 만족도 어린이지 이용 만족도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11		
	아동의 참여권 보장	4		
	놀이·여가 권리 보장	4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건강검진율</li> <li>신체활동 실천율(주3일 이상 운동)</li> <li>15-19세 자살률(인구 10만명당)</li> </ul>	비만률 시력이상 유병률 아토피 유병률 스트레스 인지율(12-18세)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모유수유율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아침식사 결식률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26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 확보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0-1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아동10만명당)</li> <li>아동범죄 피해자수(15세 이하)</li> <li>재학대 판정률</li> </ul>	가정내 사고 발생 건수(15세 미만) 보행사고 사상자수(13세 미만) 고속도로 카스트 착용률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체벌 경험률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13		
	아동안전 기반 구축	7		
함께하는 삶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빈곤아동 삶의 만족도</li> <li>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li> </ul>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퇴소아동 자립률 나홀로아동 비율 초중고학업중단율 청소년다문화수용성 지수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30		
실행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9	-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가정생활 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14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2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5		

2015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2016년도의 시범평가에서는 아동정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이행률을 높이려고 하였다. 2019년도는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2018년, 2019년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를 포함하여, 지난 5개년의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평가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행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의 수립에 앞서 1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대한 마지막 평가로써, 2018년, 2019년도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평가를 통해 아동정책 전반에 걸친 실적 수준을 제고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지역의 체감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5년에 걸친 시행계획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기준·지표의 개선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기준 및 지표 등 평가방법을 설계하고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평가주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평가수행기관), 전문 평가 및 자문단 등 평가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 등 평가기준과 성과달성도의 비중 조정 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별 시행계획의 충실성을 높이고, 시행계획의 이행도 및 사업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

하여 분석·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자료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합하여, 사전 점검하고, 미비 자료 요청 및 자료보완의 절차를 거쳐 1차 점검이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중앙부처는 영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별로 해당 전문가를 통해 시행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행계획에 포함된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정도를 파악하고 성과지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고 자료를 지원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평가가 일차적으로 완료된 후에, 시행계획 평가결과의 환류 및 지방자치단체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 및 성과대회를 지원하였다.

지난 5년 동안의 시행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수립을 지원하고,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다. 한편, 아동정책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선진 해외 사례 연구로서 주요 아시아국가(대만, 싱가포르)의 아동복지 정책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한다.

## 2. 연구방법

연구 수행 과정에 따라 평가지표 개발 단계와 평가단계, 평가결과 환류 단계로 구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가지표 개발 단계에서는 시행계획 평가 관련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평가 추진체계, 방법 및 지표 분석을 통해 시행계획 평가 기획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관련 사업·예산 등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며, 필요시 자료 확인을 위한 현장 자료 수집, 언론·국회 등 유관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연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표와 평가 과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정책 담당 및 학계·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시행계획 분석·평가 및 사업 추진실적 파악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대상자의 평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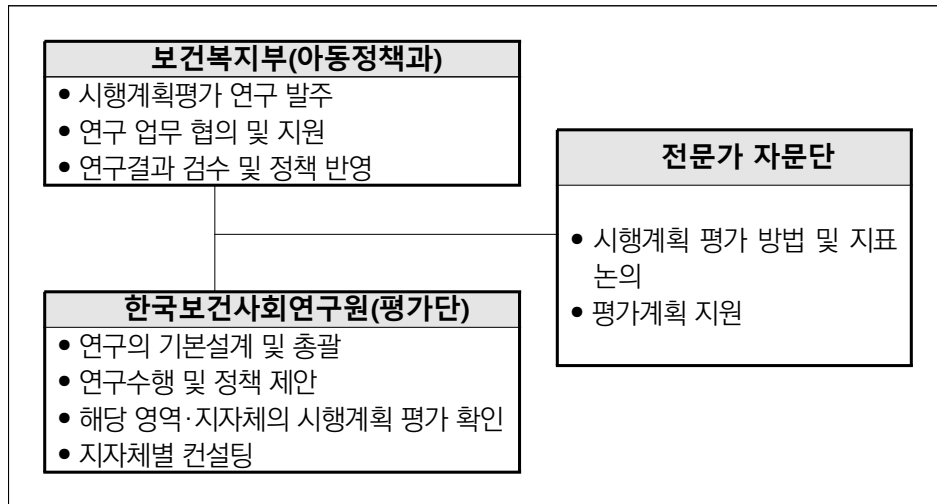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평가 추진체계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평가 실시를 위해 영역별, 지방자치단체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 방향과 지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평가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 환류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결과 환류 및 차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사업을 선정,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성과대회(워크숍)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수립에 따른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 작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아동정책 및 평가 관리에 관한 선진 해외 사례 연구로써 대만과 싱가포르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 3. 연구 수행 체계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주체인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와 평가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축하였다. 시행계획 평가단은 4개의 정책영역과 실행기반 관련 총 5대 영역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각 전문가가 해당 영역의 중앙부처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평가단이 시행계획 평가와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복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지표 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시행계획 평가 계획을 지원하였으며,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수립에 따른 차년도 시행계획 평가체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 제2장

###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제1절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의 개발과 발전

제2절 2018년, 2019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제3장 2018·2019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제2장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 제1절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의 개발과 발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는 2015년 시범평가의 평가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그리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시행계획평가의 평가분야와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의 점검을 통해 시범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표는(류정희 외, 2016), 이후 연도별로 시기에 맞게 수정·보완을 거쳐 사용되었다.

#### 1. 중앙부처 평가지표

2015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시범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3개의 평가 항목, 7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다. 중앙부처의 평가 항목은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이며, 각 항목별로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예산집행률, 추진계획 이행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를 지표로 구성하였다(표2-1)).

평가항목과 관련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기획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과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이다.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은 해당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는 정도를 파악하여 평가하며,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대상, 실행방법, 추진전략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계획의 집행도는 예산집행률과 추진계획 이행도를 통해 평가하며, 예산집행률은 영역별 사업의 계획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로 평가하고, 추진계획의 이행도는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로 평가한다(류정희 외, 2016).

마지막으로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이다. 우선,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

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별 성과목표를 적절하게 선정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은 사업별 성과목표를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설정하였는지, 혹은 하향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는 영역별 사업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의 평균값으로 평가한다(류정희 외, 2016).

〈표 2-1〉 2015년 아동정책 시행 계획 시범 평가 지표(중앙부처)

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표성격
기획의 적절성 (30점)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5	정성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15	정성
계획의 집행도 (30점)	예산집행률	15	정량
	추진계획 이행도	15	정성
성과달성도 (40점)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정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정성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20	정량

자료: 류정희 외(2016), p.51.

201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지표는 2015년도 평가 지표를 기초로 수정·보완하고 배점 또한 조정하였다. 평가지표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와 같이, 기획의 적절성과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로 구성되었으며, 기획의 적절성 항목에 전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에 대한 검토와 이에 근거한 개선 의지가 반영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이전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 지표를 추가하였다(오윤섭 외, 2017). 또한, 성과달성도 항목 관련, 내부 자료 혹은 구체성이 결여된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는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추가하고, 지표의 배점을 조정하여 성과 지표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오윤섭 외, 2017).

〈표 2-2〉 2015년, 2016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항목	2015년	배점	2016년	배점
기획의 적절성 (30점)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5	-	10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15	이전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	10
계획의 집행도 (30점)	예산집행률	15	-	15
	추진계획 이행도	15	-	15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	1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	10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	20	-	10

주: -, 전년도와 동일.

자료: 류정희 외(2016), p.51; 오윤섭 외(2017), p.23 수정

2017년도 시행계획 평가는 1차 기본계획 수행의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기본계획 시행 초기에 적합한 항목인 기획의 적절성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의 점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김미곤·강지원 외, 2018). 따라서 기획의 적절성 배점(10점)을 줄이는 반면, 성과달성도 점수(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를 높였다. 특히 기획의 적절성 관련 지표 중에서도,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은 기본계획 시행 후 누적된 기간 동안 점수의 편차가 거의 없어짐에 따라 변별력이 낮아졌다. 따라서 본 지표를 제외하고,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연계 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사업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정량지표를 강화하고 각 사업의 이행률을 높이는 측면에서 계획의 집행도 항목에 예산집행률의 배점(5점)을 높이고, 정성 지표인 추진계획 이행도 배점을 낮추었다(김미곤·강지원 외, 2018).



〈표 2-3〉 2015년, 2016년, 2017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항목	2015년	배점	2016년	배점	2017년	배점
기획의 적절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5	-	10	-	10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15	-	10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이전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총점	30		30		20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	15	-	15	-	20
	추진계획 이행도	15	-	15	-	10
총점	30		30		30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	10	-	1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	10	-	10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	1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20	-	10	-	20
총점	40		40		50	

주: -, 전년도와 동일.

자료: 류정희 외(2016), 오윤섭 외(2017), 김미곤·강지원 외(2018).

## 2.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2015년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시범 평가는 3개 항목 7개 지표로 구성되었다(류정희 외, 2016). 각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기획의 적절성 4개 지표, 추진방식의 적절성 2개 지표와, 국비보조 사업 등의 이행실적으로 집행과정을 평가하는 가산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2-4〉).

기획의 적절성은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 여부, 영역별 사업 배치의 적절성, 핵심사업 선정 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으로 구성하였다.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은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내용과의 연계성 정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는 기본계획에 기초한 지역별 자체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를 평가한다.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은 해당 사업이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영역별 구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된 정도를 평가하며,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은 핵심사업이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류정희 외, 2016).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수립절차의 적절성과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수립절차의 적절성은 시행계획 수립 시 적절한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평가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은 지자체의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가산항목의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별 예산집행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류정희 외, 2016). 따라서 대부분의 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기획과 사업의 추진의 합리적 운영을 적극적으로 측정하는 데 적절한 정성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가산항목만 정량 지표로 성과의 달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오윤섭 외, 2017).

〈표 2-4〉 2015년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시범 평가 지표

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표성격
기획의 적절성 (70점)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0	정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20	정성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15	정성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15	정성
추진방식의 적절성 (30점)	수립절차의 적절성	15	정성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15	정성
가산항목 (10점)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10	정량

자료: 류정희 외(2016), p.52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지표는 기획의 적절성, 추진방식의 적절성 이외에 성과달성도 항목을 추가하고 아동정책 분야의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 기제가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였다(오윤섭 외, 2017). 기획의 적절성은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은 삭제하고 기본계획의 부합성과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 특색사업의 선정 및 합리성의 3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2015년도와 동일한 2개 지표의 배점을 각각 10점 낮추고, 핵심사업이 아닌 지자체의 특색사업 선정 및 합리성(10점)은 지역별 여건과 특색사업 부합, 특색사업의 구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오윤섭 외, 2017).

추진방식의 적절성에서 수립절차의 적절성은 배점을 10점으로 낮추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은 아동정책추진 체계 구축으로 수정하였다. 수립절차의 적절성은 2016년 시행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실적으로 일반 주민, 민간전문가, 시군구 단위, 시도 내 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기준으로 제시하여 구체성을 보완하였다. 아동정책추진

체계 구축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오윤섭 외, 2017).

성과달성도는 아동복지예산 투입률, 아동복지전달체계 운영,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주거지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예산 투입률은 시도 내 아동 수 대비 전체 보건 및 사회복지 예산 대비 아동정책 예산의 투입 정도를 평가한다. 아동복지전달체계 운영은 시도 내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으로 시도 내 전체 시군구의 수 대비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 정도를 점수화 한다.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은 전체 유치원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유치원 이용아동의 비율과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총점화 한다.

〈표 2-5〉 2015년, 2016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평가항목	2015년	배점	2016년	배점
기획의 적절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0	-	10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 여부	20	-	10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15	삭제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15	특색사업 선정 및 선정의 합리성	10
추진방식 적절성	수립절차의 적절성	15	-	10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15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	10
성과 달성도	-	-	아동복지예산 투입률	10
			아동복지전달체계 운영	10
			국공립유아교육보육이용률	1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10
가점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10	아동친화도시 구축	2

주: -, 전년도와 동일.

자료: 류정희 외(2016), 오윤섭 외(2017).

요보호아동의 자립 및 주거 지원은 아동 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성과와 지역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발굴되었다. 자립지원 지표는 자립정착금 조례 규정과 금액을 점수화 하고, 주거지원은 보호종료 아동 수 대비 주거지원 수혜 아동의 비율을 점수화 한다. 가점 항목은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아동이 행복한 공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지역사회를 신청 및 조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하였다(오윤섭 외, 2017).

1차 기본계획이 중·후반기로 접어 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평가에 있어서도 2017년도 성과달성도 지표의 배점을 더욱 강화하고, 기획의 적절성 비중을 낮추었다. 2016년도 평가지표에 비해 기획의 적절성 지표의 배점이 10점 감소하였고, 성과달성도 지표의 배점이 10점 높아졌으며, 전년도의 가점 항목인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중앙정부가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을 추가하여 기반 구축 항목(10점)을 신설하였다(김미곤·강지원, 2018).

〈표 2-6〉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평가 항목	2015년	배점	2016년	배점	2017년	배점
기획의 적절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20	-	10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20	-	10		
	영역별 사업배치의 적절성	15	삭제			
	핵심사업 선정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15	특색사업 선정 및 선정의 합리성	10		
추진 방식 적절성	수립절차의 적절성	15	-	10	-	10
	관계기관과의 협업관계 구축	15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	10	-	-
성과 달성도	-	-	아동복지예산 투입률	10	드림스타트 수혜율	10
			아동복지전달체계 운영	10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10
			국공립유아교육·보육이용률	10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10	-	20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10	-	-
					-	5
가점/기반 구축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	10	아동친화도시 구축	2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5
총점		110		102		100

주: -, 전년도와 동일.

자료: 류정희 외(2016), 오윤섭 외(2017), 김미곤·강지원 외(2018).

기획의 적절성 항목은 지역 여건, 추진 목표 및 방향, 추진 전략을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와 각 평가 요소 간 연계 및 부합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10점만 부여하고, 추진 방식의 적절성은 2016년도의 기준과 지표를 똑같이 적용하였다. 60점이 부여된 성과 달성도 항목에서는 아동복지예산 투입률과 아동복지전달체계 운영 지표를 제외하고 대신에 드림스타트 수혜

울과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을 추가하였고,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지표의 배점을 2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김미곤·강지원, 2018).

## 제2절 2018년, 2019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평가는 초기, 2015년도에는 시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잘 부합하는지,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 등이 기본계획에 맞는지 등을 평가하는 기획의 적절성 항목에 중점을 두었고, 2016년, 2017년도에는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 항목에 중점을 두고 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1차 기본계획이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2017년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성과달성도 항목에 배점을 높이고, 그 중에서도 정량지표의 구성을 높여 정량화된 성과를 평가하는 방향을 지표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1차 기본기가 마무리 되는 후반기로 접어드는 2018년, 2019년도는 기본적으로 성과 달성도 항목의 비중이 확대된 2017년도의 지표를 적용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시기와 시의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수정하였다.

### 1. 중앙부처

2019년도는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 평가 결과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의 시행계획 평가가 동시에 수행되었다. 성과 달성도의 비중을 높이고, 정량 지표를 강화한 2017년도의 평가 항목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2019년도의 시행계획 평가의 경우, 평가 시점(2019년도 중반)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추진 실적 관련 지표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였다<sup>1)</sup>.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는 연중 실적을 연간 실적으로 평가할 경우, 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처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도는 두 지표를 제외한 60점이 시행계획 평가의 총점이다(<표 2-7>).

1) 2019년도 사업이 완료 된 후, 2020년에 제외 지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2-7〉 2018, 2019년 중앙부처 평가항목 및 지표

항목	2017년	배점	2018년	2019년
기획의 적절성	이전년도 시행실적의 반영	10	-	-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10	-	-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	20	-	×
	추진계획 이행도	10	-	-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	-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	-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	20	-	×
총점		100	100	60

주: -, 전년도와 동일; ×, 제외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2017년 시행계획 평가에 따른 각 지표의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다(김미곤·강지원 외, 2018, p.21~23). 정성평가인 기획의 적절성(20점) 지표는 이전 연도 시행 실적 반영과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으로 측정한다.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전 연도 추진 실적의 작성 여부와 전년도 추진 실적, 이전 연도 추진 내용의 관계이다.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의 평가기준은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연계 여부이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함께 이루어지는 계획의 집행도(30점)는 정량 지표인 예산집행률과 정성 지표인 추진계획 이행도로 측정한다. 우선, 예산집행률(20점)의 평가기준은 이전 연도 시행계획에 작성된 예산 항목과 예산액, 평가 당해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에 작성된 이전 연도 예산의 집행액으로 평가한다. 예산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비예산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의 평균(2018년, 19.3점)을 적용했다. 정성지표인 추진계획 이행도(10점)는 추진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체계의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성과달성도(50점)는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과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신뢰성, 그리고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로 구성되었다. 10점이 배정된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성과지표와 해당 사업의 범위, 타 법정 계획 성과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사업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의 일부만 측정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

다. 10점이 부여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은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설정이 평가 기준으로,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역시 10점이 배정된 성과지표의 신뢰성은 성과지표가 통계 기관에서 생산 혹은 작성한 승인 통계인지, 통계 작성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식에 의해 제공되었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

20점이 배정된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이는 전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달성도의 비율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어 성과지표도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값은 합산해 제시한다. 성과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는 성과지표가 없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만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균 점수를 적용하되,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예산 사업이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평균 점수를 100% 적용하고(2018년, 43.1점; 2019년, 24.2점), 예산 사업이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평균 점수의 70%(2018년, 30.2점; 2019년, 16.9점)를 적용하였다.

## 2. 지방자치단체

17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 단위로 이루어진 2018년,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 지표는 성과 달성도와 정량지표를 강화한 2017년도 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중앙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의성이 있는 지표를 보완하여 수정하였다. 기획의 적절성은 각 시·도가 지역별 여건에 기반을 두고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과 핵심사업 선정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2017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추진방식의 적절성은 시도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주민의 참여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이 또한 전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기반 구축 항목 또한 2017년도 평가지표와 동일하게 아동친화도시 구축 및 국가 공모사업 참여로 구성하였다.

성과 달성도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아동 정책에 대한 노력과 아동 복지 수준의 격차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아동정책 재정지원방식을 고려하여 국가사업의 성과(드림스타트 수혜율)와 보조사업의 성과(국공립 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지방이양사업의 성과(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가정위탁 지원)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8년, 2019년 평가에서는 2017년도 평가지표에 비해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항목의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5점), 가정위탁 지원(5점) 항목을 신설하였다.

〈표 2-8〉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항목 및 지표 비교

평가 항목	2017년	배점	2018년	배점	2019년	배점
기획의 적절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	-	-	-
추진 방식의 적절성	수립절차의 적절성	10	-	-	-	-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	10	-	-	-	-
성과 달성도	드림스타트 수혜율	10	-	-	-	-
	국공립유아교육보육이용률	10	-	-	-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20	-	10	* 자립수당 수혜율	10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10	-	10	* 통합주거지원서비스 시행	10
	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10	-	10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10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5	-	-
			가정위탁 지원	5	-	-
기반 구축	아동친화도시 구축	5	-	-	-	-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5	-	-	-	-

주: -, 전년도와 동일. \*가점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 가. 기획의 적절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으로 측정하는 기획의 적절성은 10점 만점의 정성 지표이다(김미곤·강지원, 2018).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성은 지역 여건, 추진 목표 및 방향, 그리고 전략을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 및 평가 요소 간 연계 및 부합 정



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역 여건은 아동 인구, 요보호아동 인구, 아동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아동정책 관련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며 관련하여 지역 여건이 시행계획 수립에 잘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추진 목표 및 방향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비전과 목표,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각 시도 지역에 맞게 고유한 아동정책 추진 방향이 설정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추진 전략은 영역별 혹은 사업별로 구체화된 실행 전략(action plan)이 잘 수립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앞서 설명한 세 평가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 9점, 2개만 충족하는 경우 7점, 한 개만 충족한 경우 5점, 모두 미충족하는 경우 3점, 미제시한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각 요소 간 연계 및 부합 정도에 따라 0에서 1점까지 추가 점수를 부여하여 총 점을 산정한다(김미곤·강지원, 2018). 김미곤·강지원 외(2018)는 지표간 연계 및 부합 정도를 0~2점 부여하였으나, 2018·2019평가에서는 기준 점수, 10점 유지를 위해 0~1점으로 수정하였다.

〈표 2-9〉 지표 1-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평가 요소	측정 내용	측정 방법
① 지역 여건	아동 인구(연령, 가구 특성 등), 아동 관련 시설(학교, 양육시설 등)의 정원 및 현원 등	세 지표 모두 충족: 9점 두 지표만 충족: 7점 한 지표만 충족: 5점 모두 미충족: 3점 미제시: 0점
②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역 여건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1년 단위)	
③ 추진 전략	영역별, 사업별 구체화된 전략	
④ 지표간 연계 및 부합	①~③ 내용의 일관성 및 부합	0~1점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5 수정

## 나. 추진방식의 적절성

### 1) 수립 절차의 적절성

수립 절차의 적절성은 2018년과 2019년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아동 및 학부모 3점, 일반 주민 2점, (민간)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1점, 공무원만 참석하는 경우 0점이 기준이 되며 대상자가 다양하게 참석한 경우에는 최고 점수만 적용한다(김미곤·강지원, 2018). 예를 들어, 일반주민도 참석하고 아동도 참석한 경우 아동 참여 점수 3점을 적용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 실적

은 횡수와 의견 수렴 대상의 곱으로 산정되며, 총점이 10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점수는 기준 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김미곤·강지원, 2018).

〈표 2-10〉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평가 요소	측정 내용	측정 방법
① 의견 수렴 대상	아동 및 학부모 3점 일반 주민 2점 (민간)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1점 공무원만 참석 0점	횡수 *대상별 점수 *의견 수렴 대상이 다양할 경우 최고 점수 적용
② 의견 수렴 실적	지역 여건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1년 단위)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5 수정

〈표 2-11〉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실적 양식(예)

① 주체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대상 0 공무원, 1 전문가/관계자, 2 일반주민, 3 아동/학부모	⑤ 행사명	⑥ 증빙자료 1. 있음 2. 없음
□□도	2017.1.20. 11:00	시청5층 대회의실	0, 1, 2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회의	1
..시	2017.1.22. 14:00	시청5층 대회의실	0	아동정책 시행계획 보고	1
..군	2017.1.10. 14:00	중회의실	0, 1	201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설명회	1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6 수정

## 2)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지표는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여부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회의 횡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도의 경우 구성여부와 운영실적 각 1점씩 총 2점, 시군구의 경우 구성여부와 운영실적 각 4점씩 총 8점으로 구분하였고 시도와 시군구 모두 운영실적은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횡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의견 수렴 실적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도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의 관련 공문, 회의록, 결과 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특성 및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여, 이 지표의 점수를 산정할 때 두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적용하였다. 첫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를 통해 구성한 경우, 아동정책 추진체계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 등을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아동정책 추진체계로 인정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만 있거나 시군구가 없으므로, 시도 점수만 실제 점수를 산정하고 시군구 점수는 나머지 15개 시도의 시군구 점수 평균값을 적용하였다(김미곤·강지원, 2018).

〈표 2-12〉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실적 양식(예)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점수	
	구성여부	실적	산식	점수
○○시	a	b	$a+b$	/2점
시군구 (계)	c	d	$(c/\text{시군구 수}) \times 4 + (d/c) \times 4$	/8점
..시				
..군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7 수정

## 다. 성과달성도

성과달성도는 2017년 평가지표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시의성을 고려하여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가정위탁 지원제도 등의 지표를 신설하고 2019년에는 통합주거지원서비스, 전문가정위탁 지원제도 등에 가점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 드림스타트 수혜율, 2) 국공립유아교육보육이용률, 3)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4)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5) 취약아동 돌봄 공공성, 6)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7) 가정위탁 지원, 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각각의 실적을 확인하였다. 성과달성도 항목의 지표는 모두 정량지표로, 중앙부처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존 자료 및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자료 취합 과정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드림스타트 수혜율은 시도의 시군구 수 대비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율과 12세 미만 아동수 대비 사례관리 아동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드림스타트 전담팀의 경우, 인력 구성이 드림스타트 구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전담팀으로 인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따르면, 드림스타트 인력 기준은 6급 이상 공무원인 팀장 포함해 공무원 최소 3인, 민간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 최소 4인이다(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드림스타트 업무를 수행하는 팀이 있더라도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담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례관리 수혜율의 경우, 2017년에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 아동으로 보았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강조하면서 대상아동을 아동 전체로 확장하였다. 이로 인해 2017년에는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수 대비 사례관리 아동 수’였던 평가 기준이 2018년과 2019년에는 ‘12세 미만 전체 아동 수 대비 사례관리 아동수’로 변경되었다.

〈표 2-13〉 지표 4-드림스타트 실적 양식(예)

	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수	12세 미만 아동 수
	전담팀	전담공무원 (팀장 포함)	전담민간인력		
□□도	a	b	c	d	e
..시					
..군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8 수정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실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수 대비 국공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매년 4월 1일에 조사하여 9월에 발표되는 유치원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였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표되는 보육기본통계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2018년 8월 31일 기준 현황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4〉 지표 5-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실적 양식(예)

	유치원				어린이집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가정	전체
□□도	a	b	c	d	e	f	g	h
..시								
..군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29 수정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 수 대비 자립정착금 수혜 아동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3호(자립정착금의 지원)에서는 지자체에서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아동분야사업안내 1권). 이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실적 지표에서는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수 대비 자립정착금 수혜 아동수를 평가하였다. 지원대상 아동 수 및 수혜 아동 수는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자립 지원 통합 관리 시스템)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5〉 지표 6-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실적 양식(예)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아동수			수혜아동수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도	a	b	c	d	e	f
..시						
..군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30 수정

요보호아동의 주거 지원은 정부 주거 지원 대상 보호 아동 수 대비 정부 주거 지원 수혜 아동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 실적을 파악하였으나 2018년, 2019년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포함하였다. 다만,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등의 경우는 주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의 시행을 장려하고자,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였다. 지원대상 아동 수 및 수혜 아동 수는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자립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16〉 지표 7-요보호아동 주거지원 실적 양식(예)

	정부 주거 지원 수혜자	정부 주거 지원 대상 보호아동 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아동수)	수혜율
□□도	a	b	
..시			
..군			

주: 2019년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행 지자체 가점 적용(시행시 1점)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31 수정

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지표는 초등학생 수 대비 중앙정부 재정 보조 돌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 수를 평가하였다. 이 지표는 2017년에 신설된 지표로, 2017년에는 초등학생 중 30%가 공공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보고 초등학생 수의 30% 대비 공공 돌봄 아동 수를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목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공공 돌봄 아동 수를 측정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공공 돌봄에 대응하도록 장려하고자 시군구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대해 1점의 가점을 적용하였다. 가점은 각 시도별로, 시군구 수 대비 시군구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수를 1점으로 환산하여 기본 점수에 추가로 부여하였다.

〈표 2-17〉 지표 8-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실적 양식(예)

	중앙정부 재정 보조 사업				초등학생수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도	a	b	c	d	e
..시					
..군					

주: 2019년에는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률 가점 적용(전체 시군구 수 대비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률을 1점으로 환산)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30 수정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지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학대아동 보호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에 신설된 지표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관련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동보호전문 기관과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쉼터 및 일시보호소를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 보고 지표로 설정하였다.

지자체별로 아동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인구 10만 명당 개소수를 측정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는 학대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포함하며,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요보호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지표의 배점은 5점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 2점, 쉼터 및 일시보호소 3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18〉 지표 9-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실적 양식(예)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 (청소년 일시쉼터 등 일반 쉼터 제외)	전체 아동 수
□□도	a	b	c	d
..시				
..군				

주: 2018, 2019 동일 적용

가정위탁 지원 실적 지표 또한 2018년에 신설된 지표이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는 아동 1인당 15만원 이상 지급을 권고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보조금 기준액이 상향되어 아동 1인당 2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이며 보조금 기준 또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상향된 기준인 아동 1인당 20만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현황을 지표로 신설하였다.

시군구별로도 보조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보조금 액수의 시도 평균을 산출하여 지침상 권고금액인 20만원 대비 충족률을 5점 만점으

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전문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0.5점의 가점을 적용하였다.

〈표 2-19〉 지표 10-가정위탁 지원 실적 양식(예)

	가정위탁지원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시군구 평균(a+b+c.../시군구 수)
..시	a
..군	b

주: 2019년은 전문가정위탁제도 운영시 가점 적용 (운영시 0.5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인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2018년에 신설된 지표이다. 평가 대상 아동복지시설로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을 포함하였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는 시도의 법정 필요 보육사 수 대비 실제 보육사 수의 비율을 산출하여 평가했다. 여기서 법정 필요 보육사 수란, 상기 명시한 5개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대해 2교대를 기준으로 각 시설별 법정 필요 보육사 수의 합을 의미한다.

〈표 2-20〉 지표 11-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실적 양식(예)

시도	시군구	유형구분	시설명	아동수			보육사수	법정필요 보육사수	법정필요 보육사 비율
				0~2세	3~6세	7세이상			
□□시	○○구	보호치료	000	1	1	1	3	5	50%
:	:	:	:	:	:	:	:	:	:
:	:	:	:	:	:	:	:	:	:
			합계						

주: 2018, 2019 동일 적용

## 라. 기반구축

기반구축 항목의 지표는 2017년 지표를 유지하여 아동친화도시 실적과 국가공모사업 실적 두가지 지표를 평가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실적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인증여부와 아동친화도시 인증 외 노력에 대해 시도와 시군구의 실적을 측정하였다. 특히 3



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지되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 신규 인증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인증받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하였다. 평가 인증 여부는 보건복지부 제공자료로, 2018년의 경우 12월 31일 기준, 2019년의 경우 8월 31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그 외 노력에 대한 점수는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예산을 편성한 경우 혹은 전담 조직을 편성한 경우를 반영하였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표 2-21〉 지표 12-아동친화도시 실적 양식(예)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자료 1. 있음 2. 없음
	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	2. 조례명 (조례명 입력)	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	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	
□□도					
..시					
..군					
예시1	× (18.10.12.)	×	×	×	1
예시2	○ (18.10.15.)	○ (조례명, 18.08.20.)	○ (항목명, 600만원)	○ (아동친화도시팀)	1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33 수정

국가공모사업 지표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업을 실시한 정도를 평가하였다. 아동 관련 국가 시책 사업에 공모한 경우 신청 1건 당 1점을 부여하고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 혹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선정 1건 당 2점을 부여하였다.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표 2-23〉와 같이 대상 사업 예시를 사전에 제공하였으며, 제출된 실적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포괄적으로 인정하였다.

〈표 2-22〉 지표 13-국가공모사업 실적 양식(예)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 명	시도	시군구 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주: 2018, 2019 동일 적용

자료: 김미곤·강지원 외(2018). p.32 수정

〈표 2-23〉 지표 13-국가공모사업 평가 대상 사업 예시

구분	공모사업명	사업목적	공모기관
아동 대상 사업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증진	복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운영을 통한 통합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실종아동찾기 홍보 공모사업	실종아동 전국민 홍보 확대와 관련 기관(단체)의 역량 강화 등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가족 대상 사업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도모	여가부
기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아동급식가맹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시설·설비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위생안전 제고	식약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재범방지	여가부
	아동안전지킴이	범죄예방, 비행 청소년 선도 등을 통한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경찰청

주: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평가에 기반하여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실제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는 포괄적으로 관련 실적을 제출할 것을 권장하였음

## 마. 현안점검

현안점검은 아동과 관련해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평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복지 정책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 영역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2018년)’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2019년)’를 현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두가지 현안과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6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현안인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인프라를 얼마나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 평가대상 참여 인프라로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선정하였다. 이 중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법적 의무 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시도 및 시군구 별로 구성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현안인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대상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을 선정하였다. 현안점검 항목의 평가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4〉 현안점검 지표

현안	지표	점검내용	평가자료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2018)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	시도/시군구 수 대비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현황	시도/시군구 수 대비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수 대비 비율	각 시도 아동정책시행계획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공간 확대 (2019)	아동놀이시설 현황	아동 천 명당 시설 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청소년수련관 설치현황	시군구 수 대비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문화의집 설치현황	읍면동 수 대비 비율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제3절 2018·2019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1. 평가 추진 체계

이 연구의 평가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총괄 책임자 1인과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5인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위원의 선정은 아동정책관련 전문 영역을 고려하여 구성하였고 평가위원 1인당 2개년 평균 중앙부처 30개, 지방자치단체 3.5개를 평가하였다.

〈표 2-2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중앙부처 평가 담당 영역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 시도	책임평가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삶	강원, 경북, 대구	김세원 카톨릭관동대학교 교수
건강한 삶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전한 삶	경기, 서울, 인천	안재진 가천대학교 교수
함께하는 삶	경남, 부산, 울산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행 기반 조성	광주, 전남, 전북, 제주	황정하 전남대학교 교수

## 2. 평가 방법

평가위원들의 전문 분야별 평가 관점의 차이와 개인별 격차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기 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1차 워크숍에서는 영역별로 진행되는 중앙부처 평가의 평가 방식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위원 간 서로 다른 관점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는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와 관련된 건의 사항, 수정보완 요청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담당자 설명회에서는 시도 제출 양식에 대해 설명하고 제출 일정 및 평가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담당자의 평가를 위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시도 실적자료는 ‘중앙부처 제공 자료’와 ‘시도 직접 제출 자료’로 구분하여 취합하였다. 시도 담당자의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지표 2, 지표 3, 지표 12, 지표 13과 같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시도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하였다.

중앙부처 실적 점검의 경우, 기 제출된 2018년, 2019년 실적자료를 점검하여 2018년, 2019년 예산과 2018년 성과지표 달성도 오류 및 오류 의심사례에 대해 각 해당 부처에 소명을 요청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오타에 대한 정정, 확정 예산 작성으로 인한 예산액 변경 등의 내용을 소명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평가위원 2차 워크숍은 지방자치단체 개별 평가 후 평가위원 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평가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점검하고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10월 18일과 10월 23일 양일에 걸쳐 점수 논의 및 1차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하였다.

1차 평가점수 산정 후에는 평가결과를 각 시도에 공유하고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으로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시도에 소명기회를 제공하였다. 소명내용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는 각 평가위원의 검토 후 시도 컨설팅 시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컨설팅에서는 평가위원과 시도 담당자가 소명 자료 제출 기간 동안 취합된 추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차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시 개선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표 2-26〉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구분	일정	목적
평가위원 1차 워크숍	8.1.	2018, 2019년 중앙부처 평가 지침 설명회
시도 담당자 설명회	8.20.	2018, 2019년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시도 실적자료 취합	9.17.~9.30.	시도 실적자료 취합 (중앙부처 제공 자료 포함)
중앙부처 실적 점검	8.26.~9.30.	중앙부처 추진실적 점검 및 소명 (추가자료 제출)
평가위원 2차 워크숍	10.18.~10.23.	2018, 2019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워크숍
시도 소명자료 제출	11.8.~11.26.	1차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소명자료 제출
시도 컨설팅	11.14.~11.22.	2018, 2019년 소명자료 확인 및 개선방안 컨설팅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제3장

#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 제1절 중앙부처 평가결과

#### 1. 중앙부처 평가결과 종합

##### 가. 평가 대상 과제 개요

2018·2019년도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개요는 <표 3-1>과 같다. 2018년도에는 13개 부처가 총 153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복지부 소관 과제가 70개로 전체의 45.7%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육부 소관 과제가 33개로 21.6%, 여가부 16개, 10.5%의 순이었다. 2018년도 전체 예산은 약 5.8조원 규모로 평균 90.5%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부처별로는 과제수가 가장 많은 복지부의 예산이 약 2.7조원(47.3%)로 98.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용부가 1.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26.3%를 차지하였으나, 67%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예산 규모, 0.7조원(12.3%)으로 3순위인 교육부는 99.9%의 높은 예산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외에 77%의 예산집행률을 나타낸 행안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는 95%~100%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의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는 총 144개이며, 복지부 소관 과제는 2018년도보다 비율이 높은 46.5%, 67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18년도와 유사하게 교육부 소관 과제 31개로 21.5%, 여가부 13개, 9%의 순이었다. 예산은 2018년도의 약 1.5배 수준인 8.3조원이었으며, 그중 59%, 4.9조원이 복지부 사업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다음으로 고용부 1.7조원(20.5%), 교육부 0.8조원(9.6%)의 순으로 나타났다.<sup>2)</sup>

2) 평가시기 상 '19년 예산집행률은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었으며, '20년에 점검하기로 함.



〈표 3-1〉 2018·2019 중앙부처 시행계획 평가 대상 과제 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

부처	과제수		2018			2019
	'18	'19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복지부***	70	67	2,726,205	2,680,955.6	98.3	4,924,766
교육부	33	31	745,344	744,594	99.9	810,033
여가부	16	13	366,090	366,045	100	571,205
식약처	3	3	85,837	85,392	99.5	90,376
법무부	6	5	23,904	23,688	99.1	24,546
문체부	7	7	128,790	128,790	100	102,365
고용부	6	6	1,507,217	1,009,471	67.0	1,656,374
산림청	2	2	165,179	161,147	97.6	184,218
과기부	1	1	4,247	4,247	100	3,868
국토부	2	2	1,560	1,559	100	1,560
행안부	2	2	1,095	843	77.0	1,205
경찰청	2	2	682	682	100	682
환경부	3	3	14,597	13,993	95.9	13,128
계	153	144	5,770,747	5,221,407	90.5	8,384,326

주: \* '18, '19년 시행계획에 작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사업에서 추경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양한 부처(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통계청 등)가 포함된 사업은 복지부에 포함.

2018·2019년도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의 영역별 분포와 예산을 살펴 보면, 〈표 3-2〉와 같다. 2018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과제 수는 30개로 약 2조원(35.1%)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아동수당(9,466억원)이 주요 예산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28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행기반 조성 영역의 예산이 1.9조원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한 가운데 아동양육기 근무개선 정착(1조 3,110억원) 과제가 주요 예산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 함께하는 삶 영역 33개 과제, 0.9조원(15.5%), 건강한 삶 영역 29개 과제 0.8조원(13.6%), 안전한 삶 영역 33개 과제 0.2조원(3.4%)의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2018년도에 비해 예산이 약 1.5배 증액된 2019년도에도 2018년도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28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예산 규모가 4.2조원(4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6개 과제의 실행기반 조성 영역으로 나타났다(2.2조원, 26.6%). 역시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수당의 예산이 2조 9,672억원으로 증대되어 주요 예산 사업으로 파악되었으며, 실행기반 조성 영역에서는 아동양육기 근무개선 정착(1조 4,552억원)이 주요 예산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32개 과제의 함께하는 삶(1조원, 12.1%), 29개 과제의 건강한 삶(0.8조원, 9.2%), 29개 과제의 안전한 삶(0.2조원, 2.5%) 영역의 순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표 3-2〉 2018·2019 시행계획 평가 대상 영역별 과제 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

영역	과제수		2018			2019
	'18	'19	예산*	집행액**	집행률	예산
미래를 준비하는 삶 (교육·문화 등 분야)	30	28	2,026,101	1,990,646	98.3	4,156,935
건강한 삶 (건강 등 분야)	29	29	786,833	785,819	99.9	775,122
안전한 삶 (안전 등 분야)	33	29	193,695	192,396	99.3	210,622
함께하는 삶 (복지 등 분야)	33	32	892,133	891,166	99.9	1,011,521
실행 기반 조성 (환경·여건 조성 등 분야)	28	26	1,871,985	1,361,381	72.7	2,230,126
계	153	144	5,770,747	5,221,407	90.5	8,384,326

주: \* '18, '19년 시행계획에 작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사업에서 추경 등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양한 부처(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통계청 등)가 포함된 사업은 복지부에 포함.

## 나. 중앙부처 평가 결과 종합

2018·201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대한 지표별 평가결과는 〈표 3-3〉과 같다. 우선, 2018년도의 경우, 100만점에 총점 86.1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획의 적절성 16.9점(20점), 계획의 집행도 27.8점(30점), 그리고 성과달성도가 41.4점(50점)을 차지했다. 지표별 점수의 비교를 위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84.5점, 92.7점, 82.8점으로 계획의 집행도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기획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순으로 성과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지표별 평가 점수는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가 제외되어 총 60점 만점에 48.6점으로 나타났다. 기획의 적절성 16.9점(20점), 계획의 집행도 8.4점(10점), 그리고 성과달성도가 23.3점(30점)을 나타냈다. 지표별 점수의 비교를 위해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각각 84.5점, 84점, 77.7점으로 기획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순으로 성과달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러한 지표가 제외된 2019년도는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 달성도 항목의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 2018·2019 시행계획 지표별 평가 결과

(단위 : 점)

항목	지표	배점	2018년		2019년	
			점수	100점 환산	점수	100점 환산
기획의 적절성	이전년도 시행 실적 반영(10)	20	16.9	84.5	16.9	84.5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10)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20)	30	27.8	92.7	-	84
	추진계획 이행도(10)				8.4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10)	50	41.4	82.8	23.3	77.7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					
	성과지표 측정의 신뢰성(1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20)				-	
총점		100	86.1		48.6	

주: '19년 중앙부처 평가 중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도 평가 제외('20년에 점검 예정)

2018·2019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 대한 영별별 평가결과는 〈표 3-4〉와 같다. 100점 만점인 2018년도의 경우,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점수가 9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함께하는 삶(88.7점), 안전한 삶(84.5점), 실행기반 조성(82.7점), 그리고 건강한 삶 영역(81.6점)의 순으로 건강한 삶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2018·2019 시행계획 영역별 평가 결과

(단위 : 점)

5대 영역	영역별 정책 방향	2018 (100)	2019 (60)
미래를 준비하는 삶	누리과정 내실화, 문화인프라 확충 등 아동이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93.0	56.5
건강한 삶	정신 건강 관리 인프라 확충, 생활습관(비만) 관리, 아동 예방접종률 향상 등 아동 건강관리체계 마련	81.6	43.2
안전한 삶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	84.5	46.0
함께하는 삶	방과 후 돌봄 체계 정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빈곤, 장애, 다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대책 마련	88.7	50.6
실행기반 조성	육아휴직 급여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산 등 아동권리 실현기반 마련	82.7	46.7

주: '19년 중앙부처 평가 중 예산집행률, 성과지표달성도 평가 제외('20년에 점검 예정)

2019년도는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정도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여 60점 만점이다. 1차 기본계획의 5대 영역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점수가 56.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삶(50.6점), 실행기반 조성(46.7점), 안전한 삶(46점), 그리고 건강한 삶 영역(43.2점)의 순으로 건강한 삶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도와 2019년도 모두,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고, 건강한 삶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영역별 평가 결과

### 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사업 개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중점과제별 사업 수는 <표 3-5>와 같다. 2018년에는 아동기 역량강화 14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 8개, 아동의 참여권 보장 6개, 놀이·여가 권리 보장 2개 등 총 30개 사업에서 2019년에는 아동기 역량 강화가 2개 사업이 종료되어 12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 8개, 아동의 참여권 보장 6개, 놀이·여가 권리 보장 2개 등 평가대상 사업이 총 28개였다.

<표 3-5>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단위: 개)

중점 과제	사업 수	
	2018	2019
아동기 역량 강화	14	1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8	8
아동의 참여권 보장	6	6
놀이·여가 권리 보장	2	2
계	30	28

주: 종료 사업을 제외한, 당해년도 평가 대상 사업의 수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중점과제별 예산은 <표 3-6>과 같다. 2018년에는 총 1,608,784백만원이던 예산이 2019년에는 총 4,156,935원으로 약 2.6배 늘어났다.

예산의 비중은 2018년과 2019년 공히 아동기 역량강화가 가장 많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놀이·여가 권리 보장, 아동의 참여권 보장의 순이었다.

한편, 2018년도 예산의 집행률을 보면 아동기 역량강화 97.8%,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 100.0%, 아동의 참여권 보장 99.8%, 놀이·여가 권리 보장 100.0%로 총 98.3%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3-6〉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단위:백만 원, %)

중점 과제	2018			2019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예산 (d)
아동기 역량 강화	1,608,784	1,573,333	97.8%	3,732,505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360,014	360,014	100.0%	353,144
아동의 참여권 보장	2,200	2,196	99.8%	2,271
놀이·여가 권리 보장	55,103	55,103	100.0%	69,015
계	2,026,101	1,990,646	98.3%	4,156,935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2) 항목별 평가 결과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기획의 적절성 점수는 〈표 3-7〉과 같다.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에는 20점 만점에 전체 평균 19.2점을 보였고, 2019년에는 20년 만점에 전체 평균 19.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놀이·여가 권리 보장에서 1점 정도의 하락을 보였다.

〈표 3-7〉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20)	점수(20)
아동기 역량 강화	19.4	19.6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18.6	19.0
아동의 참여권 보장	19.2	19.3
놀이·여가 권리 보장	19.5	18.5
전체 평균	19.2	19.1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계획의 집행도 점수는 <표 3-8>과 같다.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에는 30점 만점에 전체 평균 29.6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9년에도 역시 10년 만점에 전체 평균 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도 중점과제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3-8>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30)	점수(10)
아동기 역량 강화	29.7	10.0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30.0	10.0
아동의 참여권 보장	29.1	10.0
놀이·여가 권리 보장	29.7	10.0
전체 평균	29.6	10.0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성과의 달성도 점수는 <표 3-9>과 같다.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2018년에는 50점 만점에 전체 평균 44.2점을 보였고, 2019년에는 30년 만점에 전체 평균 27.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공히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이 다른 중점과제 보다 높은 점수를, 놀이·여가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9>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50)	점수(30)
아동기 역량 강화	45.2	27.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50.0	29.6
아동의 참여권 보장	41.6	27.7
놀이·여가 권리 보장	40.0	25.0
전체 평균	44.2	27.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3) 영역별 총괄 평가

2018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93.0점의 점수를 보였다. 중점과제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이 9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기 역량 강화 94.3점, 아동의 참여권 보장 89.9점, 놀이·여가 권리 보장 8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점과제별 차이는 성과달성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있어서 놀이·여가 권리 보장 및 참여권 보장 등의 정책적 강조가 필요함을 방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10〉 2018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100)	2018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아동기 역량 강화	94.3	19.4	29.7	45.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98.6	18.6	30.0	50.0
아동의 참여권 보장	89.9	19.2	29.1	41.6
놀이·여가 권리 보장	89.2	19.5	29.7	40.0
전체 평균	93.0	19.2	29.6	44.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019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평가결과 60점 만점에 56.5점의 점수를 보였다. 중점과제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이 5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 57.0점, 아동기 역량강화 56.7점, 놀이·여가 권리 보장 53.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점과제별 차이는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도의 성과지표 달성도 점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대적인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2019년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60)	2019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아동기 역량 강화	56.7	19.6	10.0	27.1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58.6	19.0	10.0	29.6
아동의 참여권 보장	57.0	19.3	10.0	27.7
놀이·여가 권리 보장	53.5	18.5	10.0	25.0
전체 평균	56.5	19.1	10.0	27.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개선 의견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평가결과 중점과제별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실현, 아동기 역량 강화,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이·여가 권리 보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과달성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한 놀이·여가 권리 보장 및 참여권 보장 등의 정책에 대한 강조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예산이 2018년에 비해 2019년 팔목할 만한 확대를 보여 고무적이고,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의 달성도 측면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런 높은 점수의 정책성과들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다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성과지표별 개선 사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의 적절성에 있어서 이전 년도 시행실적 반영에 있어 많은 사업들이 주요 성과를 제시하였으나, 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과의 연계 부문은 대체로 잘 작성되어 있었다. 둘째, 계획의 집행도에 있어서 예산집행률은 대체로 높았고, 추진계획 이행도도 대부분의 과제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성과달성도에 있어서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이 의심되는 사업들이 있었다. 성과지표에 있어 정책수립 여부, 법안 제출 여부, 만족도 등의 지표들이 있었는데, 이 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표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만족도 같은 지표는 웬만하면 상승시



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반영률 등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무난한 설정을 보이고 있으나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 소극적인 수치설정이 엿보이는 경우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성과지표 신뢰성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자체의 선정이 문제가 되어 측정산식을 구체화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었고, 자료출처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 달성도에 있어 달성도를 확인하기 힘든 ‘지속 노력’ 등의 표현들은 더욱 구체화된 표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나.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 1) 건강한 삶 영역 사업 개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2018-2019년 건강한 삶 영역의 중점 과제는 크게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같은 활동 공간에서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련 체계 마련과 발달주기별 건강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로 구분된다. 건강한 삶 영역의 2018년도와 2019년도 사업 수는 총 29개로 동일하였다. 중점과제별로는 2018-2019년 모두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은 4개 사업,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는 25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및 산림청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표 3-12〉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단위: 개)

중점 과제	사업 수	
	2018	2019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4	4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25	25
계	29	29

주: 종료 사업을 제외한, 당해년도 평가 대상 사업의 수임.

중점 과제별 예산을 살펴보면,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부분은 2018년 예산이 53,249백만 원이었고, 100% 집행되었다.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부분은 2018년 예산이 733,404백만 원이었고, 집행률은 99.9%로 2018년의 건강한 삶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건강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단위:백만 원, %)

중점 과제	2018			2019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예산 (d)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53,429	53,429	100.0%	56,037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733,404	732,390	99.9%	719,085
계	786,833	785,819	99.9%	775,12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019년의 경우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예산은 56,037백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5.0% 정도 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예산은 719,085백만 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1.5% 정도 감소하였다.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사업의 수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25개로 동일한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항목별 평가 결과

건강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은 이전 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10점)과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연계(10점) 두 개 지표로 측정되었다. 중점 과제 가운데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에 대한 기획 적절성 결과는 2018년은 16.5점(20점 만점)이었고, 2019년은 16.0점(20점 만점)으로 이전 년도에 비해 약간 점수가 낮아졌다. 반면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사업의 기획 적절성은 2018년 14.7점, 2019년 15.6점(만점 20점)으로 2019년이 2018년에 비해 0.9점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에 비해서는 점수가 다소 낮았다.

〈표 3-14〉 건강한 삶 영역 계획의 적절성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20)	점수(20)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16.5	16.0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14.7	15.6
전체 평균	15.6	15.8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건강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는 2018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20점)과 추진계획 이행도(10점) 두 개 지표로 측정되었다. 2019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진계획 이행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중점 과제별로 계획의 집행도를 살펴보면,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의 경우 2018년도 27.1점(30점 만점),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의 경우 2018년 26.5점으로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 사업보다 계획의 집행도 점수가 약간 낮았다. 2019년의 경우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의 계획 집행도 점수는 7.3점(10점 만점)이었고,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의 경우 7.0점으로 이전 년도와 유사하게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보다 계획 집행도 점수가 낮았다.

〈표 3-15〉 건강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30)	점수(10)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27.1	7.3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26.5	7.0
전체 평균	26.8	7.1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건강한 삶 영역 성과 달성도는 2018년의 경우 선정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의 신뢰성(10점),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4개 지표로 측정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를 제외한 3개 지표로 측정하였다.

〈표 3-16〉 건강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50)	점수(30)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38.5	19.0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39.9	21.5
전체 평균	39.2	20.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중점 과제별로 살펴보면,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의 성과 달성도는 38.5점(만점 50점)으로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의 성과 달성도 점수 39.9점보다 약간 낮았다. 2019년의 경우도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 사업의 성과의 달성도 점수는 19.0점(만점 30점)으로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의 성과 달성도 점수 21.5점보다 약간 낮았다.

### 3) 영역별 총괄 평가

2018년도 건강한 삶 영역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81.6점이었고,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15.6점(만점 20점), 계획의 집행도가 26.8점(만점 30점), 성과달성도가 39.2점(만점 50점)이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78.0점, 89.33점, 78.4점으로 기획의 적절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과제별로는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의 총점이 82.1점으로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사업의 총점 81.1점보다 약간 높았다. 기획의 적절성과 계획의 집행도 모두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분야의 사업 점수가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분야 사업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성과의 달성도 정도는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분야가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분야보다 점수가 높았다.

〈표 3-17〉 2018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100)	2018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82.1	16.5	27.1	38.5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81.1	14.7	26.5	39.9
전체 평균	81.6	15.6	26.8	39.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019년 건강한 삶 영역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계획의 집행도 가운데 예산 집행률(20점)과 성과달성도 중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지표를 제외한 기획의 적절성(20점), 계획의 집행도(10점), 성과달성도(30점) 지표로만 측정되었다. 2019년 전체 평균은 43.2점(100점 만점 기준 72.0점)이었다.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평균 15.8점, 계획의 집행도가 평균 7.1점, 성과달성도가 평균 20.2점이었고,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시 각각 79.0점, 71.0점, 67.33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성과달성도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점 과제별로는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의 총점이 42.3점으로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의 총점 44.1점보다 근소하게 낮았다. 2018년과 마찬가지로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의 기획의 적절성과 계획의 집행도 점수는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의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점수보다 높았으며, 성과달성도만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의 점수가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보다 점수가 높았다.

〈표 3-18〉 2019년도 건강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60)	2019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42.3	16.0	7.3	19.0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44.1	15.6	7.0	21.5
전체 평균	43.2	15.8	7.1	20.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개선 의견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가운데 건강한 삶 영역의 정책방향은 생활공간 기반 건강보장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발달주기별 건강보장의 경우, 임신출산 지원, 모유수유 증진,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내실화, 생활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중점 과제별 사업 과제의 수는 동일하게 나타났고, 2018년 예산의 집행률은 상당히 높았다.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중점 과제별 세부사업별로 점수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한 삶 영역 평가에서 기획의 적절성에 있어 다른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이전 년도 시행 실적 반영 작성 시 전년도 사업 실적 누락, 결과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동일한 사업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규모, 예산, 문제 정도 등 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기대효과성 간의 연계가 뚜렷하지 않아 기획의 적절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대효과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계획의 집행도 경우, 2018년 예산 집행률은 99.9%로 매우 높았다. 반면, 2018년 사업의 추진계획 이행도에서는 사업 간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서 점수의 편차가 있었다.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서 사업 간 점수의 편차는 2019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추진계획 이행도 점수가 낮은 사업은 사업의 주체, 대상 및 인원 수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의 목적과 추진계획 간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였다. 셋째, 성과달성도 항목 점수는 중점 과제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8년과 2019년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이 기획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집행도 점수 모두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보다 높았으나 성과달성도 점수는 2018년과 2019년 모두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이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보다 점수가 낮았다. 그러나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 내에서도 사업 간 성과달성도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과

지표가 사업의 목적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거나 달성 정도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전 년도 성과보다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경우는 감점이 있었다.

성과달성도에서 성과지표달성도는 비교적 사업간 큰 차이 없이 잘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자체가 사업의 목적 달성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높은 성과지표 달성도가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선정되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도를 용이하게 높이기 위해 예산 감액이나 정책적 환경의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이전 년도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이전 년도 추이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 다.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 1) 안전한 삶 영역 사업 개요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 포함된 사업 중 안전한 삶 영역은 생활 안전, 사회 안전, 아동안전 체계 구축이라는 3개의 중점 과제로 구분된다. 이들 3개 중점 과제에 포함된 사업 수는 2018년도 33개, 2019년도에는 29개로 사업 수가 4개(12.1%)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 안전 분야에서는 안전교육 일원화 및 안전 교과(단원) 신설 사업(교육부)이 2018년 종료되었고, 사회 안전 분야에서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 강화(여가부), 범죄예방환경설계(셉테드) 확산 유도(교육부),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셉테드 적용유도(법무부) 사업이 2018년 종료되었다. 반면, 2019년 시작된 안전 영역의 신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제별 사업 수를 살펴보면 사회 안전에 해당하는 사업 수가 가장 많고, 생활 안전과 아동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순이다. 생활 안전 분야에는 교육부와 복지부, 국토부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안전 분야는 복지부와 교육부 외에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식약처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복지부와 교육부 외에 안전처, 환경부, 문체부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안전한 삶 영역의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총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단위: 개)

중점 과제	사업 수	
	2018	2019
생활 안전	10	9
사회 안전	15	12
아동안전 체계 구축	8	8
계	33	29

주: 종료 사업을 제외한, 당해년도 평가 대상 사업의 수임.

안전한 삶 영역의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약 1,937억원에서 2019년 2,106억원으로 약 8.7%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 수가 4개(12.1%)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별 예산 증액 비율은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안전한 삶 영역의 중점 과제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 안전 분야의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의 약 73.6%, 2019년도 예산의 약 72.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사회 안전 분야의 사업 수가 해당 연도 사업의 각 45.5%, 41.4%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생활 안전 분야의 예산은 2018년도 1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2%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47.8%가 감소한 53억원에 불과했다. 생활 안전 분야의 사업 수에 비해 예산 비율이 적은 것은 전체 사업 중 과반 수에 해당하는 5개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며, 2018년도 생활 안전 분야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부) 사업의 예산이 2019년도에 8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안전한 삶 영역의 전체 예산 집행율은 99.3%로 모든 중점과제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활 안전 분야의 예산 집행률은 100%에 달했다.

〈표 3-20〉 안전한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단위:백만 원, %)

중점 과제	2018			2019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예산 (d)
생활 안전	10,060	10,060	100.0%	5,255
사회 안전	142,522	142,075	99.7%	152,187
아동안전 체계 구축	41,113	40,261	97.9%	53,180
계	193,695	192,396	99.3%	210,622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2) 항목별 평가 결과

기획의 적절성 항목은 이전 년도 시행 실적의 반영(10점)과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연계(10점) 두 개 지표로 구성되며, 총 배점은 20점이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 기획의 적절성 평균은 2018년 15.7점, 2019년 15.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 지표로 평가한 2017년 안전한 삶 영역의 기획의 적절성 평균이었던 17.7점에 비해 다소 하락한 수치이다. 각 중점과제의 분야별 평균 점수는 사회 안전 분야가 가장 높고, 생활 안전, 아동안전 체계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생활 안전 분야와 사회 안전 분야는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 각각 0.1점, 0.5점이 상승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나,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는 0.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안전한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20)	점수(20)
생활 안전	15.3	15.4
사회 안전	16.7	17.2
아동안전 체계 구축	15.0	14.1
전체 평균	15.7	15.6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계획의 집행도는 예산집행률(20점)과 추진계획 이행도(10점) 두 개 지표로 구성되며, 총 배점은 30점이다<sup>3)</sup>. 2019년도의 경우 아직 사업 종료 전이므로 예산집행률 산출이 불가능하여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8년도 계획의 집행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7.5점으로 동일 지표로 평가한 전년도 기획의 적절성 평균인 25.6점에 비해 약 2.1점이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진계획 이행도로 평가한 2019년도 계획의 집행도는 10점 만점의 평균 8.0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점수에서 예산집행률 평균 점수(19.3점)를 뺀 8.2점과 비교했을 때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비예산 사업의 예산집행률 점수는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입력하였음.

평가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가장 높은 생활 안전 분야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 안전 분야는 28.3점,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는 25.5점이었다. 2019년도에는 사회 안전 분야의 점수가 8.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안전 분야가 8.4점,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가 7.0점으로 나타나,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의 계획의 집행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3-22〉 안전한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30)	점수(10)
생활 안전	28.6	8.4
사회 안전	28.3	8.5
아동안전 체계 구축	25.5	7.0
전체 평균	27.5	8.0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안전한 삶 영역의 성과의 달성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의 신뢰성(10점),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4개 지표로 구성되며, 총 배점은 50점이다<sup>4)</sup>. 2019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전이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어려워 3개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8년도 안전한 삶 영역의 성과의 달성도 전체 평균은 41.4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성과의 달성도 평균인 36.4점에 비해 상승한 수치이다. 2019년도의 성과의 달성도 전체 평균은 30점 만점에 22.4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 안전 분야의 성과의 달성도가 각각 42.9점, 2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안전 체계 구축, 생활 안전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4)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의 성과달성도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입력하였음.

〈표 3-23〉 안전한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50)	점수(30)
생활 안전	40.9	20.0
사회 안전	42.9	23.7
아동안전 체계 구축	40.3	23.5
전체 평균	41.4	22.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3) 영역별 총괄 평가

2018년도 안전한 삶 영역의 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84.5점으로 전년도 평균인 79.7점에 비해 5점 가량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20점 만점에 15.7점, 계획의 집행도가 30점 만점에 27.5점, 성과달성도가 50점 만점에 41.4점으로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78.5점, 91.7점, 82.8점에 해당하는 점수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획의 적절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3-24〉 2018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100)	2018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생활 안전	84.8	15.3	28.6	40.9
사회 안전	88.0	16.7	28.3	42.9
아동안전 체계 구축	80.8	15.0	25.5	40.3
전체 평균	84.5	15.7	27.5	41.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중점 과제별로 총점은 사회 안전 분야의 총점이 8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 안전 분야가 84.8점,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가 80.8점이었다. 사회 안전 분야는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측면에서 비교적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아동안전 체계 구축은 기획의 적절성과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9년도 안전한 삶 영역의 평가는 예산집행률(20점)과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60점 만점에 평균 4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79.7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평균 15.6점, 계획의 집행도는 8.0점, 성과달성도는 22.4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 78점, 80점, 74.7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2018년도의 항목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비교해보면, 2018년도에 비해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 달성도 측면에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도 평가에서 제외된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표가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 항목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측된다.

중점 과제별로 살펴보면 사회 안전 분야의 총점이 4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아동안전 체계 구축과 생활 안전 분야의 총점은 사회 안전 분야의 총점보다 약 5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다. 생활 안전 분야는 성과달성도 항목에서, 아동안전 체계 구축 분야는 기획의 적절성과 계획의 집행도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 3-25〉 2019년도 안전한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60)	2019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생활 안전	43.8	15.4	8.4	20.0
사회 안전	49.4	17.2	8.5	23.7
아동안전 체계 구축	44.6	14.1	7.0	23.5
전체 평균	46.0	15.6	8.0	22.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개선 의견

안전한 삶 영역의 평가에서 기획의 적절성이 다른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받은 것은 해당 사업들의 시행계획에서 전년도 시행 실적에 따른 한계를 분석하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한계점을 작성하지 않거나 ‘한계점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작성한 경우가 다수 있었는데, 전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 경우라도, 전체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시행계획서에 사업목적이 따로 제시되지 않거나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어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사업목적은 여러 항목에 걸쳐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기획의 적절성 뿐 아니라 추진계획 이행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등 다수의 지표에서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계획의 집행도 항목에서 2018년도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91.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획의 집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높은 예산집행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예산집행률 지표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9.3점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반면 예산집행률을 제외하고 추진계획 이행도로만 평가한 2019년도 평가에서는 계획의 집행도 항목의 평균이 10점 만점에 8.0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서는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시행의 시기, 대상, 인원 등 추진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은 등 추진계획이 다소 미흡한 경우 감점의 요소가 되었다.

성과달성도 항목의 경우,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업목적이 추상적이거나 직접 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 지표로서 목적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지표를 선정하였을 때 적정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을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적정한 지표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감액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선정하여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예산집행도나 성과지표 달성도와 같은 사업실적은 상대적으로 잘 충족된 반면, 사업별 시행계획의 작성 수준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평가담당자는 사전에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각 사업별 시행계획이 누락되는 항목 없이 모든 항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지표의 선정이 적절치 않더라도 선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와 성과지표의 신뢰성, 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높게 이루어지는 것은 평가의 논리적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면 지나치게 낮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또는 사업특성상 달

성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성과지표로 선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성과달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 등에서는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차년도에는 사업의 성과지표를 수정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 라.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 1) 함께하는 삶 영역 사업 개요

함께하는 삶 영역은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과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등 2개의 중점 과제로 구분된다. 이들 2개 중점과제에 포함된 사업 수는 2018년 33개, 2019년 32개로 1개의 사업만이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6〉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단위: 개)

중점 과제	사업 수	
	2018	2019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2	2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31	30
계	33	32

주: 종료 사업을 제외한, 당해 년도 평가 대상 사업의 수임.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분야에서 재활치료 만족도 사업이 2018년을 기점으로 종료가 되었다. 반면 2019년 새롭게 기획되어 시작된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별 시행사업의 수는 각각 보건복지부 19개, 교육부 5개, 법무부 5개, 여성가족부 4개 등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주도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의 당초예산과 집행예산을 살펴보면, 2018년 약 8,921억 원에서 2019년 10,115억 원으로 약 13.4%증가하였다. 함께하는 삶 영역의 중점 과제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방과후 돌봄예산이 2018년 약 6,93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

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지부와 교육부 방과후 돌봄예산이 각각 3,283억 원, 3,251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함께하는 삶 영역의 전체 예산의 집행률은 99.9%로 모든 중점 과제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 100%의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7〉 함께하는 삶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단위:백만 원, %)

중점 과제	2018			2019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예산 (d)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0	0	-	0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892,133	891,166	99.9%	1,011,521
계	892,133	891,166	99.9%	1,011,521

주 1: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 아동보호무차별 원칙 실현 영역의 사업은 2개로, 2개 모두 비예산사업임

## 2) 항목별 평가 결과

성과지표 항목 중 기획의 적절성은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10점)과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과의 연계(10점) 등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20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 기획의 적절성은 2018년 17.4점, 2019년 17.0점으로 평균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 지표로 평가한 2017년 평균점수 17.9점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3-28〉 함께하는 삶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20)	점수(20)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16.0	15.0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18.8	19.0
전체 평균	17.4	17.0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계획의 집행도는 예산집행률(20점)과 추진계획 이행도(10점) 등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총 30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2019년도 평가의 경우에는 아직 사업 종료 전이므로 예산집행률 실적치 산출은 불가능하여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8년도 계획의 집행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7.4점으로 동일 지표로 평가한 전년도 평균 26.2점과 비교해 볼 때, 약 1.2점이 상승하여 다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진계획 이행도만 평가한 2019년의 계획도 10점 만점 중 평균 8.4점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점수에서 예산집행률(19.9점)을 뺀 7.5점과 비교했을 때, 0.9점 상승하여 이 역시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함께하는 삶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30)	점수(10)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27.3	8.0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27.5	8.9
전체 평균	27.4	8.4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함께하는 삶 영역의 성과의 달성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지표 선정의 적절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의 신뢰성(10점),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등 4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총 50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단, 2019년도 사업의 경우,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이므로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점수 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달성도 지표를 제외한 3개의 지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8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의 성과의 달성도는 전체 평균점수가 43.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성과의 달성도 평균점수인 34.7점에 비해 9.2점 상승하여 26.2%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달성도(20점)를 제외한 2019년도 역시 총 30점 중 평균 25.1점으로 83.7%수준의 양호한 성과의 달성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3-30〉 함께하는 삶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50)	점수(30)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45.1	25.6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42.7	24.6
전체 평균	43.9	25.1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3) 영역별 총괄 평가

2018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88.7점으로 전년도 평균인 78.7점에 비해 10점 상승하였다.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20점 만점에 17.4점, 계획의 집행도가 30점 만점에 27.4점, 성과달성도가 50점 만점에 43.9점으로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각각 87점, 91.3점, 87.8점에 해당하는 점수로 모든 영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계획의 집행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과제별로 총점은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분야의 총점이 88.4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아동·보호지원 분야가 89.0점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방과후 돌봄사업이 100점으로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표 3-31〉 2018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100)	2018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88.4	16.0	27.3	45.1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89.0	18.8	27.5	42.7
전체 평균	88.7	17.4	27.4	43.9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019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의 평가는 예산집행률(20점)과 성과지표의 달성도(20점)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성과지표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60점 만점에 평균 50.6점(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84.3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기획의 적절성이 평균 17.0점, 계획의 집행도는 8.4점, 성과달성도는 25.1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각각 85점, 84점, 83.7점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를 2018년도의 항목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비교해보면, 2018년도에 비해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 달성도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 2019년도 함께하는 삶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60)	2019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48.6	15.0	8.0	25.6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52.5	19.0	8.9	24.6
전체 평균	50.6	17.0	8.4	25.1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개선 의견

함께하는 삶 영역의 평가에서 성과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수를 받은 것은 해당 사업들이 전년도 시행 실적에 따른 한계 분석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한계점을 작성하지 않거나 ‘한계점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등으로 작성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따라서 이후에는 전년도 사업이 추진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및 진단하고, 사업진행 과정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년도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계획의 집행도 항목에서 2018년도에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91.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계획의 집행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높은 예산집행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의 집행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집행률 지표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9.3점으로 거의 모든 사업이 100%의 예산집행률을 보였다. 추진계획 이행도 지표에서는 사업시행이 연차별로 불분명하게 내용이 기술되어 있거나 시행 시기 등이 다년간에 걸쳐 있는 경우, 즉 종합실태조사 등이 3년 단위로 그 사업시행이 이뤄지는 사업은 추진계획 및 이행이 미흡하여 감점이 많이 있었다.

성과 달성도 항목의 경우,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사업의 목적 달성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선정하거나 지표의 측정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관리가능한 지표인 경우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성과 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감액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선정하여 감점의 요인이 되었다. 방과후 돌봄사업이나 아동발달 지원계좌, 보호종료 아동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등 아동청소년이 기본권 강화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시행경험이 비교적 충분하게 축적된 결과, 그 성과가 비교적 명시적이고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마.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 1)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사업 개요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의 과제는 2018년에는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5개,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14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개, 민간과의 협력 강화 1개,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5개 등 총 2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영역과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영역에서 각 1개씩의 사업이 종료되어 총 26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가정이 건강한 아동양육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관련 과제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사업 수를 보이고 있다.

〈표 3-33〉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단위: 개)

중점 과제	사업 수	
	2018	2019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5	5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14	13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1	1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5	4
계	28	26

주: 종료 사업을 제외한, 당해년도 평가 대상 사업의 수임.

실행기반 조성영역 과제 예산은 2018년 1,871,985백만원에서 2019년 2,230,126백만원으로 1.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섯 개 하위영역 중에서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영역의 예산이 2018년 1,870,726백만원, 2019년 2,228,822백만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돌봄 서비스, 모성보호 육아지원(육아휴직 급여), 어린이집 관련 사업 등 예산 규모가 큰 보육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이다. 2018년도 평균 예산 집행률은 72.7%로 낮은 편인데, 이는 실행기반 조성 영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영역(특히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사업의 육아휴직 급여예산 등)의 예산 집행률이 크게 반영되고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도 28개 사업 중에 비예산 사업은 총 10개로,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과제 중에 4개,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과제 중에 2개,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과제 중에 1개,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과제 중에 3개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표 3-3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중점 과제별 예산

(단위:백만 원, %)

중점 과제	2018			2019
	예산 (a)	집행액 (b)	집행률 (b/a*100)	예산 (d)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322	322	100.0%	352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1,870,726	1,360,188	72.7%	2,228,822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80	162	89.8%	500
민간과의 협력 강화	322	322	100.0%	352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435	387	89.0%	100
계	1,871,985	1,361,381	72.7%	2,230,126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2) 항목별 평가 결과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의 기획의 적절성은 이전 년도 시행 실적 반영도(10점)와 사업내용과 추진전략 연계(10점) 정도로 살펴본다.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 기준에 2018년에는 16.7점, 2019년에는 16.8점을 나타내어 2019년에 0.1점 상승하였다.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분야는 다소 하락한 반면,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및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분야의 기획 적절성은 소폭 상승하였다. 2018년에

는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과제가 17.6점으로 기획의 적절성이 가장 높았고,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과제는 1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과제가 17.6점으로 기획의 적절성 점수가 가장 높았고, 민간과의 협력 강화과제가 16.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표 3-35〉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기획의 적절성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20)	점수(20)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17.6	17.4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17.4	17.6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6.7	16.7
민간과의 협력 강화	16.0	16.0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15.8	16.3
전체 평균	16.7	16.8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의 계획의 집행도는 예산집행률(20점)과 추진계획 이행도(10점)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추진계획 이행도 점수만 평정한다. 계획의 집행도는 2018년에는 30점 만점에 27.5점으로 나타났고, 2019년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 모두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과제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3-36〉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계획의 집행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30)	점수(10)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28.2	8.6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28.4	8.9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26.7	8.3
민간과의 협력 강화	28.0	8.0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26.1	7.5
전체 평균	27.5	8.3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기본계획 실행기반의 성과 달성도는 성과지표 선정 적정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점), 지표 신뢰도(10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도(20점) 등으로 평가되며, 2019년에는 성과지표 달성도를 제외하고 평정한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의 성과 달성도는 2018년에는 50점 만점에 38.5점, 2019년에는 30점 만점에 21.6점을 나타냈다. 과제영역별 점수를 보면, 2018년에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가 43.9점으로 성과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과제가 35.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9년에도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가 24.2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과제는 18.0점을 보인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과제였다.

〈표 3-37〉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성과의 달성도 결과

(단위: 점)

중점과제	2018년	2019년
	점수(50)	점수(30)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35.6	19.8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43.9	24.2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5.7	18.0
민간과의 협력 강화	39.0	24.0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38.3	22.1
전체 평균	38.5	21.6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3) 영역별 총괄 평가

2018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의 종합평가 점수를 보면,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에 82.7점이었으며, 과제별로는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89.6점, 민간과의 협력 강화 83점,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81.4점,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80.2점,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79.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높은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는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등 세 가지 평가항목별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과제는 기획의 적절성은 높았으나 성과 달성도가 가장 낮아 아동권리 분야 정책과제의 성과관리 관련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38〉 2018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100)	2018		
		기획의 적절성 (20점)	계획의 집행도 (30점)	성과달성도 (50점)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81.4	17.6	28.2	35.6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89.6	17.4	28.4	43.9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79.1	16.7	26.7	35.7
민간과의 협력 강화	83.0	16.0	28.0	39.0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80.2	15.8	26.1	38.3
전체 평균	82.7	16.7	27.5	38.5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2019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의 평가점수는 60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으며, 과제별 점수 순위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가 5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과제가 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9년도 평가항목에는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도 점수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39〉 2019년도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평가 결과 요약

(단위: 점)

중점 과제	총점 (60)	2019		
		기획의 적절성 (20점)	계획의 집행도 (10점)	성과달성도 (30점)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45.8	17.4	8.6	19.8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50.7	17.6	8.9	24.2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43.0	16.7	8.3	18.0
민간과의 협력 강화	48.0	16.0	8.0	24.0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45.9	16.3	7.5	22.1
전체 평균	46.7	16.8	8.3	21.6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 4)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 및 개선 의견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실행기반 조성 영역은 아동권리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이 편안하게 양육·교육·보호될 수 있는 발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로 크게 다섯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5). 첫째, 아동권리 실행기반 조성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행동계획 수립,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아동권리 실태 정기 진단, 협약 인지도 제고, 아동친화기업 확산 유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둘째,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영역은 양육정보 제공, 이혼위기가족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일·가정 양립 제도,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등의 사업들로 실행기반 조성 영역 전체 사업 수의 절반을 차지한다. 셋째,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영역은 지역사회가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 과제를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 지자체 확산, 아동정책 기본계획 이행관리, 지역격차 해소 등의 사업이 있다. 넷째, 민간과의 협력 강화 영역은 NGO와의 협력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유도 내용을 포함한 1개의 사업만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지원 인프라 강화 영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아동영향평가, 아동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 수립, 아동분야 통계 정비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은 기본계획 상의 다른 네 개의 영역(미래준비, 건강, 안전, 함께하는 삶)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행기반 영역의 하위 다섯 개 영역 중 두 번째 영역인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 과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정책 및 보육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네 개 영역 과제들은 주로 주무부처 아동정책 지원 제도와 인프라 관련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의 양육역량 강화영역과 나머지 네 개 영역간의 사업 성격과 과제 수, 예산규모 등의 차이가 있어 다섯 개 영역 간 단순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 과제들의 경우 기획의 적절성이라 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한 사업들이 여러 개 발견된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이전 년도 실적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진전략을 개선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사업성격 상 매년 시행과제로 사업내용을 구성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사업내용 중심으로 매우 소극적인 기획을 하고 있는 경우, 몇 년간 자료만 수집 중인 경우, 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하나의 사업이 타당한 설명 없이 여러 개 과제의 사업내용과 성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부처가 수행한 성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이 발견된다. 이는 2015년 수립된 아동정책 기본계획 상의 과제들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첫 해에 충분히 컨설팅이 되어 사업내용이 구성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부재하여 당시 제한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업내용이 매년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행기반 조성 영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서 기인한 것들이 많아 이는 성과지표 선정 적정성 등 성과달성도 평가항목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2020년부터 추진될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실행기반 조성영역의 과제 구성 시 매년의 시행계획 중점과제로 핵심적 과제가 포함되도록 하고 이의 첫 해 시행계획 작성 시 충실한 사업내용이 구성되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요약

2018년과 2019년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로 보면, 총점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점수가 약간 높아졌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배점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가 2개년 모두 낮은 점수를 보였고, 성과지표 중에서는 국공립 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취학 아동 돌봄 공공성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취학 아동 돌봄 공공성 지표의 경우, 2017년에는 12세 미만 아동 중 취약계층 아동으로 대상을 한정했던 것과 달리 2018년, 2019년 평가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수치상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요보호아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지원은 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과 달리 주거지원은 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여, 대상이 같은 두 사업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3-40〉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전국 기준 (2018,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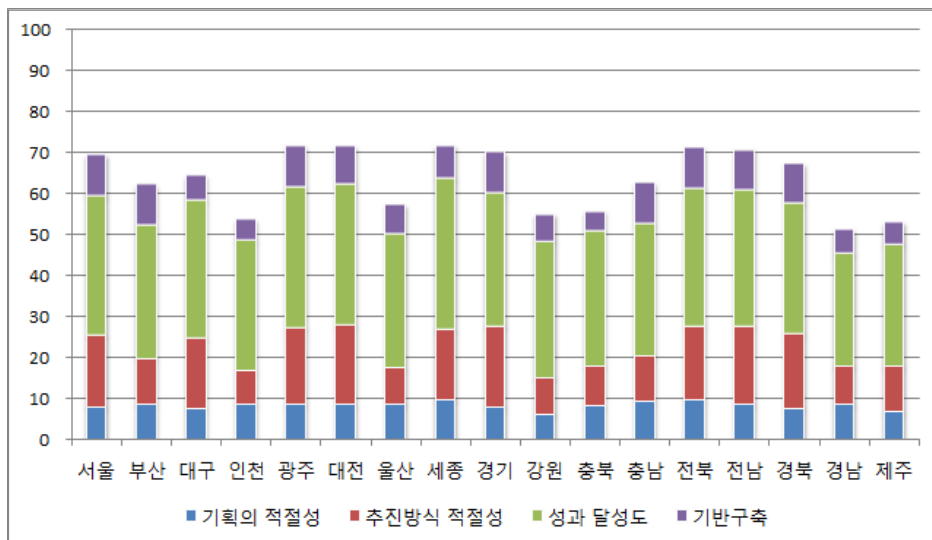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지표	2018	2019	배점
기획의 적절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수립 여부	8.5	8.7	10
추진방식의 적절성	수립절차의 적절성	5.6	5.8	10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	8.8	8.2	10
성과달성도	드림스타트 수혜율	2.8	2.9	5
	국공립유아교육보육이용률	1.7	2.0	1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9.8	9.3	10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통합주거지원 가점'19)	4.2	4.5	10
	취학 아동 돌봄 공공성 (돌봄협의체 가점'19)	1.6	2.2	10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4.2	4.3	5
	가정위탁 지원 (전문가정위탁 가점)	3.6	4.3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4.0	4.2	5
	아동친화도시 구축	3.6	4.0	5
기반구축	국가공모사업 참여	4.2	4.3	5
	총점	62.7	64.7	100

주: 총점은 지표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점수이므로 지표별 점수의 합과 상이할 수 있음.

2018년과 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시도 단위로 살펴보면, 광주, 대전, 세종, 전북 등이 점수가 높은 편이며 인천, 경남, 제주 등이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추진방식의 적절성 항목과 기반구축 항목의 시도간 점수 편차가 가시적인 수준이다.

[그림 3-1]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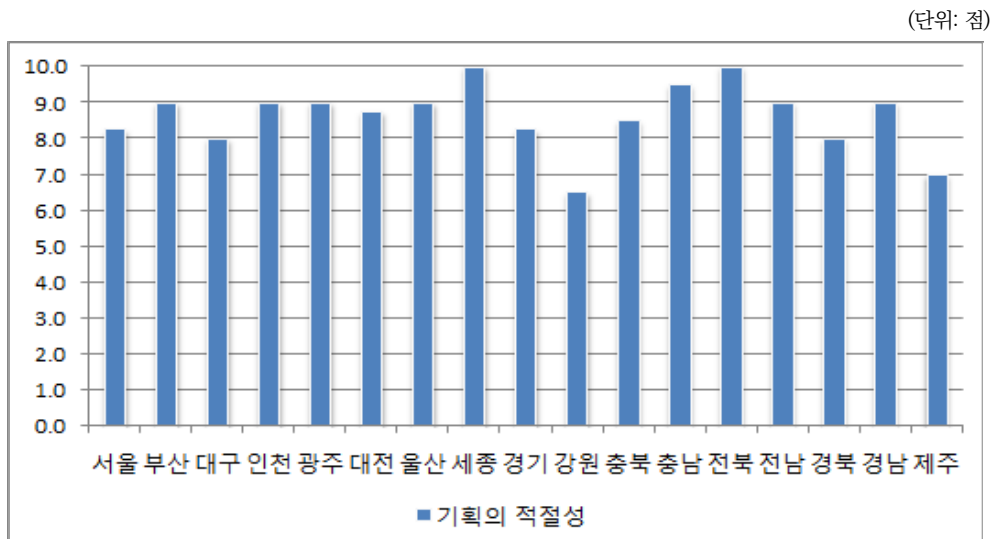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 2. 평가 항목별 분포

평가지표별로 시도별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의 적절성 항목의 2개년 평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8.6점/10.0점)으로 나타났다. 기획의 적절성 항목의 지역별 편차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크지 않은 편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지역 여건을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적용하여 시도 상황에 맞는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기획하였다.

[그림 3-2]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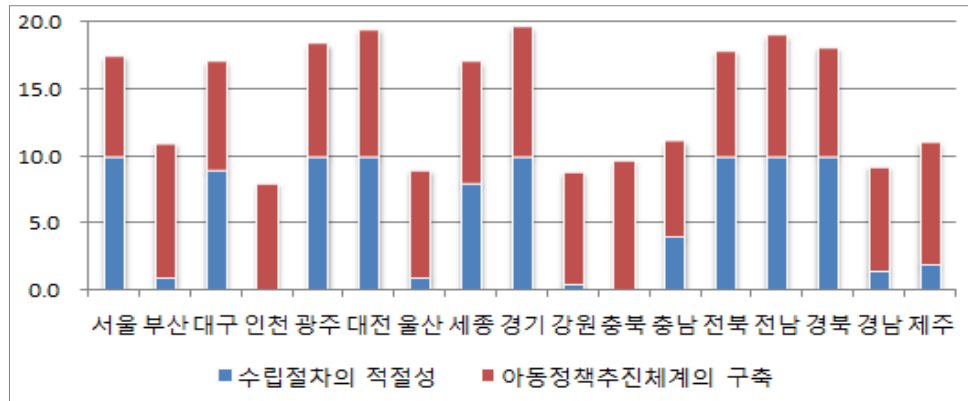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추진 방식 적절성’ 항목은 ‘수립절차의 적절성’과 ‘아동정책추진체계의 구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2개년 점수 평균의 최고점은 19.6점, 최하점은 8.0점으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편차는 주로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위한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렴했는지를 측정하는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에서 시도 간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도의 적극성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결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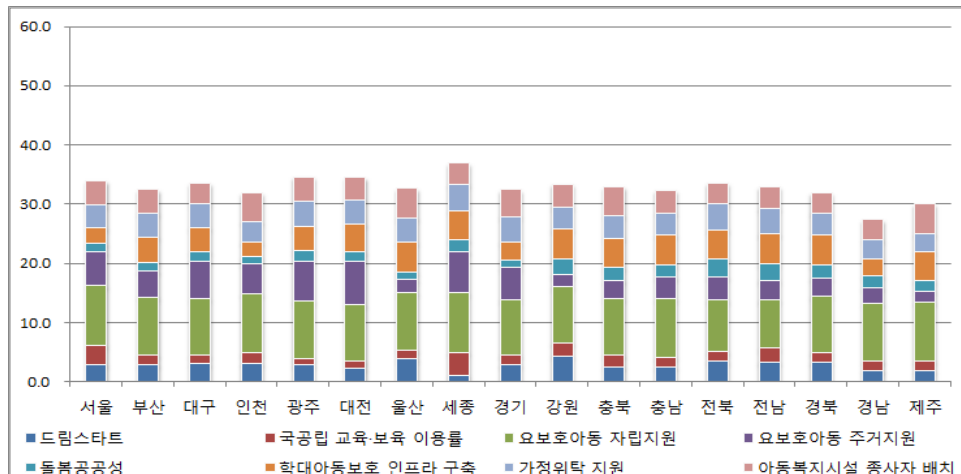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성과달성도’항목의 경우, 시의성을 고려하여 평가 지표를 추가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가점을 부여하였다. 총 8개의 정량 지표로 이루어진 성과달성도 항목의 2개년 점수 평균 최고점은 36.9점, 최하점은 27.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편은 아니나 드림스타트 수혜율, 국공립 교육·보육 이용률,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등의 지표에서 시도간 편차가 있었다.

[그림 3-4] '성과달성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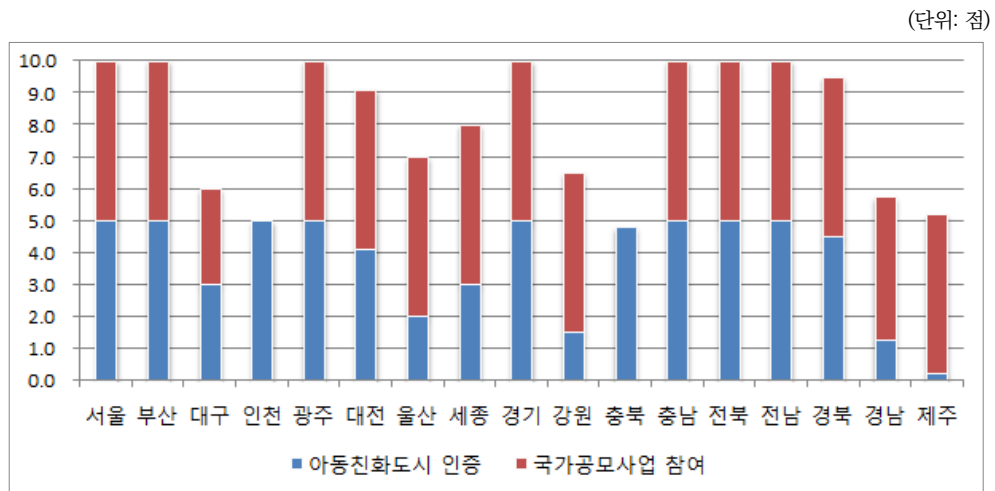
(단위: 점)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국가공모사업 참여’로 이루어진 ‘기반 구축’ 항목의 경우 2개년 점수 평균의 최고점이 10.0점, 최하점이 4.8점이었는데, 7개 시도가 10점으로 평가되어 타 항목에 비해 만점인 시도가 많은 항목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경우, 시군구 인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부산시는 시 단위로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3-5] ‘기반 구축’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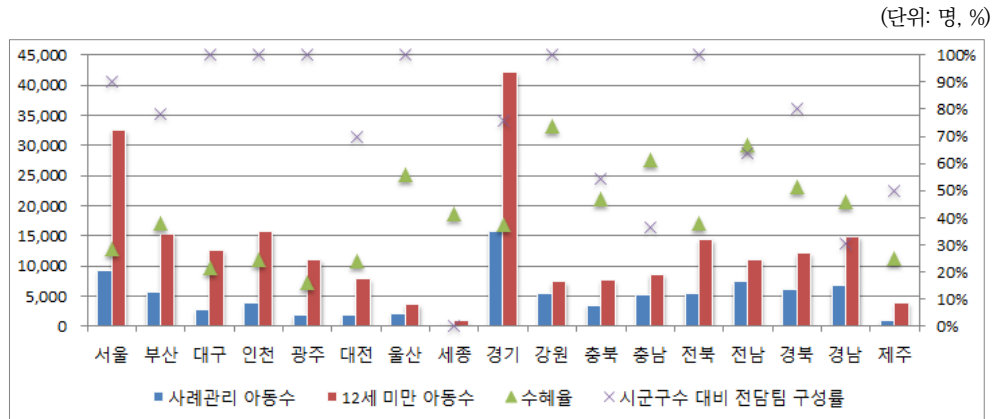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 3. 평가 지표별 분포

앞서 항목별로 개괄한 평가결과에 대해 지표별로 더욱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단일 지표로 구성된 ‘기획의 적절성’, 2개 지표로 구성된 ‘추진방식의 적절성’, ‘기반구축’ 항목에 대해서는 앞서 항목별 분석에서 세부지표에 대해 살펴본 내용으로 같음하고 본 절에서는 성과달성도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지표별 시도 평가결과를 정리하였다.

드림스타트 지표는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율과 12세 미만 아동 중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수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12세 미만 아동 전수를 드림스타트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례관리 수혜율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담팀 구성의 경우, 시군구 중 전담팀을 구성한 비율이 20~30%대인 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전담팀 구축을 특히 독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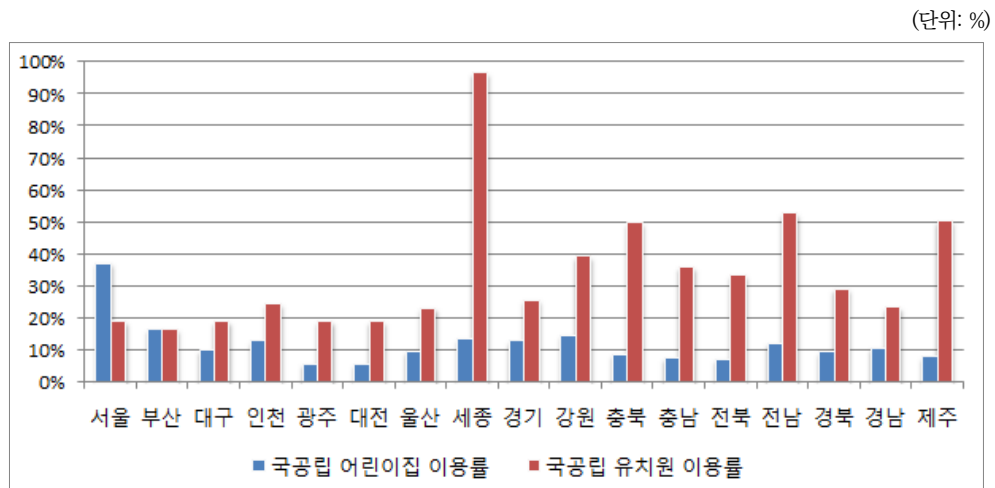
[그림 3-6]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율 및 12세 미만 아동 수혜율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의 경우 어린이집은 서울에서, 유치원은 세종에서 월등히 높은 성과를 보였다. 세종의 경우 도시 계획 단계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했기 때문에 특히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평균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12.0%, 유치원 이용률 34.0%로 높지 않은 상황이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에 비해 더욱 성과가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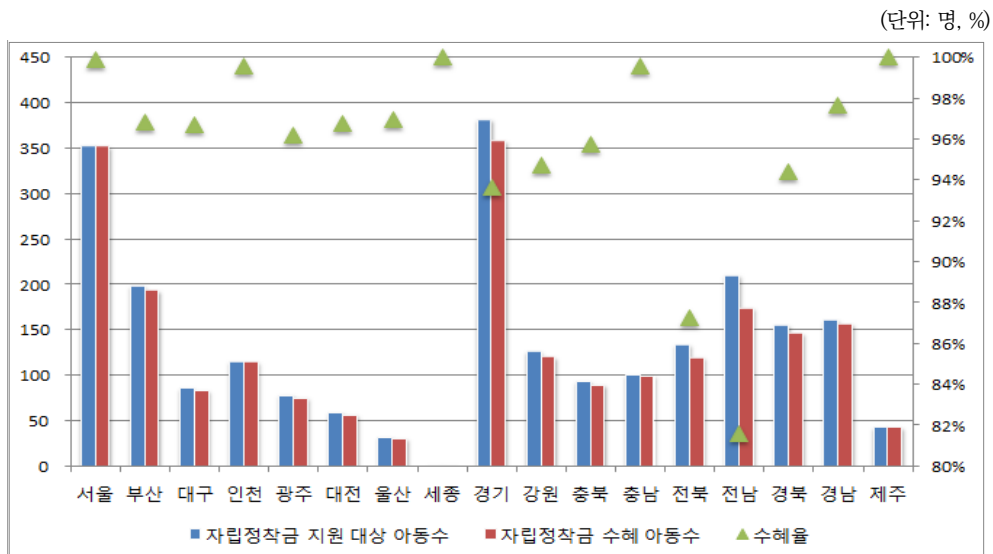
[그림 3-7]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자립정착금 수혜율)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90%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과 전남의 경우 80%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년도 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시도가 95%이상을 달성했으나, 2019년의 경우 전북과 전남의 성과가 낮았는데, 이는 2019년 평가의 기준시점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발생한 한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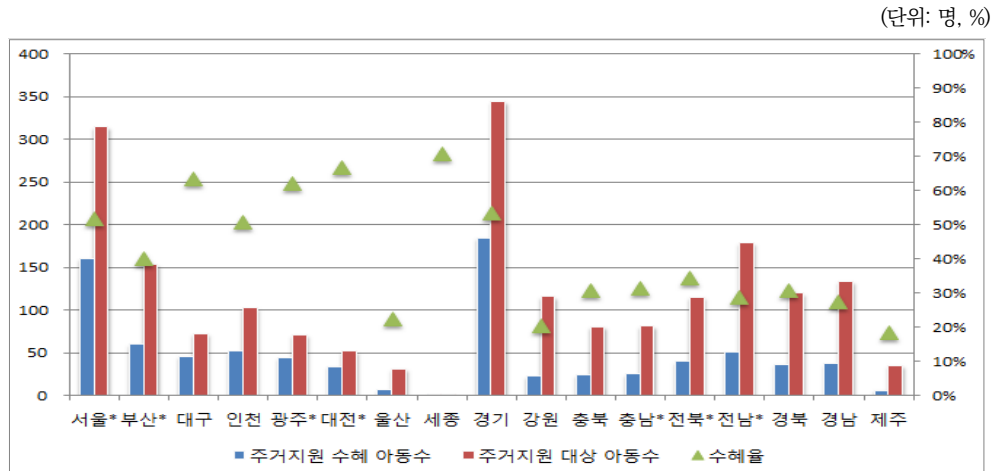
[그림 3-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요보호아동 주거지원(공공주거 수혜율)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시도단위의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고 도 단위의 수혜율이 낮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시도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는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등이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3-9]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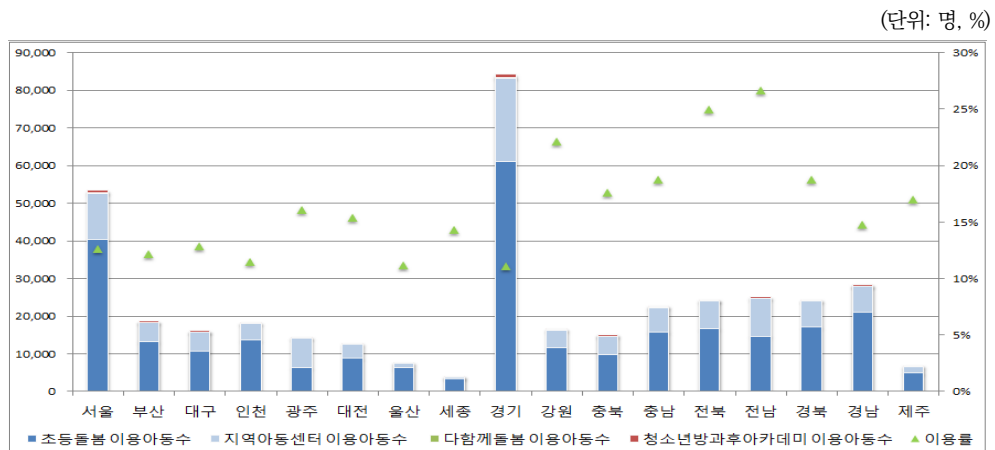


주: 1)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2) \* 2019년 통합주거지원서비스 시행 여부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초등돌봄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남과 전북의 공적 돌봄이 높은 성과를 보였고 인천, 울산 등 시도에서 일부 낮은 성과를 보였다. 2019년에는 지역돌봄 협의체에 대해 가점을 부여했는데 강원과 경남의 경우 시군구 지역돌봄협의체 구성률이 100%로 뛰어났으며 전북도 92.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0]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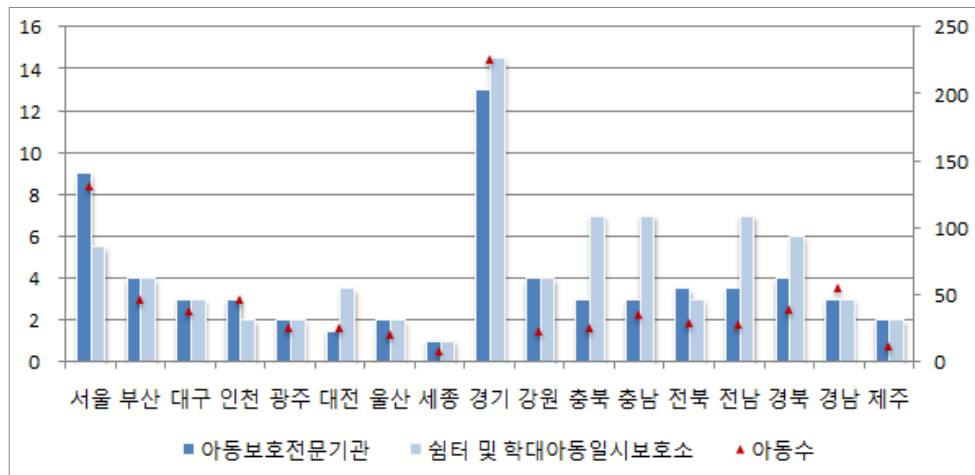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학대아동보호 인프라와 관련하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의 경우 아동 십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와 쉼터 수가 1개소 이상이었고, 대전과 충남은 아동 십만 명당 쉼터 수만 1개소 이상이였다. 특히 충남, 충북, 전남의 경우 아동 십만 명당 쉼터수가 2개소 이상으로, 1개 미만인 시도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림 3-11]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구축

(단위: 개소,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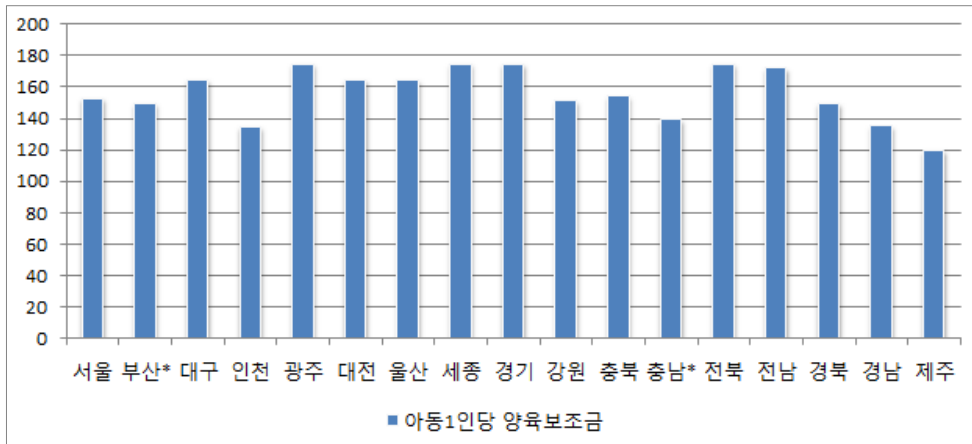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다. 2018년과 2019년 평균 아동1인당 양육보조금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 12만원, 광주, 세종, 경기, 전북 17만5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를 각 년도별로 보면, 2018년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5만원 이하로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2019년에는 전남, 광주, 세종, 경기, 전북이 20만원으로 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큰 성과가 있었다.

[그림 3-12] 가정위탁 지원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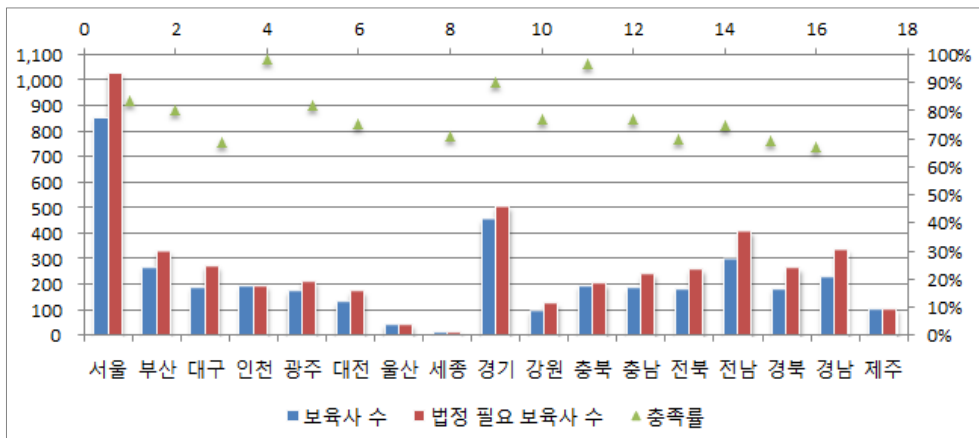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아동복지법에서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의 최소 보육사 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법정필요 보육사를 충족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울산과 제주의 경우 법정필요보육사수를 100%이상 충족하고 있었으며 인천, 경기, 충북 등이 90%이상의 높은 충족률을 보였다. 반면 경북, 경남, 대구 등은 70% 이하의 낮은 충족률을 보이는 편차가 있었다.

[그림 3-1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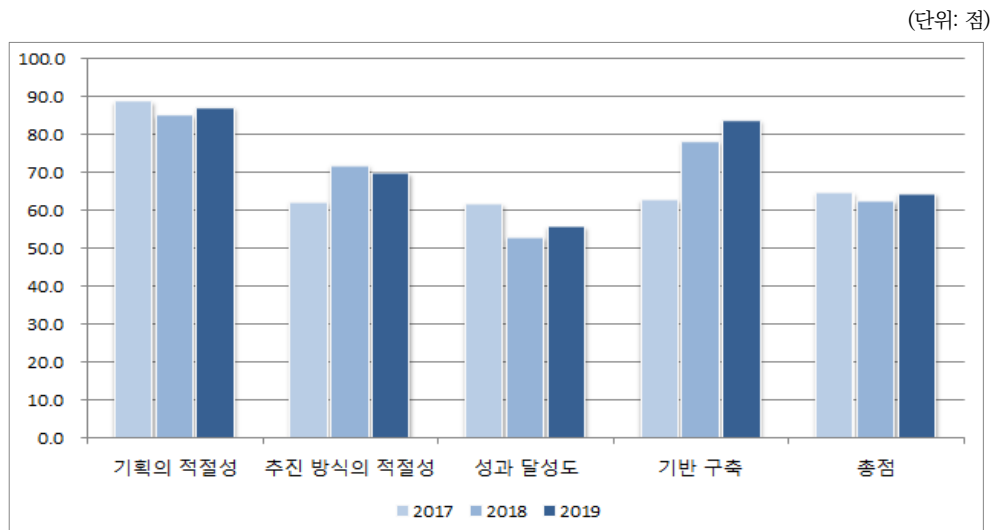


주: 2018년, 2019년 평균 기준.

#### 4. 전년도 평가 결과 비교<sup>5)</sup>

전년도 평가 결과와 2018년, 2019년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성지표인 기획의 적절성 점수는 2017년에 가장 높았고 2018년과 2019년의 큰 차이는 없었다. 매년 8점대 이상의 양호한 수준이면서 약간의 증감만이 있는 상태로, 지자체의 아동정책시행계획 기획 단계는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추진 방식의 적절성 지표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다소 높아졌고 2018년과 2019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성과달성도의 경우, 2017년과 2018·2019년 평가는 평가지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점수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2017년에 비해 2018·2019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드림스타트 수혜율, 취학아동 공공돌봄성 등의 지표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아동을 아동 전체로 확장하면서 결과 점수 절대값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기반 구축의 경우, 4개 항목 중 유일하게 2017년부터 꾸준히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항목이다.

[그림 3-14] 항목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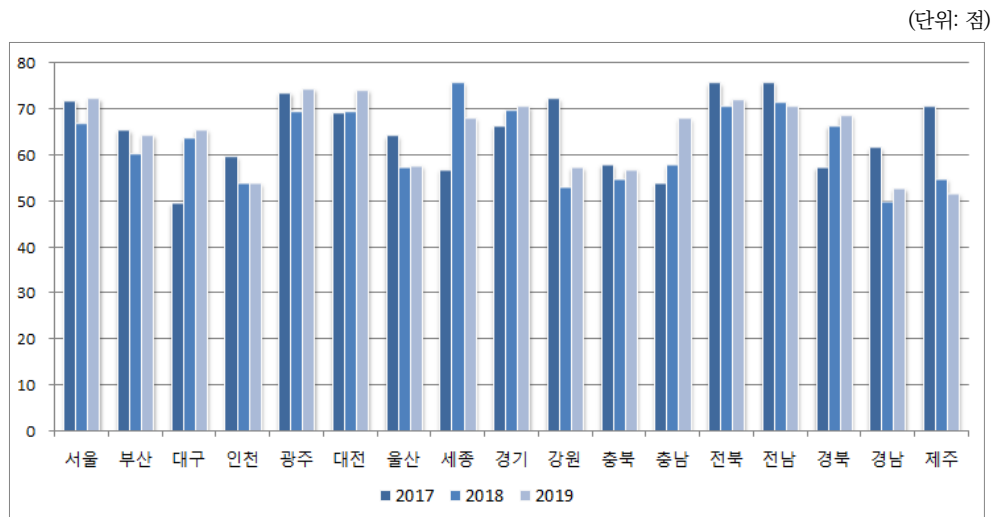


주: 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으며, 성과달성도 지표는 변동이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5) 시범평가인 2015년 평가와 항목별 배점이 다른 2016년 평가 제외

시도별 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구, 경기, 충남, 경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점수가 상승하는 추세이나, 전남, 제주의 경우 하락하는 추세이고 나머지 시도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그림 3-15] 시도별 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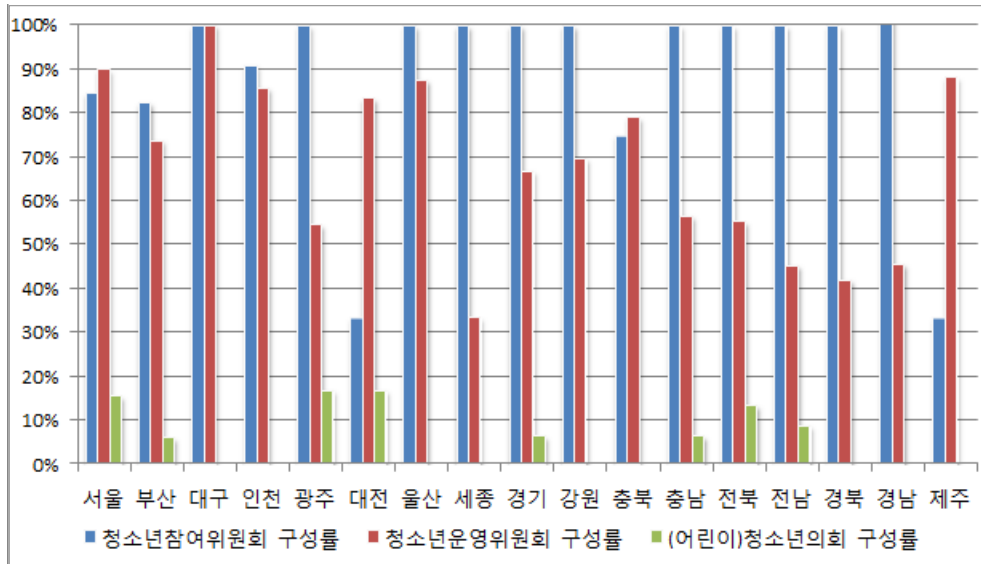
## 5. 현안 점검

현안점검은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항목으로, 평가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현재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꾸려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다.

우선 첫 번째 현안으로,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얼마나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경우, 11개 시도에서 100%를 달성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률은 9개 시도에서 아직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구성률이 시도마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3-16] 현안 1.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지역사회

(단위: %,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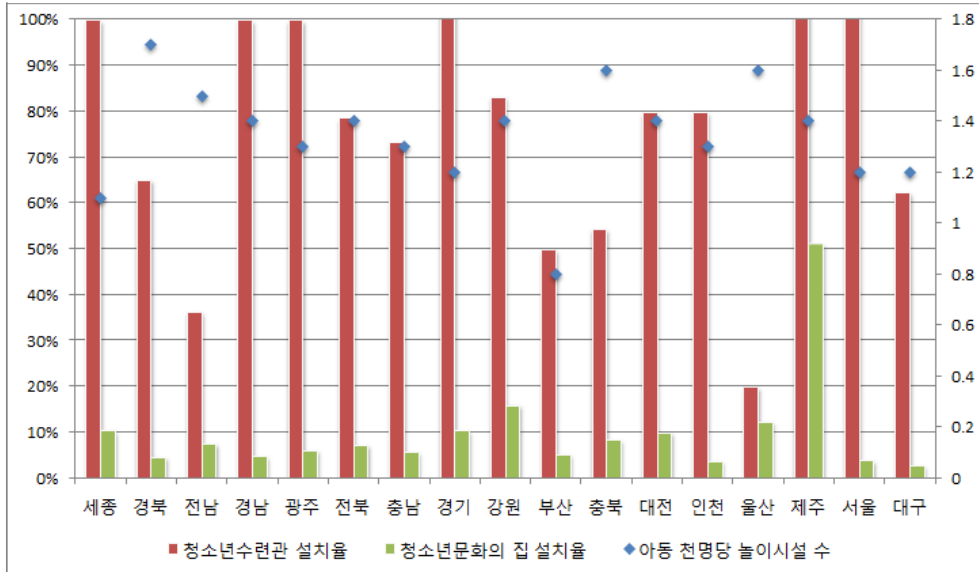
주: 청소년 참여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률은 시도 및 시군구 수 대비,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률은 청소년 수련시설 수 대비

자료: 2018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8), 각 시도 아동정책시행계획.

두 번째 현안으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시군구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세종, 경남, 광주, 경기, 제주, 서울이 100% 이상 설치한 상황이지만 울산은 20%, 전남은 36%가량으로 낮은 편이다.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청소년 수련관에 비해 설치율이 현저히 적은편으로, 제주를 제외하면 모든 시도에서 20%이하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 천 명 당 놀이시설수는 대부분 1~1.5개 정도이나 부산은 1개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3-17] 현안 2.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단위: %, 시설 수)



주: 청소년수련관 설치율은 시군구 수 대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율은 읍면동 수 대비

자료: 2018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2018),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제4장

###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제1절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 제4장

#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 제1절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 1. 중앙부처

##### 가. 평가 대상 과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5년도에 158개의 과제로 시작하여 중앙부처 시행계획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완료 및 신규 과제 수가 발생하면서 연도별로 과제 수에 증감이 발생하였고,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19년도에는 144개 과제가 시행계획의 평가 대상이었다. 평가 대상 과제 수가 가장 많았던 2016년도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 여가 권리보장 관련 사업이 각각 2, 1개 증가하여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었으나 이후 놀권리 현장 제정, 놀이정책 수립 등 비예산 사업이 완료되면서 신규 사업이 발생하지 않아 과제 수와 비율이 점차 감소하였다.

함께하는 삶 영역은 5년 동안 31~32개의 과제가 약 20% 정도의 비율로 유지되었고, 2018년, 2019년도는 22%로 가장 높은 비율의 과제를 가진 영역이었다. 그러나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하위 영역 관련 사업은 5년 동안 2개로 유지되어 중앙부처의 관심도가 낮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영역은 201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과제 수와 비율이 낮아져, 2019년도에는 26개 과제, 18%를 나타냈다. 따라서 영역 전반에 걸쳐 중앙 부처의 관심도와 중요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관련 사업은 5년 동안 과제 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 중앙부처 평가 대상 과제 수

(단위: 개, %)

5개 영역	중분류 영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 강화	12	14	14	14	1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11	9	9	8	8
	아동의 참여권 보장	4	6	6	6	6
	놀이여가 권리 보장	4	7	3	2	2
	합계(%)	31(20)	36(22)	32(20)	30(20)	28(19)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6	4	4	4	4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26	26	25	25	25
	합계(%)	32(20)	30(19)	29(18)	29(19)	29(20)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 확보	10	10	10	10	9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13	15	15	15	12
	아동안전 기반 구축	7	8	8	8	8
	합계(%)	30(19)	33(20)	33(21)	33(22)	29(20)
함께하는 삶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2	2	2	2	2
	사회적 보호자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30	29	32	31	30
	합계(%)	32(20)	31(19)	34(21)	33(22)	32(22)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9	8	6	5	5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14	16	16	14	13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3	3	3	3	3
	민간과의 협력 강화	2	1	1	1	1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5	5	5	5	4
	합계(%)	33(21)	33(20)	31(19)	28(18)	26(18)
총합(100%)		158	163	159	153	144

## 나. 예산 및 집행률<sup>6)</sup>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과제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의 2015년 총 예산은 약 3조 1000억 원, 2019년 총 예산은 약 8조 3000억 원으로 5년 동안 약 2.7배 증가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2015년 대비 2019년도 예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이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7년도 가족중심의 문화여가 활성화 사업의 예산화(약 520억), 2018년 아동수당제도 도입(약 9500억)과, 영유아보육·교육 통합 플랜 마련의 예산화(약 3600억), 2019년 아동수당제도의 확대(약 2조 9700억)가 반영된 결과이다.

6) 본 절에서의 예산은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대상 과제 관련 예산과 집행률임. 아동복지 예산 혹은 아동관련 정책 전체의 예산을 의미하지 않음.

건강한 삶 영역의 예산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고를 위한 사업의 예산(약 700억)을 대폭 확대한 2016년도, 인터넷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사업(약 130억)의 예산과 학교체육 활성화사업(약 710억) 예산을 전년도 대비 2배 확대한 2017년도에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신·출산지원 강화 사업 예산의 약 3분의 1(약 1300억) 삭감, 학교체육활성화 사업의 약 190억원 예산 삭감 등으로 2018년도 예산액이 감소하였고, 이어 2019년도까지 감소 추세이다.

안전한 삶 영역의 예산은 2015년도 기준, 전체 예산의 3.9%에 불과하였으며, 향후 4년 동안에도 5개 영역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액을 나타내어 타 영역에 비해 아동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2016년도,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사업에 전년도의 80배 이상인 약 400억여원의 예산 배정으로 본 영역의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서는 매해 예산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밖에 ‘급식 관리’ 사업이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중앙부처 영역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5대 영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률	예산액
미래를 준비하는 삶	491,306	97.5	673,482	101.7	739,138	98.6	2,026,101	98.3	4,156,935
건강한 삶	705,343	97.2	907,306	97.6	909,279	99.7	786,833	99.9	775,122
안전한 삶	123,757	78.3	182,211	101.1	186,351	99.5	193,695	99.3	210,622
함께하는 삶	676,966	97.6	784,079	88.5	834,750	99.9	892,133	99.9	1,011,521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1,166,200	96.2	1,327,859	89.7	1,523,954	79.9	1,871,985	72.7	2,230,126
계	3,163,572	96.2	3,874,937	93.9	4,191,544	92.3	5,770,747	90.5	8,384,326

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과 집행률이며, 아동복지 예산 혹은 아동관련 정책 전체의 예산을 의미하지 않음.

함께하는 삶 영역의 예산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소년원 아동에 대한 걱정 처우 제공,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와 같은 사업의 예산이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년을 기점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사업이 도입되어 2019년까지 예산이 확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영역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예산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본 영역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 정착 사업은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도 현재 약 1조 4552억여원을 나타냈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꾸준히 증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영유아의 돌봄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강화 영역의 예산이 해당 영역의 약 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여가 권리 보장 영역의 사업 수가 적고, 예산도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의 참여권 보장 영역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예산액도 타 영역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기 역량강화 영역은 2018년 이후의 아동수당지급,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플랜 마련 사업의 예산이 신규 도입되면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영역의 예산은 2017년까지 증가, 최근 2년 동안은 감소 추세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년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내실화 사업의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참여권 보장 영역은 2019년 기준, 6개 사업 중, 3개가 비예산 사업이며, 아동의견 상시 수렴 창구 운영 관련 사업(2개)은 2017년도에 전년 대비 약 4억여원 감소, 2019년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놀이·여가 권리 보장 영역은 2015년도 기준 모든 사업이 비예산이었으나 2016년도에 문화여가행복지수 및 문화향실실태조사에 아동기를 포함하는 사업(6천만원), 2017년도에 가족중심의 문화여가 활성화 방안 마련 사업에 520억여원이 편성되면서, 2019년도 기준 690억여원으로 증가되었다.

## 2)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영역은 2017년에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 후 2018년도에 감소하였다. 이는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영역의 예산이 해당 영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도 이후 감소 추세이다. 영유아 검강검진을 제고 사업의 예산이 697억여원에서 2017년도에 1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임신·출산지원 강화 사업의 예산이 2017년 2170억여원에서 2018년 864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였다. 반면, 인터넷 등 중독의 조기발견·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산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약 2배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 3) 함께하는 삶

본 영역에서는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2015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반면, 생활공간 안전 확보와 아동안전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의 예산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9년 기준 생활공간 안전 확보 영역의 11개 사업 중 5개는 비예산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는 비예산 사업이었던 ‘보행안전 교육. 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업에 약 7억의 사업비를 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활공간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영역에서는 2016년도에 아동 학대 예방 종합대책 이행관리 및 인프라 확충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이 400억여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에는 약 580억원 이상이 배정되었다. 이 밖에 전년도 비예산 사업이었던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사업(약 11억)과 안전한 유아 보육 환경 조성 사업(9억)의 예산이 각각 2017년도, 2018년도 편성되었었다. 아동안전 기반 구축 영역에서는 안전교육강화(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사업만 5년동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용품 함유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 등 관리 강화 사업은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다른 예산 사업의 경우 년도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 4) 안전한 삶

아동 보호 원칙 실현 영역 사업은 2개로 모두 비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의 도입과 예산 배정이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 시행 관련 사업의 예산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장애당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추진,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 등의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식제고 혹은 조사 사업을 제외한, 재활치료 만족도 제고, 장애영유아 돌봄 강화, 근로 아동 등과 관련된 사업이 비예산 사업으로 남아 있다.

#### 5)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관련 사업의 예산은 5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다른 하위 영역관련 사업은 비예산이 다수이다.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관련 사업 9개 중, 2019년도 기준 1개 사업(협약의 인지도 제고 방안 마련)만이 예산사업이며, 본 사업도 2016년 약 6.7억원에서 2019년 3.5억원 수준으로 예산이 감소하였다.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관련 사업 중, 양육정보 통합제공, 육아서비스 종합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아동기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 정착,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같은 영유아 양육 및 돌봄 관련 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비예산 사업으로만 구성된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영역 중, 2016년도에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영역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와 관련해서는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업수와 예산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아동권리,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와 관련한 실행 기반 조성 관련 사업 개발과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표 4-3〉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5개 영역	중분류 영역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 강화	250,561	288,045	288,291	1,608,784	3,732,505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233,334	374,622	388,025	360,014	353,144
	아동의 참여권 보장	1,993	2,272	2,200	2,200	2,271
	놀이·여가 권리 보장	비예산	600	52,336	55,103	69,015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32,232	35,062	71,932	53,429	56,037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673,111	872,244	837,347	733,404	719,085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 확보	3,410	3,146	3,262	10,060	5,255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71,885	122,392	133,231	142,522	152,187
	아동안전 기반 구축	49,062	56,655	49,858	41,113	53,180
함께하는 삶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676,966	784,079	834,750	892,133	1,011,521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614	871	322	322	352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1,165,092	1,326,122	1,523,879	1,870,726	2,228,822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비예산	200	154	180	500
	민간과의 협력 강화	비예산	666	322	322	352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435	100

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대상 과제에 해당하는 예산과 집행률이며, 아동복지 예산 혹은 아동관련 정책 전체의 예산을 의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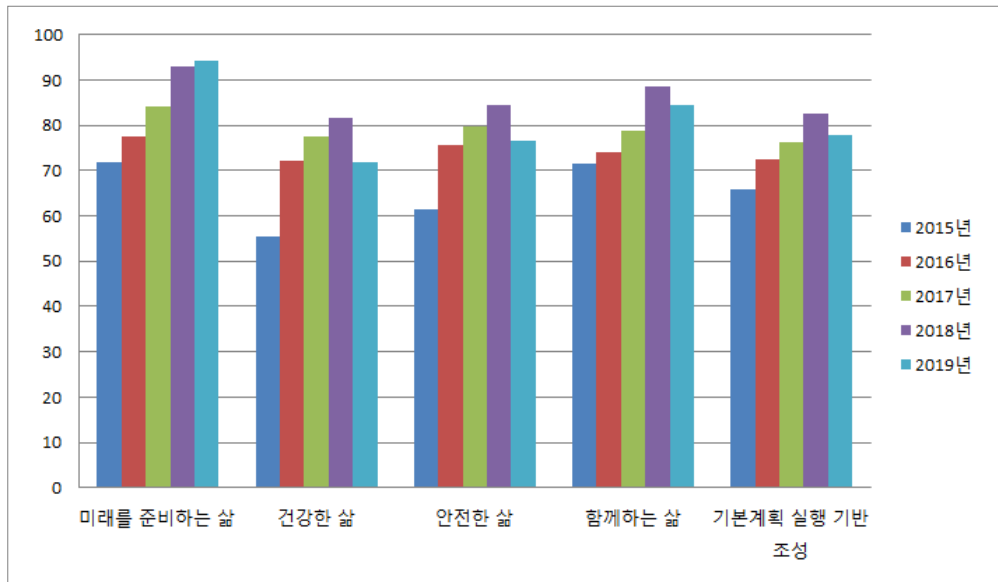
## 다. 2015~2019 시행계획 평가 결과

아동정책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는 2015년도 시범 평가 이후 2018년도까지 종합 점수는 물론, 각 영역의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그 집행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량지표 중심의 성과달성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매년 지표의 변화가 있어 점수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고, 특히, 2019년도 예산집행률(20점)과 성과 목표치 달성 정도(20점)의 제외로 인해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5년 동안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점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2015년, 2018년, 2019년도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영역으로 건강한 삶 영역의 점수는 매해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 타 영역에 비해 시행계획 및 성과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2015년도에는 안전한 삶 영역의 평가 결과가 해당 년도 평균 점수 보다 낮았으며, 2016년과 2017년도에는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의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그림 4-1〕 중앙부처 영역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주: 2019년도 결과는 60점 만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임

〈표 4-4〉 영역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단위: 점)

5대 영역	영역별 정책 방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미래를 준비하는 삶	누리과정 내실화,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아동이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71.8	77.6	84.1	93.0	56.5
건강한 삶	정신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생활습관(비만) 관리, 아동 예방접종률 향상 등 아동 건강관리 체계 마련	55.6	72.1	77.5	81.6	43.2
안전한 삶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아동기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	61.6	75.6	79.7	84.5	46.0
함께하는 삶	방과후돌봄 체계 정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빈곤, 장애, 다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 대책 마련	71.7	74.1	78.7	88.7	50.6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등 아동 권리 실현 기반 마련	66.0	72.4	76.4	82.7	46.7
전체 평균		65.3	74.4	79.4	86.1	48.6/60

주: 2019년도 결과는 60점 만점.

2015년~2019년 시행계획 영역별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영역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여가 권리 보장 영역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한 삶 영역의 2개 중분류 영역 가운데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영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점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매해 평균 미만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는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영역의 점수가 5년 동안 가장 높은 반면, 아동안전 기반 구축 영역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 미만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이 2015년도에 ‘우수’로 평가 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도에 평균 미만의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그 성과가 과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8년도 점수가 상승하였지만, 2019년도에는 다시 평균 정도로 내려갔다.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은 2015년도 ‘보통’, 2016년도 평균 수준에서 이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의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영역은 2015년도에 ‘우수’로 평가 되었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미만으로 점수가 계속해서 평균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영역 모두 2015년도는 ‘미흡’,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이 영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중앙부처 영역별 중분류 평가 결과

(단위: 점)

5개 영역	중분류 영역	2015	2016	2017	2018	2019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기 역량 강화	보통	77.9	83.2	94.3	56.7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우수	85.4	91.5	98.6	58.6
	아동의 참여권 보장	우수	72.9	76.8	89.9	57.0
	놀이·여가 권리 보장	보통	71.9	81.3	89.2	53.5
건강한 삶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보통	75.9	79.9	82.1	42.3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미흡	71.9	77.1	81.1	44.1
안전한 삶	생활공간 안전 확보	보통	75.1	76.6	84.8	43.8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계 구축	보통	78.2	82.8	88.0	49.4
	아동안전 기반 구축	미흡	71.3	77.9	80.8	44.6
함께하는 삶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우수	64.5	71.0	88.4	48.6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보통	74.8	79.2	89.0	52.5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우수	72.4	65.8	81.4	45.8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우수	74.4	82.3	89.6	50.7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보통	77.6	81.2	79.1	43.0
	민간과의 협력 강화	미흡	60.0	74.0	83.0	48.0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미흡	65.4	68.2	80.2	45.9
전체 평균		65.3	74.4	79.4	86.1	48.6/60

주: 2015년도, 우수=72점 이상, 보통=58.4점 이상 72점 미만, 미흡=58.4점 미만

## 2. 지방자치단체

### 가. 예산

1차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총 예산은 대체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대구 지역의 경우 2016년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는 2019년도 기준 아동 1인당 예산액이 가장 작은 지자체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2019년 기준, 예산의 규모가 가장 적은 세종시와 서울시의 경우 약 21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수를 고려하더라도 2019년 기준, 예산액이 가장 적은 대구와 가장 큰 울산의 예산은 5.5배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역별로 예산이 감소한 지자체를 살펴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1개 지역(전남),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3개 지역(부산, 울산, 경남), 안전한 삶 영역에서는 5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한 삶 영역은 전국 총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경북과 경남, 2개 지역 그리고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영역에서는 서울, 강원, 전북, 경남의 4개 지역에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6〉 지자체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시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아동1인당
서울	699,885	759,124	2,866,977	3,291,706	2.54
부산	547,028	545,857	750,176	862,648	1.87
대구	831,320	1,010,291	176,291	286,745	0.77
인천	288,475	357,553	415,526	633,129	1.36
광주	338,683	342,989	37,791	476,773	1.88
대전	49,533	50,327	392,329	493,277	2.03
울산	644,718	756,227	772,016	830,787	4.24
세종	72,926	111,998	117,701	155,573	1.99
경기	3,007,523	3,045,366	1,413,175	1,928,916	0.86
강원	323,487	330,291	384,757	470,808	2.14
충북	567,529	527,294	617,577	713,349	2.87
충남	315,059	350,429	207,984	361,925	1.05
전북	678,583	600,642	667,294	746,998	2.68
전남	340,118	359,151	399,998	466,563	1.70
경북	536,787	550,194	569,218	689,362	1.80
경남	1,031,302	1,012,788	1,058,163	1,210,792	2.21
제주	289,764	295,958	359,720	421,517	3.55
전국	10,562,720	11,006,479	11,206,693	14,040,868	1.75

주: 1)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해당 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기초한 내용임.

2) 2015년도의 시범 평가는 국비보조사업만 포함하여 제외함.

## 나. 2015~2019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의 평균 점수가 73점으로 가장 높았고, 2016년 59.5점, 2017년 64.8점, 2018년 62.7점, 2019년 64.7점으로 분석되었다.

지표별 상대적 비교를 위해 원점수를 100점으로 환산 하였을 때, 기획의 적절성 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점수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2018년에 하락하였

다가 2019년에 다시 다소 상승하였다. 추진방식을 적절성 부분에서는 2016년도의 점수가 낮아졌지만, 2017년도에 72.5점으로 향상되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달성도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의 점수보다 2017년도에 향상되었으나 2018년에 다시 하락하고 2019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2015년도 시범 평가에서는 ‘기획의 적절성’ 비중이 높았고, 이후 정량 지표 중심의 성과달성도 영역의 지표와 배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지표의 변화가 있어 연도별 점수의 절대적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다.

〈표 4-7〉 지표별 평가 결과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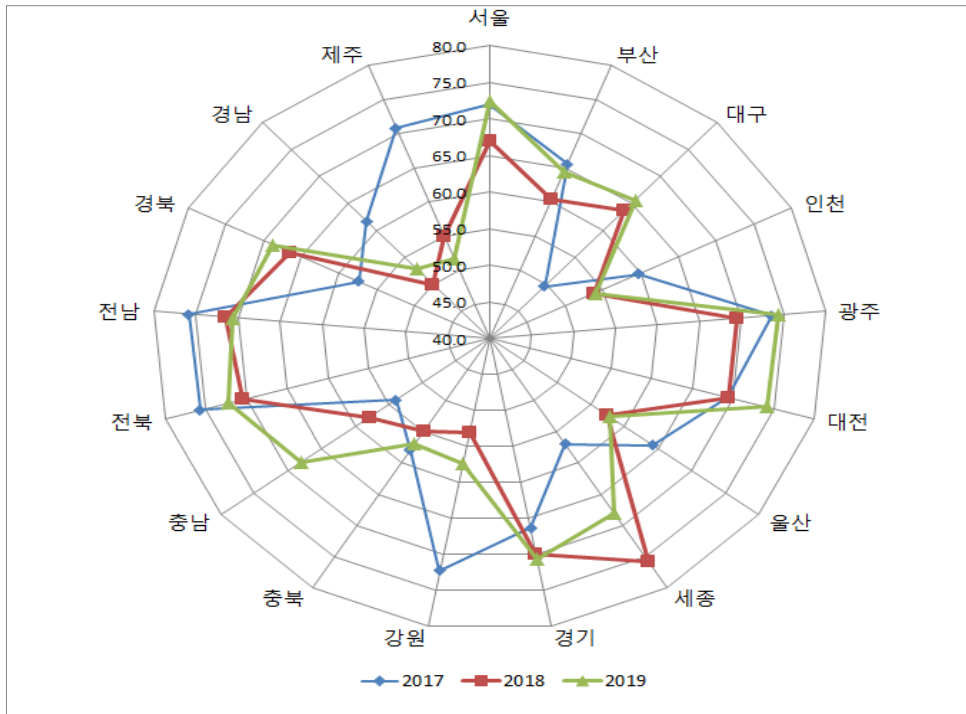
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기획의 적절성	51.6/70 (73.7)	23/30 (76.7)	8.9/10 (89)	8.5/10 (85)	8.7/10 (87)
추진방식의 적절성	21.4/30 (71.3)	10.4/20 (52)	12.5/20 (72.5)	14.4/20 (72)	14.0/20 (70)
성과달성도	-	26.1/50 (52.2)	37.1/60 (61.8)	31.9/60 (53.2)	33.7/60 (56.2)
기반구축	-	-	6.3/10 (63)	7.8/10 (78)	8.3/10 (83)
총점	73	59.5	64.8	62.7	64.7

주: ( ),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

지표 배점 변경에 의한 한계를 반영하여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 2017년~2019년 총점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은 계속해서 점수가 상승하고 있고 전남, 제주는 점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결과 점수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2017~2019)

(단위: 점)



〈표 4-8〉 지방자치단체 평가 등급 결과

년도	최우수	우수	보통
2015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세종, 대구, 강원, 충남, 경북, 경남
2016	서울, 경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	광주, 전북	서울, 울산, 전남, 경기, 경북	부산, 세종, 대구,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2018	세종, 전남	광주, 대전, 전북, 경기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경북, 충남, 제주, 충북, 강원, 경남
2019	광주, 전북	대전, 서울, 경기, 전남	세종,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경북, 충남, 강원, 충북, 경남, 제주

주: 2015년도의 시범 평가는 우수와 보통으로만 등급 분류.

##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 1.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따른 달성도는 <표 4-9>와 같다. 1차 기본계획의 총괄영역 성과지표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에 대해 2019년 현재 모두 목표치가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삶의 만족도는 목표치인 77%를 초과하는 81.8%를 달성하였으며, 행복지수 역시 목표치, 85점보다 약 10점 더 높은 94.65점을 달성하였다.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은 90.82%로 목표치, 9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공동체 의식은 성과치를 달성하였으나, 아동결핍수준은 목표치, 32%에 약간 못 미치는 31.5%를 나타냈다. 건강한 삶 영역의 영유아검진율과 15-19세 아동·청소년 자살률 지표는 2013년도에 비해 향상된 각각 72.13%, 7.2명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유아건강검진율은 목표치인 90%를 달성하지 못했고, 아동·청소년 자살률 또한 목표치인 6.8명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영역에서 신체활동 실천율은 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증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을 대체한 지표이다. 2013년도에 비해 약 2% 향상되었지만, 지표의 변화로 목표치 확인 불가하여 목표 달성도는 확인할 수 없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는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안전사고 사망자 수 대체, 목표치 확인 불가)와 재학대 판정률은 과거 보다 향상된 지표를 나타냈으며, 그 중에서도 재학대 판정률은 9.7%로 목표치인 10% 미만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범죄 피해자수(목표치 확인 불가)와 관련, 성폭력은 줄어들었지만 상해폭행 건수는 2013년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삶 영역의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는 향상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소년법 재범률, 목표치 확인불가)은 46.72%로 과거에 비해 4%이상 증가되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5개 영역	성과지표	현재 (‘13)	목표치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총괄	삶의 만족도	60.3%	77%	81.8%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 영역)	74.0점	85점	94.65점 (‘17)	복지부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UN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률	-	90% (‘17)	90.82% (‘17)	복지부	내부자료
미래를 준비하는 삶	아동결핍수준 (정기적 여가활동 결핍)	54.8% (52.8%)	32% (40%)	31.5% (0-8 27.7%, 9-17 24.7%) (‘18)	복지부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공동체 의식	2.12점	2.75점	2.97점 (‘18)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건강한 삶	영유아건강검진율	63.7%	90%	72.13% (‘17)	복지부	건강검진통계
	신체활동 실천율 (주3일 이상 운동) * ‘중등도 이상 신 체활동 실천율’ 의 대체지표	35.9%	-	37.8% (‘18)	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5-19세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7.9명	6.8명	7.2명 (‘17)	복지부	사망원인통계
안전한 삶	0-14세 안전사고 사망자수 (아동10만명당)	3.1명 (15)	-	2.9명 (‘17)	안전처	사망원인통계*
	아동범죄 피해자수 (15세 이하)	3,100건 (성폭력) 3,473건 (상해폭행)	-	2,556건 (성폭력) 3,728건 (상해폭행) (‘17)	경찰청	경찰청 범죄 통계*
	재학대 판정률	14.4%	10%	9.7% (‘17)	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함께하는 삶	빈곤아동 삶의 만 족도	4.61점	5.4점	5.16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 * 소년법 재범률의 대체지표	42.35%	-	46.72% (‘17)	경찰청	경찰청범죄통계*

주: \*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중, 지표 오류 또는 지표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2019년 수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체지표를 설정하였음. \*\*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 중, 출처나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았으며 이러한 경우 1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치는 사용 불가함. \*\*\*2018년도 빈곤아동 삶의 만족도는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을 기준으로 함.



## 2. 영역별 목표 달성도

### 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

성과확인이 불가한 비속어 사용률을 제외하고, 학교생활 만족도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2013년도에 비해 향상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는 4.03점으로 목표치, 4.0점을 초과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다. 한편,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는 목표치인 5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6%로, 오히려 2013년도에 비해 1% 감소하여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0〉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영역	성과지표	현재('13)	목표치('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미래를 준비하는 삶	비속어 사용률	25.5%	20%	-	문체부	아동종합실태조사**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19.6%	50%	18.6%('18)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3.09/5점	-	7.32/10점('18)	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3.70점	4.0점	4.03('18)	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주: \*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 2019년 8월 현재 지표 확인 불가, 대체 지표 없음.

### 나. 건강한 삶

건강한 삶 영역의 세부 성과 지표 관련, 시력이상 유병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과거보다 나빠진 것이 확인되었다. 시력이상 유병률은 과거보다 감소하여 목표치, 54%보다 낮은 53.7%로 목표를 달성하였고, 12-18세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과거 보다 1% 감소하였다. 한편, 비만율은 오히려 과거보다 약 4% 증가하였고, 3-9세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은 3년 전에 비해 8%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모유수유율은 약 20% 감소하였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5% 안팎으로 증가하였으며, 아침식사 결식을 또한 초·중·고 전학년(학년이 높을수

록 증가율이 높음)에서 증가하여 본 영역의 대부분 지표에서 과거보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1〉 건강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영역	성과지표	현재 (‘13)	목표치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건강한 삶	비만율	21.2%	20%	25% (‘18)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시력이상 유병률	55.1%	54%	53.7% (‘18)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토피 유병률	23.6%	-	24.6% (‘18)	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스트레스 인지율 (12-18세)	41.4%	-	40.4% (‘18)	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 (인터넷,스마트폰 통합)	3-9세 12.4% 10-19세 31.6% (‘15)	-	3-9세 20.7% 10-19세 29.3% (‘18)	과기부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모유수유율	50%	60%	30.5% (‘18)	복지부	가족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초 61.4% 중 72.1% 고 74.3%	초 60% 중 69% 고 70%	초 66.0% 중 77.7% 고 80.5% (‘18)	복지부	학교건강검사통계보고
	아침식사 결식률	초 4.2% 중 12.0% 고 14.5%	초 4% 중 10% 고 12%	초 6.1% 중 16.2% 고 19.7% (‘18)	복지부	학생건강검사통계보고

주: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 다. 안전한 삶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은 2배 약 증가한 60.1%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은 범죄와 교통사고 영역 모두 과거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여 각각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체벌 경험률 관련, 교사로 부터의 체벌 경험률은 약 50% 정도 감소한 12.2%를 나타냈지만, 부모로 부터의 체벌 경험률은 0.3% 증가한 26%를 나타냈다. 가정내 사고 발생 건수는 과거에 비해 만 여건 이상 증가하였고, 보행사고 사상자수는 2천명 이상 증가하여 2013년도에 비해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또한 2.4%로 나타나 과거의 1.3%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가 1%이상 더 많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안전한 삶 영역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영역	성과지표	현재 (‘13)	목표치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안전한 삶	가정내 사고 발생 건수 (15세미만)	16,564건	15,000건	17,605건 (‘17)	복지부	어린이안전사고 사례분석보고서
	보행사고 사상자수 (13세 미만)	5,023명	4,300명	7,412명 (‘18)	국토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고속도로 유아 카시트 착용률	33.60%	60%	60.1 (‘18)	국토부 경찰청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아동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률	범죄 61.3% 교통사고 56.4%	범죄 67% 교통 62%	범죄 77.8% 교통사고 71.5% (‘18)	경찰청 국토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1.3%	1.0%	2.4% (‘18 2차)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체벌 경험률	부모 25.7% 교사 23.7%	-	부모 26% 교사 12.2% (‘18)	여가부 교육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 라. 함께하는 삶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모두 과거 보다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은 과거보다 3%이상 향상된 96%를 나타냈고,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또한 71.2점으로 과거보다 약 3점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홀로아동 비율은 6~8세, 9~11세 집단 각각 1.1%, 2.8% 감소하였다. 퇴소아동 자립률 또한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퇴소아동 자립률은 목표치인 83%에 미치지 못하는 80.4%로 파악되었다. 초중고학업중단을 지표는 중학생만 0.1% 감소, 초등학교는 과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0.1% 증가하여 과거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3〉 함께하는 삶 영역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영역	성과지표	현재 (‘13)	목표치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함께하 는 삶	장애아동에 대한 수용성	92.6%	-	96% (‘18)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퇴소아동 자립률	76.5%	83%	80.4% (‘17)	복지부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나홀로아동 비율	6~8세 4.6% 9~11세 8.4%	-	6~8세 3.5% 9~11세 5.6%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초중고학업중단율 (유학, 이민 제외)	초 0.3% 중 0.6% 고 1.2%	0.4%	초 0.3% 중 0.5% 고 1.3% (‘17)	교육부	교육통계조사 (간추린 교육통계)
	청소년 다문화수용성 지수	67.6 (‘15)	-	71.2 (‘18)	여가부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주: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 마.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와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모두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지표 모두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권리협약 인지도의 목표치는 50%로 수립되었으나, 아동과 양육자 각각 11%와 15.5%를 나타냈다. 아동권리보장 인식도의 경우에도 목표치는 90%로 수립되었으나 가정과 지역사회를 제외한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등에서는 목표치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는 9~12세, 13~24세 집단 모두 과거(2011년)에 비해 각각 4.8%, 7.3%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2013년도에 비해 그 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목표 달성도

(단위: 점, %)

영역	성과지표	현재 ( '13)	목표치 ( '19)	성과치	주관부처	자료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아동 5.0% 양육자 7.9%	50%	아동 11% 양육자 15.5% ( '18)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가정 92.9% 학교 84.1% 지역 86.3% 전체 70.8% 사이버공간 74.5%	90%	가정 95.2% 학교 89% 지역 90.6% 전체 77.9% 사이버공간 78.4% ( '18)	복지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가정생활 만족도	9-12세 91.7% 13-24세 88.6% ( '11)	-	9-12세 96.5% 13-18세 95.9% ( '17)	여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통계)
	양육 스트레스	12.0/25점	-	27.59/55점 ( '18)	여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주: \* 2019년 8월 현재 동일 지표 확인 불가 항목으로 대체 지표 사용, 시계열 변화 확인. 목표치 달성도 확인 불가능.  
본문 내용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사례 연구

제1절 대만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제2절 싱가포르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제3절 소결



## 제5장 사례 연구

### 제1절 대만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 1. 대만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 가.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확대 배경

대만에서는 2011년에 Ma Ying-jeou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저출산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아동 양육 및 보육 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정부 역할을 고민하는 정부 조직이 신설되었고, 양육 수당 및 돌봄 보조금 지급, 공공 보육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이 제안되었다.

대만의 ECEC 정책이 처음 기획될 당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논의 주제는 ① 자녀 양육 및 보육을 위해 부모가 쓰는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야 하는지 여부와 분담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보조해야 하는지, ② 정부는 보육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그 공적 자금은 수요 측면 혹은 공급 측면 중 어느 측면에 맞춰 배분되어야 하는지, ③ 보육 서비스 공급 확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 특히 비용-효과성이나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육 서비스 시장 도입,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혹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중 어떠한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지, ④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나 돌봄 제공자, 학급 규모, 아동 대 교사 비율, 보육 시설 등에 관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이었다(Chiu & Wei, 2011).

##### 나.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현황 및 이슈

대만에서 유아 교육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며, 보육 서비스는 1개월~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 센터(infant care center), 2~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nursery), 취학 대상인 6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센터(school-age child care center)의 세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Chiu & Wei, 2011).

유치원과 보육 시설 모두 공공보다 민간의 비중이 더 크지만, 유치원의 경우 197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공립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보육 시설은 민간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 또한 2000년 이후 아동수가 감소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 수와 이용 아동수가 모두 감소하고 있다(Chiu & Wei, 2011).

### 1) 대만의 유보통합 과정

대만에서는 오랫동안 교육부와 복지부가 유아 교육 및 보육을 각각 따로 담당해 왔으나, 2012년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ct〉가 제정되면서 유보통합이 이뤄진 바 있다. 유보 통합 이전과 이후 유아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면, 담당 부처는 교육부 소속 초등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 The Department of Elementary Education)로 동일하나, 대상 아동 연령이 4~5세에서 2~5세로 확대되었다. 유아 교육 제공자는 유치원 교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교사, 보육사, 보조 보육사로 다양화되었고, 통합 이전 교사수는 학급당 2명, 교사당 학생 비율은 1:15, 최대 학생수는 30명이었으나, 통합 이후에는 그룹당 최소 1명의 교사가 배치되도록 하고 보조 돌봄제공자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교사당 학생 비율 및 그룹당 최대 학생수는 3~5세 아동의 경우 1.15 및 30명으로 동일했으나, 새로 유아 교육 대상이 된 2세 아동의 경우에는 교사당 학생 비율은 1:8, 그룹당 최대 학생수는 16명으로 조정되었다(Chiu & Wei, 2011).

한편, 유보 통합으로 2~5세 아동 보육 서비스의 담당 부처, 서비스 전달자, 대상 아동 연령, 학급당 돌봄인원 수 및 아동-보육사 비율, 그룹당 최대 학생 수가 유아 교육과 동일해졌다. 통합 이전에는 보육 서비스의 담당 부처는 내무부 소속 아동복지과(Ministry of the Interior (MOI), Child Welfare Bureau)였고, 서비스는 보육사와 보조 보육사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아동-보육사 비율은 3~5세의 경우 1:15로 통합 이후와 동일했으나 2세의 경우 1:12에서 통합 이후 1:8로 줄어들었다(Chiu & Wei, 2011).

취학 연령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지역 돌봄과 학교 돌봄으로 구분되는데, 유보 통합 이전에는 지역 돌봄은 내무부 아동복지과가, 학교 돌봄은 교육부

초등교육부가 담당하다가, 유보 통합 이후 양자 모두 교육부 초등교육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유보 통합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어린이집(nursery)과 방과후 돌봄 센터(school-age child care center)는 계속 운영하되 ECEC법 시행 후 1년 안에 유치원으로 전환되었고 영아 돌봄 센터는 독립 시설과 어린이집 부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ECEC법은 어린이집 부설 영아 돌봄 센터의 운영을 중단하고 2년 안에 유치원에 통합할 것을, 기타 아동 복지 기관들은 ECEC법 시행 후 2년 안에 운영을 중단할 것을 규정하였다. 한편, 독립 시설로 운영되는 영아 돌봄 센터나 가정 양육은 〈Child and Youth Welfare Act〉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라 유보 통합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내무부 아동복지과에 의해 운영된다(Chiu & Wei, 2011).

## 2) 대만 유보통합의 문제점 및 해결과정

유보 통합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은 교사의 자격 조건 및 근무 조건 문제이다. 2011년 이전 유치원 교사는 종합대학에서 고등교육이나 사범교육을, 돌봄 센터 보육사는 기술(전문)대학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하였는데 ECEC 법이 시행되자 돌봄 센터 보육사들은 교사가 아닌 “돌봄 제공자”가 되어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26,000명에 해당하는 보육사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이면서 동시에 돌봄자 역할을 하는 “ECEC educator”를 양성하고자 2012년 유치원 교육의 핵심 훈련 과정을 담은 〈the Standards of Pre-Servic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ECEC〉가 만들어져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해당 학과 모두에 적용되었다. 또한 이전에 돌봄 센터에서 일해오던 보육사들은 프로그램 32학점 중 16학점을 이수하면 ECEC educator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와 보육사의 급여 차이도 문제가 되었는데, 이들은 유보 통합 이전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직무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Liu, 2018).

## 3) 대만의 유보통합 이후 아동정책

유보 통합을 거친 후 대만에서는 공립, 사립, 비영리 세 종류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대만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공립, 사립, 비영리 유치원 수는 각각 2002개(31.7%), 4258개(67.4%), 50개(0.7%)로 민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같은 시기 유치원 등록 아동 수는 공립 129199명(27%), 사립 342095명(71%), 비영리 5195명(1%)로 대다수의 대만 어린이들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종류에 따라 유치원 비용이나 운영 시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2015년 기준 공립 유치원의 등록금은 한 달에 미화 100달러 정도였지만, 사립 유치원은 300달러, 비영리 유치원은 200달러에 수준이다. 대만의 평균 월 임금 수준이 미화 1,600달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사립유치원 비용 300달러는 부모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 시간은 공립 유치원보다 사립 유치원이 긴데, 대만의 노동시간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볼 때 매우 긴 편이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은 맞벌이 가구의 보육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Liu, 2018).

특히 유치원 취학 연령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는 Early Childhood Education 바우처 프로그램이 있다(Chen & Li, 2017). 대만에서는 유보 통합 이전부터 사립 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높았으며, 사립 시설의 높은 등록금은 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1994년에는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이후 정부는 유치원 취학 연령 자녀를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1998년 Early Childhood Education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ECE 바우처 프로그램은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지원 금액이 사립 유치원 등록금에 비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더해 저출산 추세가 심화하면서 2008년 대선에서는 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공약이 등장하였다. 이 공약은 정책으로 구현되었고, 5세 아동의 공공 유치원 등록금 전액과 사립 유치원 등록금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금액은 2011년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 등록금도 커버할 정도로 증액되었고 그 결과 2012년 유치원 등록 아동의 수가 전년도 200,000명에서 450,000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Chen & Li, 2017)

한편, 가정 양육 가구 및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양육비 보조금 제도, 양육수당이 있음. 맞벌이 가구는 출산휴가(maternity and fraternity leave) 및 육아휴직(parental leave)과 양육비 보조금(infant care subsidy) 제도를, 외벌이 가구는 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양육비 보조금 및 양육 수당

양육비 보조금 제도는 2006년 정부가 보편적 영유아 돌봄 체계 계획(UICCSP: Universal Infant and Child Care System Plan)의 일환으로 시작한 “Great Warmth Social Welfare Package Program”을 계기로 2008년 도입되었다. 이 보조금은 2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혹은 취약가구(저소득, 장애아, 고위험 가구 등)에서 아이 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work-welfare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이 비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Chiu and Wei, 2011).

대만은 양육비 보조금 제도와 함께 돌보미 면허증 제도와 돌봄 교육 이수 제도를 활용하여 아이 돌보미의 질을 관리하고 있고 2012년에는 조부모를 포함한 친척 돌봄을 받는 경우에도 양육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Tsai, 2017). 지원금액은 돌보미가 자격증을 갖춘 경우(licensed)에는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3,000~5,000 TWD, 고등교육기관에서 돌봄 관련 전공 학위가 있거나 126시간의 돌봄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은 경우(certificated)에는 2,000~4,000 TWD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Tsai, 2017).

2012년 양육자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는 최근 대만의 조부모 돌봄의 증가 추세에 대응한 것이다. 대만 ‘여성의 결혼과 출산 및 고용에 관한 조사’(Women’s Marriage, Fertility and Employment Survey) 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가구의 2세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가 부모인 경우는 1983년 30.4%에서 2010년 10.3%로 감소하고 민간 돌보미인 경우는 15.0%에서 18.4%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조부모인 경우는 50.3%에서 65.9%로 증가하였다(Tsai, 2017). 한편, 양육수당은 2012년 도입되었는데, 2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세율이 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로 인해 비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월 2,500~5,000 TWD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대만 정부에 따르면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수는 2012년 약 21만 가구에서 2013년 약 25만 가구로 증가한 후 201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Tsai, 2017).

2013년 대만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1인 소득자 가구 비중은 35.6%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양육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양육자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데,

만 2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38.6%가 맞벌이 가구이면서 친척 돌봄을 지원 받아 확장된 양육자 보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9.7%는 맞벌이 가구이면서 아이돌보미를 고용하여 일반 양육자 보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sai, 2017).

대만의 양육수당 및 양육자 보조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1〉 대만의 양육수당 및 양육자 보조금 정책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자 수
양육수당 (childcare allowance)	* 2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육아로 인해 비취업 상태에 있는 가정 * 세율 20% 이하	2,500~5,000 TWD	- '12년: 21.2만명 - '13년: 25.4만명 - '14년: 25.8만명 - '15년: 25.5만명
양육자 보조금 (infant care subsidy)	* 2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혹은 편부모 가정 - 일반 보조금(2009년 도입): 외부 돌보미를 고용한 경우 - 친척 보조금(2012년 도입): 조부모 등 친척이 돌봄을 지원하는 경우 * 세율 20% 이하	〈면허증을 받은(licensed) 돌보미〉 - 일반 가구: 3,000 TWD - 중위소득 가구: 4,000 TWD - 저소득/취약 가구: 5,000 TWD  〈육아 관련 학위 소지 또는 자격증이 있는 돌보미〉 - 일반 가구: 2,000 TWD - 중위소득 가구: 3,000 TWD - 저소득/취약 가구: 4,000 TWD	〈일반 보조금〉 - '08년: 1.3만명 - '12년: 1.8만명 - '13년: 2.0만명 - '14년: 2.1만명 - '15년: 2.2만명  〈친척 보조금〉 - '12년: 21.2만명 - '13년: 25.4만명 - '14년: 25.8만명 - '15년: 25.5만명

자료: 이승윤, 송민영(2017)이 Tsai (2017:9, 11)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을 재인용.

###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만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ct (GEEA)〉와 〈Labor Standards Act (LSA)〉에 규정되어 있다(Chiu and Wei, 2011).

대만의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출산 전이나 후에 최대 8주간 사용가능한데, 해당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8주의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전액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다. 6개월 미만 근무한 노동자의 휴가 기간은 8주로 동일하지만 자신의 보통 임금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고 부성휴가는 유급으로 5일간 주어진다(Tomson Reuters, Practical Law, Employment and employee benefits in Taiwan: overview, 2018.12.1.)

대만의 육아휴직 급여(Parental leave allowance)는 2009년 도입되었다. 고용주

는 1~3세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GEEA에 따라 이를 허가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급 휴가이지만, 정부가 고용보험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2009년 급여가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 총 420,000명이 제도를 이용했으며, 남성 이용자도 2009년 4,000명에서 2016년 71000명으로 늘어났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은 6개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한 자녀당 12개월의 육아휴직 혜택을 누릴 수 있다(Ministry of Labor, Bureau of Labor Insurance, 2016.11.3.).

## 제2절 싱가포르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 1. 싱가포르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ECEC: Early Child Education and Care)

#### 가. 싱가포르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현황

싱가포르의 영유아 교육은 의무 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의 인적 자원에 대한 강조와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미취학 어린이 시설(preschool) 등록율이 매우 높은 편이며 그 종류는 유치원(kindergarten), 보육 센터(childcare centre), 놀이방(playgroup)으로 나뉜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유치원은 〈Education Act〉 (1985)에 근거해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MOE)에 등록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사립, 비영리, 정부 지원 시설로 나뉘는데 주로 3~6세 아동이 이용하며, 2017년 기준으로 495개의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영어와 중국어의 두 언어로 진행되고 취업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없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재정 보조가 이루어진다. 보육 센터는 〈Child Care Centre Act〉 (1988)에 따라 사회가족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MSF)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 비영리, 정부 지원 시설로 나뉘며 아동 연령에 따라 2~18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센터(infant care centre)와 18개월~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센터(childcare centre)로 나뉜다.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반일제(오전 7시-오후 1시)와 종일제(오전 7시-오후 7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취업모의 경

우 전일제는 S\$300, 시간제는 S\$150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이 있다. 놀이방은 모두 사립으로, 덜 형식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비구조화된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며, 약 3시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업모나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 나. 싱가포르 유아 교육 및 돌봄 정책 최근 개정 내용

싱가포르는 인적자본에 의지하여 경제발전을 이룬 나라답게 성과 중심의 경쟁적인 교육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나 최근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전인적인(holistic) 교육으로의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싱가포르의 영유아 교육은 거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지지만, 정부는 간접적 방식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데, 정부 방향성의 변화 조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나타난다.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TSLN)” (Senior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1997)이나 “Teach Less, Learn More (TLLM)”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 2004) 등이 그 예이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전인 교육을 구현하는 ECEC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커리큘럼 개발과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1년 영유아 교육의 소관 부처인 MOE와 MCYS 협력 하에 Preschool Qualification Accreditation Committee (PQAC)를 출범하여 교사 훈련 프레임워크, 최소 훈련 시간, 훈련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있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영유아 교육 개혁 주도 기관인 ECDA는 영유아 교육 시설 평가를 통해 영유아 교육 시설의 질을 유지하는 일도 맡고 있다. 영유아 시설 평가는 두 명의 ECDA 사정관이 Quality Rating Scale (QRS)이라는 평가 도구를 통해 진행하는데,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 Singapore Preschool Accreditation Framework (SPARK)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ECDA는 취약 가구 아동의 영유아 교육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보조금이나 그랜트 등을 지급하는 업무, 영유아 교육 시설에 관한 각종 정보를 담은 통계를 생산하는 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Phillipson et al., 2018; Lim & Lim, 2017).

## 2. 기타 아동 및 가족 관련 프로그램

싱가포르의 아동청소년 법은 1949년에 처음 제정된 후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포함하여 1993년에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비준국이 되면서 UNCRC와 UNICEF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가족중심의 접근으로 변화하였다. 2001년에는 방임 및 학대, 혹은 영양 결핍 아동과 쉼터(residential institutions)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안동현, 2017).

싱가포르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이하 MSF) 산하의 사회서비스협의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는 약 450개 사회서비스 기관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현재 싱가포르에서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문의하거나 어떤 시설에 찾아가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회서비스협의회 웹페이지(<https://www.ncss.gov.sg/navigator>)에서 제공되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 영역 사회서비스의 근거 법령과 소관 부처, 정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 싱가포르 아동 청소년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담당 부처	정책/보조금 이름	정책 내용
정보 통신 미디어 개발부	NEU PC Plus 프로그램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장애인들에게 새 컴퓨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 제공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경제적 지원	싱가포르 학생들이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고등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함. 학생들은 다양한 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교육부 경제적 지원 제도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학생들에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최고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
	교육부 독립 학교 장학 프로그램	싱가포르 시민권을 가진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독립 학교(independence school) 학비를 지원
서북부 지역 개발 위원회	서북부 학생 지원 기금	저소득층 학생의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상향 교육 및 개발 프로그램 (지역민만 지원)
SINDA	SINDA 장학금	저소득층 인도계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교육비 지원
동남부 지역 개발 위원회	Moneywise 매칭 펀드	교육부 재정 지원 제도(FAS) 혹은 학교 자문위원회(SAC) 산하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움 제공 (지역민만 지원)
서남부 지역 개발 위원회	교육적 목적의 보조금	기업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교통 및 식비 지원(지역민만 지원)



담당 부처	정책/보조금 이름	정책 내용
Yayasan MENDAKI	MENDAKI 교육 기금: 유치원 보조금	말레이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내도록 지원 제공
	MENDAKI 교육 기금: 학교 보조 계획	학교 교과서, 평가 서적 및 문구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서 바우처 형태의 지원 제공
	고등 교육비 보조금	저소득층 말레이 학생들에게 고등 교육기관 학비 보조금 제공

자료: <https://www.ncss.gov.sg/navigator>에서 2019.11.15.에 발췌 및 요약

특히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에 도입된 M&P 패키지(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정책은 출산률 제고를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의 범위는 주거 지원부터 모성·부성휴가까지 매우 다양한데, M&P패키지를 포함한 싱가포르 가족 정책 중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정책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5-3〉 싱가포르 가족 정책 중 아동 관련 정책의 담당 부처 및 내용

담당 부처	정책/보조금 이름	정책 내용
영유아기 개발국: 사회가족 개발부	영유아 보육 보조금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비용 일부를 보전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ComCare 보육 보조금(중앙 재정 지원)	기본/추가 보조금 이외에 저소득층 가정에게 추가로 보조금 지원. 보육 센터 등록 시 필요한 초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일회성 보조금도 신청 가능.
	ComCare 유치원 보조금 (유치원 재정 지원 계획)	저소득층 싱가포르 시민권 보유 아동에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
	ComCare 학생 케어 보조금	맞벌이 가구의 아동이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주택 개발 위원회	아동기 자녀 양육 가정 우선 제도	아동기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새 아파트 입주 기회 부여. 최초 신청자는 자동적으로 두 번의 기회를 갖게 됨.
	세 자녀 우선 제도	세 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택 물량의 5%를 따로 배정.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신청자는 공공 청약 라운드에 재신청 할 수 있음.
국세청	다자녀가구 세금 우대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를 경제적으로 지원
보건부	신생아를 위한 Medisave	싱가포르 국적의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입원비, 예방접종비, 외래 치료비 지원
	산모를 위한 Medisave 패키지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 Medisave를 통해 분만비용 및 출산전 상담, 초음파, 입원비, 수술비 등 지원

담당 부처	정책/보조금 이름	정책 내용
인력부, 사회가족부	정부 지원 입양 휴가	12개월 이하 영아를 입양한 여성에게 정부 지원 유급 휴가 제공
	정부 지원 자녀 돌봄 휴가	7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6일, 7~12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2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정부 지원 모성 휴가	싱가포르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취업 여성에게 16주의 정부 지원 유급 휴가 제공
	정부 지원 부성 휴가	취업 남성들이 갓 태어난 자녀들과 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1주일의 유급 휴가 제공
	정부 지원 공동 육아 휴직	자영업자를 포함해 취업 남성들이 양육을 목적으로 아내의 모성 휴가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국가개발부	새출발 주택 계획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이 집을 소유했다가 판 적이 있는 경우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회 가족 개발부	정부 지원 모성 혜택 제도	정부지원 유급 모성 휴가 제도(GPML)를 이용할 수 없는 취업모들을 위한 제도. 출산 전 1년 동안 최소 90일 이상 취업한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SINDA	유치원/보육시설 보조금 제도	ECDA 등록 보육 센터에 자녀를 등록한 인도 부모에게 재정 지원. ECDA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gency)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의 확대 버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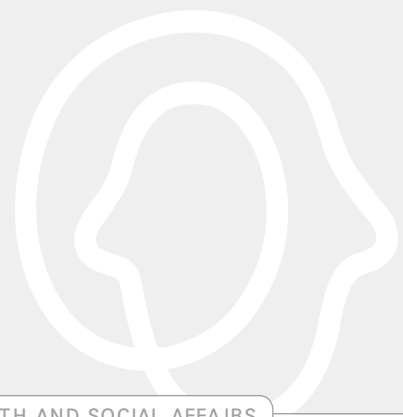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자료: <https://www.ncss.gov.sg/navigator>에서 2019.11.15.에 발췌 및 요약

### 제3절 소결

대만과 싱가포르의 아동가족복지 정책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책으로 확대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대만의 아동가족복지 정책은 특히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대만의 경우 유보통합을 이미 완료했으나 인력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일선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고 이것이 서비스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유아 교육과 보육 기관은 거의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이나 대만과는 달리 공적 영역에서 아동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의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과 저출산 추세의 지속으로 영유아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한다면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아동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며, 아동가족 복지에 대한 공공 투자는 아동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싱가포르, 한국 모두에서 유아 교육과 보육 개혁의 방향이 창의성 교육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동의 발달 자체 뿐 아니라 전체 사회 구조와의 연관성을 고민해야 한다.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 투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인 높은 사회 구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사교육 욕구를 잠재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용 불평등 완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우선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든 아동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논의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논의

제3절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논의

#### 1. 중앙부처

2018년도와 2019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중앙부처 평가는 13개 관련 부처의 각각 153개, 144개 과제에 대해 영역별로 이루어졌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은 아동수당 지급으로 인해 예산이 눈에 띄게 증대하였고,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의 달성도 측면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아동의 참여권 보장, 놀이·여가 권리 보장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특히, 성과달성도에서 그 차이가 나타났다. 아동의 놀이·여가 권리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에 대한 강조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한 삶 영역은 2018년, 2019년 모두에서 안전한 삶 영역 다음으로 예산이 낮게 편성되었으며,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건강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요한 한편, 사업의 구체적 기획과 체계적 집행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모두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체계 마련 영역의 성과달성도 점수는 발달주기별 건강관리체계 내실화 영역보다 점수가 낮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과 목표치 설정과 신뢰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안전한 삶 영역은 예산이 가장 낮게 편성된 반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교육부와 복지부를 비롯하여 국토부, 법무부, 경찰청, 식약처 등 총 10개에 이른다. 따라서 사업수는 많지만 비예산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획의 적절성이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사업들의 시행계획에서 전년도 시행 실적에 따른 한계를 분석하고,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한 삶 영역과 마찬가지로 성과 지표 및 목

표치의 적정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삶 영역 또한 년도 시행 실적에 따른 한계 분석 및 기대효과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과의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및 진단하고, 사업진행 과정 한계점을 분석하여 차년도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사업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선정하여 감점의 요인이 되었는데 개관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영역에서는 기획의 적절성이라 할 수 있는 사업내용과 추진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불충분한 사업들이 있어 이전 년도 실적을 검토하여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추진전략을 개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성과지표 선정 적정성 등 성과달성도 평가항목에도 연쇄적으로 한계점이 나타났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영역은 기본계획 상의 다른 네 개의 영역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계획 초기에 체계적인 기획을 통한 충실한 사업내용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도 평가에서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 항목이 제외되었다. 본 지표들은 정량적으로 성과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는 지표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지표이다. 따라서 본 지표들이 제외된 2019년도는 관련 항목의 상대적 점수가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이전의 평가 결과들과의 비교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더 나아가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써 향후 점검이 필수적이다.

## 2. 지방자치단체

2018·2019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시행계획 수립절차의 적절성 지표가 2개년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과지표 중에서는 국공립 유아 교육·보육 이용률, 취학 아동 돌봄 공공성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보육 및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보호 아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수당 수혜율로 측정한 자립지원은 9점(10점 만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고한 반면, 주거지원은 5점(10점 만점)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내 요보

호아동 대상 두 사업의 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도 단위의 종합 점수는, 광주, 대전, 세종, 전북 등이 점수가 높은 편이며 인천, 경남, 제주 등이 점수가 낮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추진방식의 적절성 항목과 기반구축 항목의 시도간 점수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더하여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아동정책의 지역적 인프라가 격차가 확인됨으로써 아동복지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과 함께 기본계획 이행의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놀이·여가 권리 보장 영역의 사업 수와 예산의 비중이 낮았는데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서도, 해당 영역의 성과 달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또한 과거에 비해 낮아져 관련 사업 개발과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개발 및 예산 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한 삶 영역의 사업 개발과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건강검진율과 청소년 자살률의 목표치가 달성되지 못했고, 아동 비만, 아토피, 모유수유, 스마트폰 중독, 패스트푸드 섭취, 아침식사 결식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영역의 시행 계획 평가결과는 매해 평균 미만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으나 해당 영역의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해폭행과 관련된 아동범죄의 피해자 수 증가, 가정내 사고 발생 증가, 학교폭력 피해 증가와 같이 안전한 삶 영역의 많은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공간 안전 확보와 아동안전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의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행안전 교육.캠페인 전개’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사업에 예산을 늘려왔지만 보행사고 사상자 수는 과거보다 증가하여 본 사업의 확대는 물론 어린이 보행 안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삶 영역과 관련해서는,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해외입양인 사후서비스 지원, 소년원 아동에 대한 적정 처우 제공, 방과후 돌봄체계 정비와 같은 사업의 예산의 증가하였다. 2017년,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사업의 도입 등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많은 지표에서 성과를 보였으나 시설 퇴소아동 자립율은 목표치 달성에 이르지 못했고,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은 악화되어 이와 관련된 세밀한 계획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계획과 사업의 개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계획 평가 결과 해당 영역의 점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및 아동권리보장 인식도 측면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양육·돌봄·교육과 관련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 결과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 예산, 인프라 등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및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충실도와 이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평가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국비 보조를 늘리거나 국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필수 영역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1차 기본계획의 총괄 및 영역별 목표치 달성 점검을 위한 계획 수립 당시 지표와 수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는 매년 지표의 변화로 인해 평가 결과의 시계열 비교에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다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한계점이 있어 2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평가시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제3절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 1.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중앙부처에 대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달성도와 시행계획의 종합 평가 결과, 저성으로 평가된 과제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 수와 예산의 비중이 낮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도 또한 낮게 나타난 아동의 참여 및 놀이·여가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의 참여권과 놀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관련 계획과 과제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건강 영역의 예산은 1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지표에서 성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동 비만, 스마트폰 중독, 아침식사 결식 등과 관련된 많은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건강 관련 악화된 지표를 중심으로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증대하여 과제의 이행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안전과 예산은 1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해폭행과 관련된 아동범죄의 피해자 수 증가, 가정내 사고 발생 증가, 보행사고 사상자 수 증가, 학교폭력 피해 증가와 같이 많은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안전한 생활공간 안전 확보와 아동안전 기반 구축 관련 과제에 대해 2차 기본계획의 지속적인 과제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아동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과 관련된 1차 기본계획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예산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많은 지표에서 성과가 나타났다. 한편, 목표치 달성에 이르지 못한 시설 퇴소아동 자립율과 악화된 결과를 보고한 미성년 범죄자 중 재범자 비율에 대해서는 2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행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1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시행계획 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낮아졌고,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및 아동권리보장 인식도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아동권리 보장과 관련된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관련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민간이나 내부자료에 기초한 성과지표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자료로 대체할 필요성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5개년 시행계획에 대한 종합 평가 결과는 1차 기본계획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 예산, 인프라 등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해 주었다. 이러한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2차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초기, 교육이나 컨설팅 등 형식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기본계획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차 기본계획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국비 보조를 늘리는 한편 국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특히, 필수 영역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평가

2018·2019년도 시행계획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영역별 평가의 공통점은 전년도 시행 실적 진단 및 한계점 분석이 미비했고, 소극적인 목표치 및 지표 선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목표치 달성 지표의 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불과하다, 5년이라는 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의 이행과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전년도에 대한 추진과정 및 실적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차년도 목표치를 선정하고,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이다. 그러나 1차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8년도와 2019년도 시행계획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평가가 2019년도의 과제 수행 중에 이루어져 시기상 본 지표들이 평가 항목이 제외되었다. 그로 인해 2019년도는 관련 항목의 상대적 점수가 낮아졌으며 전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에 있어 제한점이 발생했다. 추후에라도 2019년도의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점점이 필요할 것이며, 2019년도의 시행계획 평가 결과는 추진실적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

는데 3차 기본계획수립 시 이러한 점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실적 제출 및 평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제출은 3월 31일로 가장 늦다. 이는 해당 년도의 거의 1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으로 시행계획의 이행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전 년도 추진 실적 제출 시기 또한 3월 31일로 늦은 편이며, 이는 시행계획 평가를 연쇄적으로 늦추고, 차년도 시행계획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려면 또다시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시기를 전반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평가 체계의 확정이 미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일자

기본계획	제출일자	
	시행계획	추진실적
아동정책기본계획	3월 31일	3월 31일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월 말	2월 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기본계획	12월 31일	3월 말
양성평등정책	1월 31일	1월 31일
외국인정책	10월 말	2월 말
사회보장기본계획	1월 31일	3월 31일
다문화가족정책	12월 31일	2월 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다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로 시행계획의 성과달성도를 측정한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관련 지표가 사전에 공지되어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지 않고, 평가 수행 년도에 지표를 확정하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우선적으로는 특정 사업 중심의 성과달성도 평가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과제 중심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차 년도 평가 기준과 지표가 사전 공지되어 각 지자체가 시행계획 추진과 평가 기회를 공정하게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는 매년 지표의 변화로 인해 평가 결과의 시계열 비교에 제한점이 있었다. 기본계획 시행 초기에는 기본계획과 시

행계획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의 적절성 항목의 비중을 두고, 중·후반기에는 기본계획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의 점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은 있지만(김미곤·강지원 외, 2018), 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 5년동안의 시계열성 성과/결과의 추이 비교를 위해서는 연도별 지표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안동현, 김경희, 이희균, 이명진, 장화정, 정익중. (2017).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효율적 운영 위한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연구. 보건복지부.
- 이승윤 & 송민영 (2017) 한일대만현금급여 가족정책과 여성노동. 2017년 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아동수당세션 발표논문.
- Chiu, C. P., & Wei, S. (2011). Child care friendly policies and integration of ECEC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5(2), 1-19.
- Lin, C. H., & Lee, M. J. (2016). A comparative policy analysis of family preservation programs in the US and in Taiwa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5(4), 1131-1144.
- Lin, Y. W. (2017). Policy assemblage in Taiwan's child protection reforms: policy mixture, policy regime change and shifting policy challenges. *Child abuse review*, 26(4), 263-274.
- Chen, Eva E. and Li, Hui (2017). Ch 13.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aiwan" in Rao, N., Zhou, J., & Sun, J. (Eds.). (2017).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hinese societies* (Vol. 19). Springer.
- Liu, Yvonne Yu-Feng (2018). Ch 18.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Taiwan - The path to achieving high quality" in Garvis, S., Phillipson, S. and Harju-Luukkainen, H. (Eds.). (2018).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I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outledge.
- Tomson Reuters, Practical Law, Employment and employee benefits in Taiwan: overview, [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9-633-482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https://uk.practicallaw.thomsonreuters.com/9-633-4823?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p=1), 2018.12.1. 업데이트, 2019.11.27. 인출.
- Ministry of Labor, Bureau of Labor Insurance, <https://www.bli.gov.tw/en/0013195.html>, 2016.11.3. 업데이트, 2019.11.27. 인출.

- Tsai, Pei-Yuen. (2017). Issues and Challenges of Childcare Subsidy Policies in Taiwan. Social Welfare, Land, and Social Models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rch 6, 2017.
- Lim, M. Y. S. & Lim, A. (2017). Ch 12. "Government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ingapore: Contemporary Issues" in Rao, N., Zhou, J., & Sun, J. (Eds.). (2017).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hinese societies (Vol. 19). Springer.
- Phillipson, S., Koh, E., Sujuddin, S. & Sharif, S. M. (2018). Ch 16.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Singapore - Aspiring for holistic early learning" in Garvis, S., Phillipson, S. and Harju-Luukkainen, H. (Eds.). (2018).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I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outledge.
- Research and Advocacy Standing Committee Singapore Children's Society (2005). PROTECTION OF CHILDREN IN SINGAPORE: AN OVERVIEW  
[https://www.childrensociety.org.sg/resources/ck/files/child\\_protection.pdf](https://www.childrensociety.org.sg/resources/ck/files/child_protection.pdf)  
(2019.11.25. 인출)
-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https://www.ncss.gov.sg/navigator>, (2019.11.25. 인출)



## 부록1. 중앙부처 평가 양식

항목	지표	점수	평가 내용																			
1. 기획의 적절성 (20점)	이전 년도 시행 실적 반영 (10점)	**점 /10점	※ 이전년도 시행 실적에서 1) 성과, 2) 한계 및 문제점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함. - 2017년도 추진 실적의 성과와 한계 : 간략 기술																			
	사업 내용과 추진전략 연계 (10점)	**점 /10점	-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연계 : 간략 기술 -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 기대효과와의 일관성: 간략 기술																			
2.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 (20점)	**점 /20점	※ 2019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2018년 예산(a), 집행(b) 작성 ※ 비예산인 경우 예산항목명에 '비예산'이라고 작성하고 평가하지 않음 <table><tr><th>예산항목명</th><th>18 예산(A)</th><th>18 집행(B)</th><th>집행실적(B/A*20)</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예산항목명	18 예산(A)	18 집행(B)	집행실적(B/A*20)		-	-												
	예산항목명	18 예산(A)	18 집행(B)	집행실적(B/A*20)																		
	-	-																				
	추진계획 이행도 (10점)	**점 /10점	-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 : 간략기술 - 사업 목적과 추진계획의 일관성과 연계성 : 간략기술																			
3.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 적절성 (10점)	**점 /10점	- 성과지표와 사업 목적의 관계 : 간략기술 - 성과지표와 사업 내용의 관계 : 간략기술 ※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고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면 10점, 성과지표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면 7점, 성과지표가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면 5점, 일부 작성되거나 내용이 모두 미흡하면 3점																			
	성과지표 목표치 적절성 (10점)	**점 /10점	- 예산 추이를 고려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간략기술 - 과년도 목표치 추세를 고려한 적절성 : 간략기술 ※ 2017년과 2018년 예산 추이와 성과지표 목표치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2018년 목표치 설정이 적절하면 10점, 과년도 목표치 추세나 예산 규모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면 7점, 전년도 성과지표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면 5점, 그 외 0점																			
	성과지표 신뢰성 (10점)	**점 /10점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 간략기술 - 자료출처의 신뢰성 : 간략기술 ※ 성과지표의 신뢰성은 측정산식과 자료출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측정산식이 수식(계량지표) 혹은 문장(정성지표)으로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자료출처(실적 자료, 만족도 조사 등)가 명확한지 기준으로 충분 여부 판단																			
	성과지표 달성도 (20점)	**점 /20점	-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 간략기술 <table><tr><th>성과지표명</th><th>목표(A)</th><th>달성(B)</th><th>달성율(B/A*20)</th><th>가중치</th></tr><tr><td>A.</td><td></td><td></td><td></td><td></td></tr><tr><td>B.</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r></table> ※ 지표가 여러개 있는 경우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 계산 (예) (A*달성율*가중치)+(B*달성율*가중치).....	성과지표명	목표(A)	달성(B)	달성율(B/A*20)	가중치	A.					B.					...			
성과지표명	목표(A)	달성(B)	달성율(B/A*20)	가중치																		
A.																						
B.																						
...																						
점수 합계			○ 종합 의견																			



## 부록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항목	평가	평가기준																																																																							
기획의 적절성	6.0점/10점	○ 기획의 적절성 : **점/10(점) (기본점수 *점, 가점 *점) - 지역별 ①여건과 ②목표, ③전략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점수) 세가지 기준(①지역여건반영 ②추진 목표 및 방향 ③추진 전략)에 대해, 모두 충족 9점, 두가지 충족 7점, 한가지 충족5점, 미충족 3점, 미제시 0점 - (가점) 지표 간 연계 정도 0~1점 (소수점 가능)																																																																							
추진방식 적절성	8.4점/20점	○ 수립절차의 적절성 : **점/10(점) -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의견 수립 실적 및 횟수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인정. 대상자 점수는 공무원0점, 전문가/관계자1점, 일반주민2점, 아동/학부모3점 중 최고 점수만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① 주제</th><th>② 일시</th><th>③ 장소</th><th>④ 참석대상</th><th>⑤ 행사명</th><th>⑥ 증빙자료 여부</th></tr> </thead> <tbody> <tr> <td>□□도</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시</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군</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아동정책추진 체계 구축: **점/10(점) - (시도 2점) 구성 1점, 실적 1점 - (시군구 8점) 구성 4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지자체 수)*4, 실적 4점: (실적/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아동복지심의위원회</th></tr> <tr> <th>구성여부</th><th>실적</th></tr> </thead> <tbody> <tr> <td>○○시</td><td>a</td><td>b</td></tr> <tr> <td>시군구 (계)</td><td>c</td><td>d</td></tr> <tr> <td>..시</td><td></td><td></td></tr> <tr> <td>..군</td><td></td><td></td></tr> </tbody> </table> ※ 10점 이상인 경우 10점으로 처리	① 주제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대상	⑤ 행사명	⑥ 증빙자료 여부	□□도						..시						..군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여부	실적	○○시	a	b	시군구 (계)	c	d	..시			..군																																
① 주제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대상	⑤ 행사명	⑥ 증빙자료 여부																																																																				
□□도																																																																									
..시																																																																									
..군																																																																									
구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여부	실적																																																																							
○○시	a	b																																																																							
시군구 (계)	c	d																																																																							
..시																																																																									
..군																																																																									
성과 달성도	32.6점/60점	○ 드림스타트 수혜율 : *점/5(점) 가.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도 2.5점 (전담팀 수/기초지자체 수)*2.5 나. 드림스타트 수혜율 2.5점( 사례관리 아동 수/대상아동 수)*2.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th><th colspan="3">드림스타트 구축</th><th rowspan="2">사례관리 아동 수</th><th rowspan="2">12세 미만 아동 수</th></tr> <tr> <th>전담팀</th><th>전담공무원 (팀장 포함)</th><th>전담민간인력</th></tr> </thead> <tbody> <tr> <td>□□도</td><td>a</td><td>b</td><td>c</td><td>d</td><td>e</td></tr> <tr> <td>..시</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군</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 국공립 유아교육보육이용률 : **점/10(점) -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수) / (전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수)*1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th><th colspan="4">유치원</th><th colspan="4">어린이집</th></tr> <tr> <th>국립</th><th>공립</th><th>사립</th><th>전체</th><th>국공립</th><th>법인단체등</th><th>민간가정</th><th>전체</th></tr> </thead> <tbody> <tr> <td>□□도</td><td>a</td><td>b</td><td>c</td><td>d</td><td>e</td><td>f</td><td>g</td><td>h</td></tr> <tr> <td>..시</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 <td>..군</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수	12세 미만 아동 수	전담팀	전담공무원 (팀장 포함)	전담민간인력	□□도	a	b	c	d	e	..시						..군							유치원				어린이집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전체	□□도	a	b	c	d	e	f	g	h	..시									..군								
	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수	12세 미만 아동 수																																																																				
	전담팀	전담공무원 (팀장 포함)	전담민간인력																																																																						
□□도	a	b	c	d	e																																																																				
..시																																																																									
..군																																																																									
	유치원				어린이집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단체등	민간가정	전체																																																																	
□□도	a	b	c	d	e	f	g	h																																																																	
..시																																																																									
..군																																																																									

항목	평가	평가기준																																																																																														
		<div>○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 **점/10(점)</div> <div>- 대상아동 수 대비 보호종료 자립정착금 수혜아동 수</div> <table><tr><th rowspan="3"></th><th colspan="6">자립정착금</th></tr><tr><th colspan="3">지원대상아동수</th><th colspan="3">수혜아동수</th></tr><tr><th>양육 시설</th><th>공동생활 가정</th><th>가정 위탁</th><th>양육 시설</th><th>공동생활 가정</th><th>가정 위탁</th></tr><tr><td>□□도</td><td>a</td><td>b</td><td>c</td><td>d</td><td>e</td><td>f</td></tr></table> <div>○ 요보호아동 주거지원 : **점/10(점)</div> <div>-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공공주거 지원 수혜아동 수, 대상아동 수(보호종료 아동 중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아동 제외한 수)</div> <div>-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행 지자체 가점 (2019년만 해당, 1점)</div> <table><tr><th></th><th>정부 주거 지원 수혜자</th><th>정부 주거 지원 대상 보호아동 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아동수)</th><th>수혜율</th></tr><tr><td>□□도</td><td>a</td><td>b</td><td></td></tr><tr><td>..시</td><td></td><td></td><td></td></tr><tr><td>..군</td><td></td><td></td><td></td></tr></table> <div>○ 취약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 **점/10(점)</div> <div>- 공적 방과후돌봄 제공기관 이용 아동수: 시도 및 시군구의 돌봄 이용 현황 작성</div> <div>- 시도 및 시군구 아동 수: 통계청에서 주민등록인구 중 초등학생 추출</div> <div>-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시 가점 (2019년만 해당, 1점): 전체 시군구 수 대비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시군구 수를 1점으로 환산</div>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4">중앙정부 재정 보조 사업</th><th rowspan="2">초등학생수</th></tr><tr><th>초등돌봄 교실</th><th>지역아동 센터</th><th>다함께 돌봄센터</th><th>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th></tr><tr><td>□□도</td><td>a</td><td>b</td><td>c</td><td>d</td><td>e</td></tr><tr><td>..시</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군</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div>○ 학대 보호아동 인프라 구축 : *점/5(점)</div> <div>-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점)</div> <div>- 아동인구 10만 명당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및 학대피해아동일시보호소 수 (3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는 학대피해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포함하며, 청소년쉼터, 일시보호시설 등 요보호아동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은 포함하지 않음.</div> <table><tr><th rowspan="2"></th><th colspan="4">학대아동보호 인프라</th></tr><tr><th>아동보호 전문기관 수</th><th>학대피해아동 쉼터 수</th><th>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 (청소년 일시쉼터 등 일반 쉼터 제외)</th><th>전체 아동 수</th></tr><tr><td>□□도</td><td>a</td><td>b</td><td>c</td><td>d</td></tr><tr><td>..시</td><td></td><td></td><td></td><td></td></tr><tr><td>..군</td><td></td><td></td><td></td><td></td></tr></table>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아동수			수혜아동수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도	a	b	c	d	e	f		정부 주거 지원 수혜자	정부 주거 지원 대상 보호아동 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아동수)	수혜율	□□도	a	b		..시				..군					중앙정부 재정 보조 사업				초등학생수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도	a	b	c	d	e	..시						..군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 (청소년 일시쉼터 등 일반 쉼터 제외)	전체 아동 수	□□도	a	b	c	d	..시					..군				
		자립정착금																																																																																														
		지원대상아동수			수혜아동수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도	a	b	c	d	e	f																																																																																									
		정부 주거 지원 수혜자	정부 주거 지원 대상 보호아동 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수) - (원가정 복귀, 기숙사 입소 아동수)	수혜율																																																																																												
	□□도	a	b																																																																																													
	..시																																																																																															
	..군																																																																																															
		중앙정부 재정 보조 사업				초등학생수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도	a	b	c	d	e																																																																																										
..시																																																																																																
..군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학대피해아동 쉼터 수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소 (청소년 일시쉼터 등 일반 쉼터 제외)	전체 아동 수																																																																																												
□□도	a	b	c	d																																																																																												
..시																																																																																																
..군																																																																																																

항목	평가	평가기준																																																					
		○ 가정위탁 지원 : 3.7점/5(점)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1인당 지급기준액: 시도평균 지급기준액 산출, 지침 권고 금액(20만원) 대비 시군구 평균 지급기준액을 5점 만점으로 환산 - 2019년 전문가가정위탁 제도 운영 지자체 가점 (0.5점)																																																					
		<table><tr><td></td><td>가정위탁지원</td></tr><tr><td></td><td>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td></tr><tr><td>□□도</td><td>시군구 평균(a+b+c.../시군구 수)</td></tr><tr><td>..시</td><td>a</td></tr><tr><td>..군</td><td>b</td></tr></table>		가정위탁지원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시군구 평균(a+b+c.../시군구 수)	..시	a	..군	b																																											
			가정위탁지원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도	시군구 평균(a+b+c.../시군구 수)																																																				
		..시	a																																																				
		..군	b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도 : 3.8점/5(점) -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의 법정필요 보육사 배치 기준 충족률 - 시·도의 총 보육사 수/시·도의 법정필요 총 보육사수)*5 - 위의 5개 시설유형의 2교대 기준으로 법정필요 보육사의 충족률																																																					
		<table><tr><th rowspan="2">시도</th><th rowspan="2">시군구</th><th rowspan="2">유형구분</th><th rowspan="2">시설명</th><th colspan="3">아동수</th><th rowspan="2">보육사수</th><th rowspan="2">법정필요보육사수</th><th rowspan="2">법정필요보육사 비율</th></tr><tr><th>0~2세</th><th>3~6세</th><th>7세이상</th></tr><tr><td>□□도</td><td>..시</td><td>보호치료</td><td>000</td><td>1</td><td>1</td><td>1</td><td>3</td><td>5</td><td>50%</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 colspan="4">합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시도	시군구	유형구분	시설명	아동수			보육사수	법정필요보육사수	법정필요보육사 비율	0~2세	3~6세	7세이상	□□도	..시	보호치료	000	1	1	1	3	5	50%	:	:	:	:	:	:	:	:	:	:	:	:	:	:	:	:	:	:	:	:	합계									
		시도					시군구	유형구분	시설명				아동수			보육사수	법정필요보육사수	법정필요보육사 비율																																					
0~2세	3~6세		7세이상																																																				
□□도	..시	보호치료	000	1	1	1	3	5	50%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아동친화도시 구축: 1.0점/5점 -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을 위한 노력을 시도와 시군구로 측정하여 점수 합산 (평가 인증 2점, 그 외 노력 1점) - 2018년, 2019년 각 당해연도까지의 현황 기준 (3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지되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 신규 인증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인증받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근거 자료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 평가 인증은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공자료 · 조례는 평가자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www.elis.go.kr)하여 검증 · 예산 및 조직도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																																																							
<table><tr><th rowspan="2">주체</th><th colspan="4">아동친화도시</th><th rowspan="2">⑥ 증빙자료 여부</th></tr><tr><th>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th><th>2. 조례명 (조례명 입력)</th><th>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th><th>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th></tr><tr><td>□□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군</td><td></td><td></td><td></td><td></td><td></td></tr><tr><td>예시1</td><td>× (18.10.12.)</td><td>×</td><td>×</td><td>×</td><td>1</td></tr><tr><td>예시2</td><td>○ (18.10.15.)</td><td>○ (조례명, 18.08.20.)</td><td>○ (항목명, 600만원)</td><td>○ (아동친화도시팀)</td><td>1</td></tr></table>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자료 여부	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	2. 조례명 (조례명 입력)	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	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	□□도						..시						..군						예시1	× (18.10.12.)	×	×	×	1	예시2	○ (18.10.15.)	○ (조례명, 18.08.20.)	○ (항목명, 600만원)	○ (아동친화도시팀)	1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자료 여부																																																
	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	2. 조례명 (조례명 입력)	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	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																																																			
□□도																																																							
..시																																																							
..군																																																							
예시1	× (18.10.12.)	×	×	×	1																																																		
예시2	○ (18.10.15.)	○ (조례명, 18.08.20.)	○ (항목명, 600만원)	○ (아동친화도시팀)	1																																																		
○ 국가공모사업 참여도: 5.0점/5점 - 아동 관련 국가정책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시도(2점)와 시군구(1점) 점수 합산																																																							
<table><tr><th rowspan="2"></th><th rowspan="2">부처명</th><th colspan="2">신청</th><th colspan="2">선정</th></tr><tr><th>시도</th><th>시군구 명</th><th>시도</th><th>시군구 명</th></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able>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 명	시도	시군구 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 명		시도	시군구 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기반구축	6.0점 /10점	○ 아동친화도시 구축: 1.0점/5점 -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을 위한 노력을 시도와 시군구로 측정하여 점수 합산 (평가 인증 2점, 그 외 노력 1점) - 2018년, 2019년 각 당해연도까지의 현황 기준 (3년마다 재평가를 통과해야 인증이 유지되는 아동 친화도시 인증제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해 년도 신규 인증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인증받은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인정) - 근거 자료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 평가 인증은 여부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제공자료 · 조례는 평가자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www.elis.go.kr)하여 검증 · 예산 및 조직도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																																								
		<table><tr><th rowspan="2">주체</th><th colspan="4">아동친화도시</th><th rowspan="2">⑥ 증빙자료 여부</th></tr><tr><th>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th><th>2. 조례명 (조례명 입력)</th><th>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th><th>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th></tr><tr><td>□□도</td><td></td><td></td><td></td><td></td><td></td></tr><tr><td>..시</td><td></td><td></td><td></td><td></td><td></td></tr><tr><td>..군</td><td></td><td></td><td></td><td></td><td></td></tr><tr><td>예시1</td><td>× (18.10.12.)</td><td>×</td><td>×</td><td>×</td><td>1</td></tr><tr><td>예시2</td><td>○ (18.10.15.)</td><td>○ (조례명, 18.08.20.)</td><td>○ (항목명, 600만원)</td><td>○ (아동친화도시팀)</td><td>1</td></tr></table>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자료 여부	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	2. 조례명 (조례명 입력)	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	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	□□도						..시						..군						예시1	× (18.10.12.)	×	×	×	1	예시2	○ (18.10.15.)	○ (조례명, 18.08.20.)	○ (항목명, 600만원)	○ (아동친화도시팀)	1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자료 여부																																	
			1. 평가인증 (인증날짜 입력)	2. 조례명 (조례명 입력)	3. 예산항목, 예산액 (항목명, 예산액 입력)	4. 전담조직 (조직도여부, 조직명 입력)																																				
		□□도																																								
..시																																										
..군																																										
예시1	× (18.10.12.)	×	×	×	1																																					
예시2	○ (18.10.15.)	○ (조례명, 18.08.20.)	○ (항목명, 600만원)	○ (아동친화도시팀)	1																																					
○ 국가공모사업 참여도: 5.0점/5점 - 아동 관련 국가정책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시도(2점)와 시군구(1점) 점수 합산																																										
<table><tr><th rowspan="2"></th><th rowspan="2">부처명</th><th colspan="2">신청</th><th colspan="2">선정</th></tr><tr><th>시도</th><th>시군구 명</th><th>시도</th><th>시군구 명</th></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able>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 명	시도	시군구 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 명		시도	시군구 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